

2026년 09월 16일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ETF로 설계하는 평생 연금 전략

ETF Analyst 김진영

RA 조호준

지난 '연금 ETF 투자 백서' 자료에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노후 준비 현실과 사적연금 제도 현황을 짚어보고, ETF를 활용한 연금 포트폴리오를 소개했다.

이번에는 최근 연금시장 동향과 정책 변화를 업데이트하는 동시에 실용성 측면에 보다 초점을 두어 '평생 자산관리를 위한 연금 ETF 전략'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목차

ETF로 설계하는 평생 연금 전략	3
연금과 ETF	3
I. 연금 시장의 구조적 변화	6
사적연금 시장 한 눈에 보기	6
퇴직연금 500조 시대 개막	8
개인연금 시장 변화	15
제 3의 절세계좌, ISA	18
II. 왜 ETF인가?	24
연금과 ETF의 동반 성장	24
III. 생애주기 ETF 투자 전략	30
연금 ETF 투자 실전	30
연금 ETF 포트폴리오 소개	53
투자가능 ETF 라인업	57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TF로 설계하는 평생 연금 전략

>>> 연금과 ETF

연금 전략은 단거리가 아닌 장거리 마라톤이다. 연금은 적립부터 운용, 그리고 55세 이후 인출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관리해야 하는 초장기 자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 시장수익률을 추구하기보다 투자기간과 위험감내 수준에 맞춰 자산을 배분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위험자산 비중을 조절하면서 장기적인 복리효과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은퇴 후 자산 활용 기간도 길어지는 만큼, 연금자산 관리의 초점은 '얼마나 많이 쌓을 것인가'에서 '어떻게 운용하고, 얼마나 오래 효율적으로 인출할 것인가'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가능한 일찍 투자를 시작해 장기간 꾸준히 적립하는 한편, 연금저축·IRP·ISA 등 계좌별 세제와 인출규정을 활용하면 장기 복리와 절세효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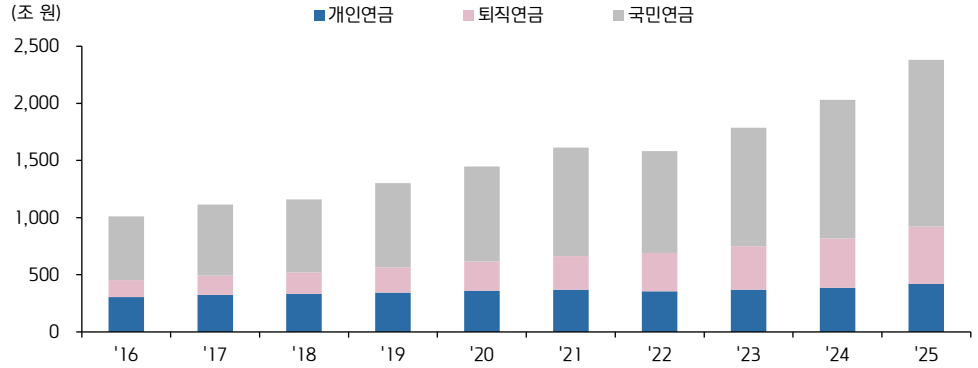
연금자산의 배분과 운용의 중요성은 가입자별 성과와 자산 구성의 차이에서도 확인된다. 2025년 퇴직연금의 연간 수익률은 6.5%로 제도 도입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전반적인 성과 개선 속에서도 수익률 상위 10%와 하위 10% 가입자의 자산배분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상위 10%는 적립금의 84%를 실적배당형으로 운용한 반면, 하위 10%는 74%를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용했다. 한 해의 성과만으로 특정 자산배분의 우위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차이는 연금 적립 규모뿐 아니라 자산 구성과 운용 방식도 노후자산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연금자산 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ETF'가 주요 투자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2025년 말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ETF 투자금액은 48.7조원(3년 연속 100%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전체 실적배당형 자산 내 비중은 40%까지 확대됐다. 개인연금-연금저축상품 안에서도 ETF·펀드 등을 직접 운용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 적립금이 2025년 61.3조원으로 전년대비 50.7% 증가했고, 연금저축 펀드·ETF의 연간 수익률도 29.3%를 기록했다. ISA 역시 투자중개형을 중심으로 주식·ETF 등 투자자산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즉 연금·절세계좌의 성장은 단순한 계좌 수 증가를 넘어 가입자가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하고 자산배분을 관리하는 '자기주도형 자산관리'의 확산과 맞물려 있다.

지난 '연금 ETF 투자 백서' 자료에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노후 준비 현실과 사적연금 제도 현황을 짚어보고, ETF를 활용한 연금 포트폴리오를 소개했다. 이번에는 최근 연금시장 동향과 정책 변화를 업데이트하는 동시에 실용성 측면에 보다 초점을 두어 '평생 자산관리를 위한 연금 ETF 전략'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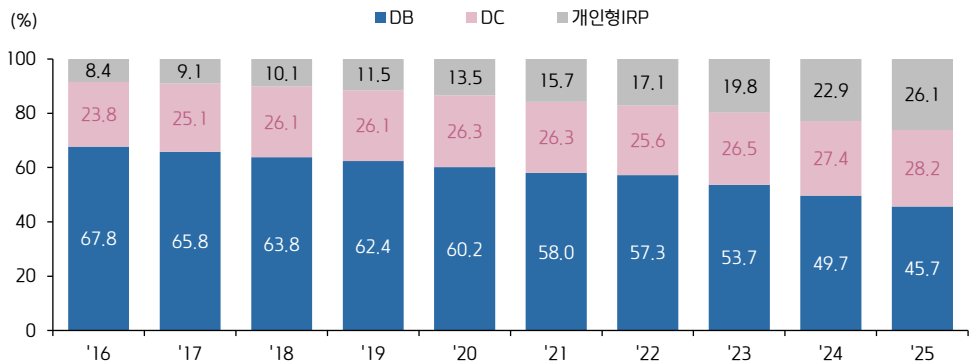
>>> Key Charts

국내 3대 연금 적립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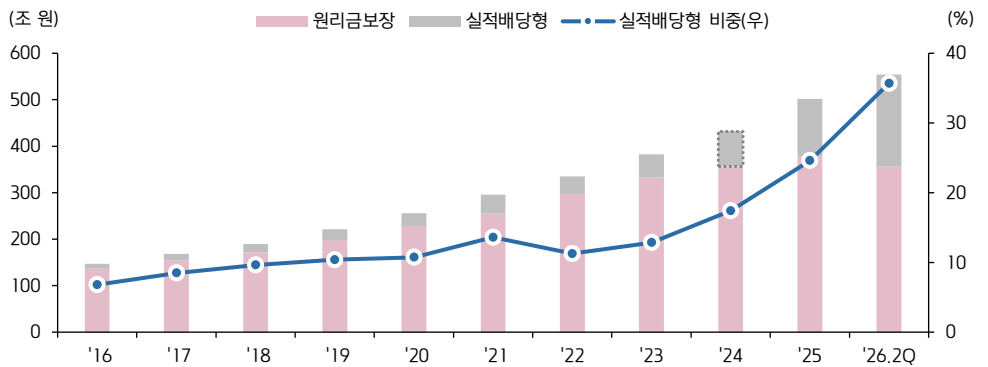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키움증권 리서치

국내 퇴직연금 제도유형별 적립금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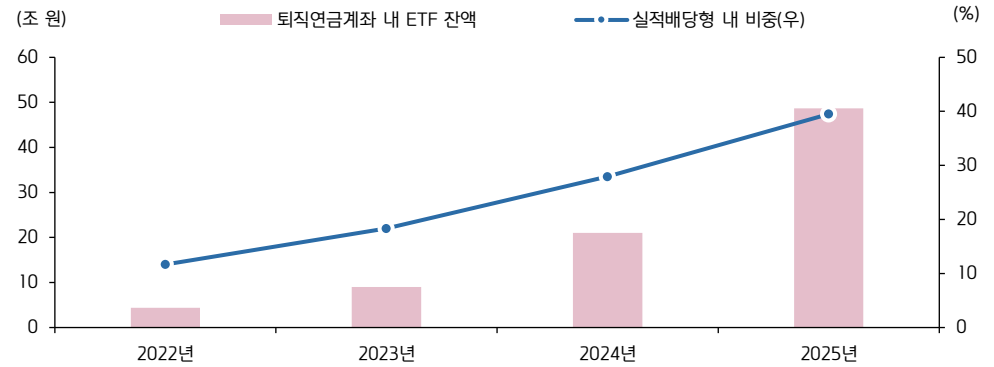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키움증권 리서치

퇴직연금 운용방법별 적립금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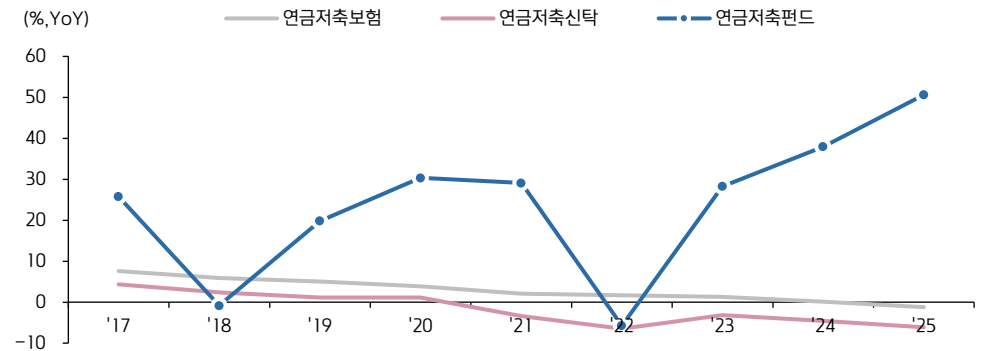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통계청, 키움증권 리서치

퇴직연금 계좌 ETF 잔액 및 실적배당형 내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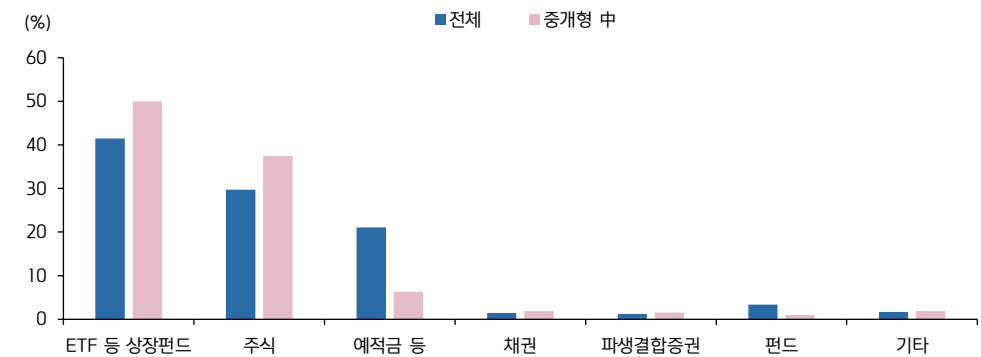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키움증권 리서치

연금저축, '연금저축펀드' 중심 적립금 성장세



자료: 금융감독원, 키움증권 리서치

ISA 운용자산 내 금융상품별 비중 ('26.6월)



주) 운용액 기준, 기타는 기타펀드, RP, 파생형, MMF로 구성

자료: 금융투자협회, 키움증권 리서치

I. 연금 시장의 구조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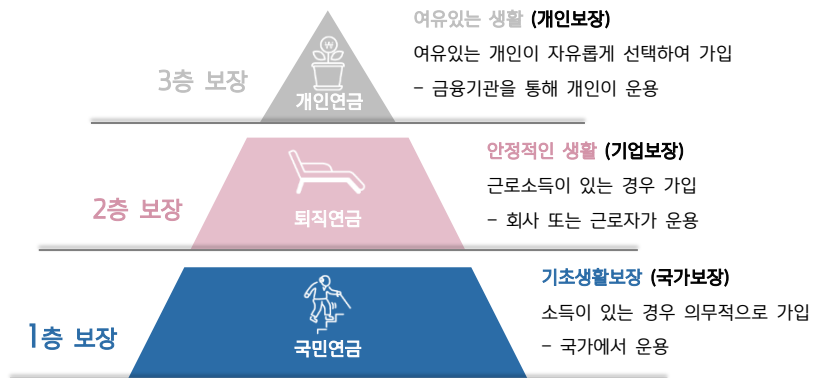
>>> 사적연금 시장 한 눈에 보기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0층 기초연금('14~), 1층 국민연금('88~), 2층 퇴직연금('05~), 3층 개인연금('94~) 및 직역연금(공무원·군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2025년 말 비중 국민연금 60%, 퇴직연금 21%, 개인연금 19%).

그 중에서도 2~3층으로 대변되는 **사적연금**은 **소득 공백기**(근로자들의 퇴직연령과 국민연금 수령연령 간 괴리) **동안 자금의 가교 역할을 감당할 중요한 자산**이다. 직장인들의 현실적 체감 은퇴 시점은 대체로 55세 전후인 반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은 점차 늦춰지고 있어,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즉, 약 10년 이상의 '소득 공백기' 동안 대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바로 사적연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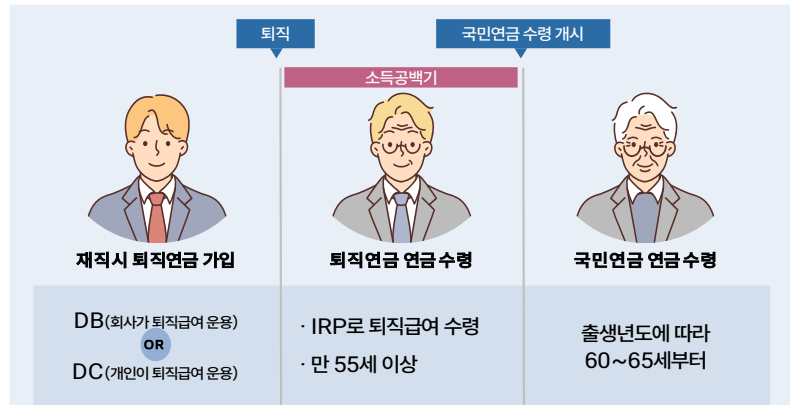
초고령 사회 진입, 가계 자산배분이 비금융에서 금융으로 이동중인 가운데 근로자들은 이제 국민·기초연금 뿐만 아니라 퇴직·개인연금 활용을 통한 자산 증식에 관심을 높여가고 있다. 정책적으로도 사적연금이 기존 국민연금의 보완적 기능 수행을 넘어 실질 노후소득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되는 중이다.

우리나라 3층 연금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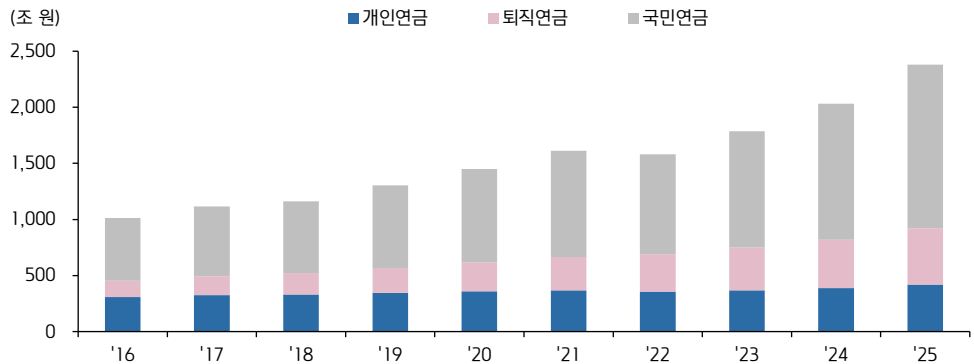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

소득공백기 퇴직연금의 역할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

국내 3대 연금 적립금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키움증권 리서치

>>> 퇴직연금 500조 시대 개막

3대 연금 중 가장 빠르게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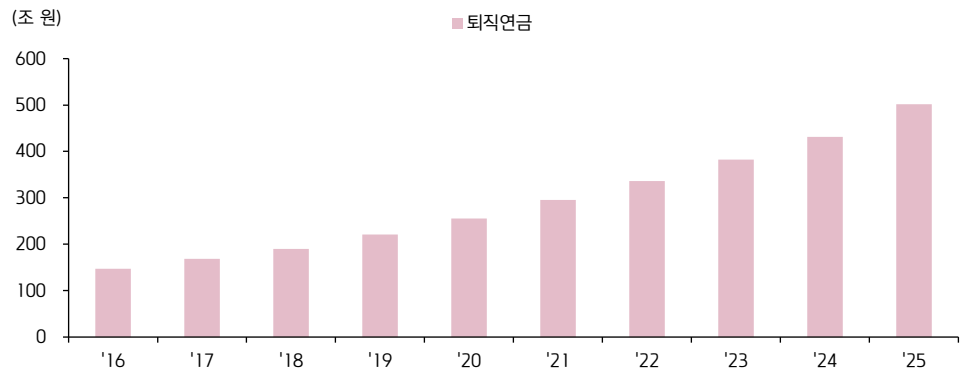
우리나라 사적연금은 크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구분된다. 퇴직연금 제도는 피고용자(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2005년 12월부터 시행되었고, 개인연금(연금저축) 제도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1994년부터 시행되었다.

그 중에서도 '퇴직연금' 시장은 2025년 말 적립금 500조원을 돌파했다. 2024년 말 대비 적립금이 70조원(16%) 증가, 2020~2025년 매년 평균 14% 늘어난 것으로 3대 연금 가운데서도 가장 빠른 성장세다(vs. 국민연금 12%, 개인연금 3%).

이 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확대, 근로자의 기본임금 상승뿐 아니라 사적연금을 통해 노후 대비를 장려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도 역할을 했다. ▲퇴직금 IRP 계좌 이전 의무화('22.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22.4), ▲디폴트옵션 도입('22.7) 등 굵직한 제도 개선이 진행되었으며, **현재 추진 중인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25.8 추진 발표, '26.2 노사정 합의, '27년~ 시행 추진),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활성화('25.10 논의 착수, '26.2 노사정 합의), ▲퇴직연금 현물이전 범위 확대('26.8 추진 발표) 및 편입상품 추가 확대 등('26.3 추진 발표)**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또 한번의 도약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퇴직연금은 이제 단순한 노후소득보장 수단을 넘어, 금융회사의 장기 자산관리 경쟁력과 고객기반을 결정하는 주요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커진 규모만큼 퇴직연금 자금을 유지하기 위한 금융업권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도입('24.10) 이후에는 특히 증권사가 자산관리 역량과 디지털 인프라 경쟁력을(ETF 등 실적배당형 상품 옵션 다, 실시간 거래 지원) 바탕으로 유치 규모를 늘리고 있다.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키움증권 리서치

국내 퇴직연금제도 변화 추진 방향

구 분	내용	진행 단계
퇴직연금 편입 상품 확대	- DC/IRP에 상장리츠(REITs) 및 인프라펀드 편입 가능	시행 (2019년 12월)
연금상품 수익률 비교 및 사업자·상품변경 간소화	- 가입자가 온라인을 통해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수익률을 비교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IRP) 사업자 및 상품을 원스톱으로 변경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기존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전면 개편)	시행 (2020년 1월)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 퇴직·개인연금 사업자(금융기관)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과 성과 등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지도록 개선 - 중소·영세기업 및 가입자(IRP) 수수료 부담 경감, 공시제도 개선을 통해 자율경쟁 지원	시행 (2020년 2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 도입	- 중소기업(30인 이하)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 기금제도 운영 주체인 근로복지공단은 매년 기금 운용계획 및 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운용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신탁·증권매매·대여 등 규정 → 단, 기금형 퇴직연금 전면 도입을 위한 법안은 아직 국회 계류 중으로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시범 도입	시행 (2022년 4월)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IPS 작성 제도 도입	- 300인 이상 DB형 퇴직연금 도입 기업에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적립금운용계획서(IPS) 작성 의무화	시행 (2022년 4월)
DC형 퇴직연금 다폴트 옵션 도입	- 개인이 운용을 지시하는 DC형, IRP 퇴직연금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에 지정한 다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운용해주는 제도 도입. 단, 사전에 지정한 적격상품만 자동가입 대상	시행 (2022년 7월)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	- 퇴직연금에 제공되는 원리금보장상품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촉진 - 퇴직연금 제도별 운용규제 개선을 통한 보다 유연한 적립금 운용 지원	시행 (2023년 11월)
퇴직연금 현물이전 제도 도입	- 한 금융사의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금융사로 옮길 때, 상품 그대로 이전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추진	시행 (2024년 10월)
푸른씨앗 가입 대상 확대 및 푸른씨앗 IRP 신설	- 푸른씨앗 가입 대상 확대 (기존 30인 이하 사업장 → '26.7월 1일부터 50인 미만) - 자영업자·노무제공자·공무원 가입 가능한 푸른씨앗 IRP 신설	시행 (2026년 7월)
퇴직연금 투자가능 상품 확대 및 운용규제 개선 추진	- 발행어음, IMA(종합투자계좌)의 퇴직연금 편입 방안 검토	검토 단계
전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의 단계적 의무화 추진	-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 즉 사실상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 추진 - 사업장 규모·여건을 고려해 순차 적용하고 중소·영세사업장 지원 병행 검토	법제화 추진, 2027년 이후 단계적 시행 목표로 논의 중
퇴직연금 현물이전 제도 고도화 (범위 확대)	- 동일제도 간 이전에서 DC → IRP 등 제도 간 이전으로 범위 확대 추진 - 환매중단펀드의 이전 허용, 비대면 의사확인 절차 개선 등	추진 중. 2027년까지 개선 목표
계약형과 병행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공공기관 개방형* 등 다양한 기금형 제도를 활성화해 기존 계약형(DB·DC·IRP) 퇴직연금과 병행 추진 * 記운영 중인 '푸른씨앗'은 가입 대상 확대 추진('27.1월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추가 확대)	노사정 합의 및 법제화 추진 단계

자료: 언론 보도, 키움증권 리서치

DB에서 DC·IRP로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한 뒤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제도유형별로는 ①DB형(확정급여형), ②DC형(확정기여형), ③IRP(개인형 퇴직연금)로 나뉘는데, DB는 '회사'책임형, DC는 '근로자'책임형이라 할 수 있다. **DB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적립금 운용에 따른 손익을 기업이 부담하는 구조다. 반면 **DC형**은 기업이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투자 성과에 따라 최종 퇴직급여가 달라진다. **IRP**는 퇴직급여를 이전 받거나 개인이 추가 자금을 납입해 직접 운용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DB·DC와 달리 개인 단위로 관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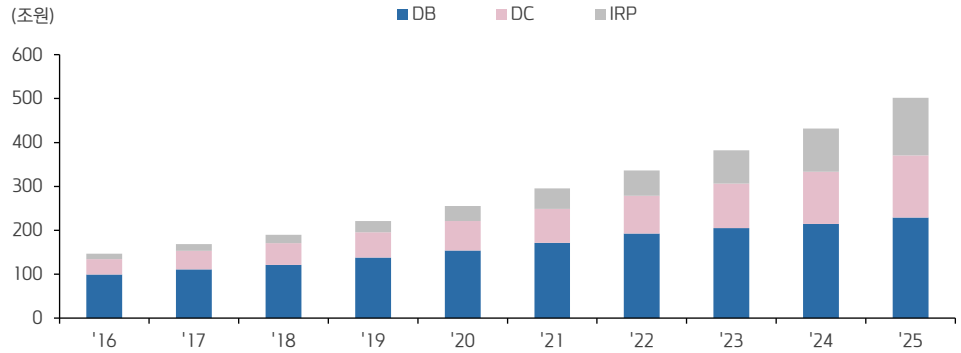
최근 국내 퇴직연금 시장에서는 기업이 운용하는 DB 중심 구조에서 개인의 운용 선택권이 큰 DC·IRP 중심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동시에, 원리금보장형 중심에서 펀드·ETF 등 실적배당형으로 운용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2025년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전년대비 16.1% 증가하며 사상 처음 500조원을 넘어섰다. 제도별로 DB가 228.9조원(비중 45.7%), DC 및 IRP가 각각 141.6조원(28.2%), 130.9조원(26.1%)을 기록했다. 단일 유형으로는 DB가 여전히 가장 큰 시장이지만, 그 비중은 장기간 하락하고 있으며, DC/IRP 합산 비중이 54.3%로 이제는 전체 적립금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개인형 **IRP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2025년 IRP 적립금은 전년대비 32.6%(5년 연평균 31% 증가)해 같은 기간 DC 및 DB과 비교해 독보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IRP의 빠른 성장은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에 따른 자기부담금 확대뿐 아니라, 2022년 4월부터 시행된 퇴직급여의 IRP 이전 의무화 및 퇴직·이직에 따른 자금 유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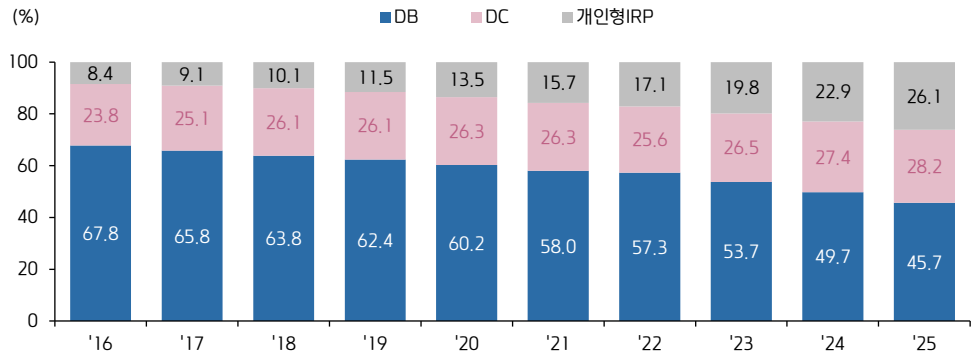
글로벌 주요 연금 시장에서도 같은 방향성이 확인된다. 미국·호주·캐나다·영국·네덜란드·스위스·일본으로 구성된 연금 선진 7개국(P7)에서는 DC 자산이 2018년 처음 DB 자산을 넘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비중이 확대되어 왔다. 2025년 말 기준으로 보면, P7 전체 연금자산 가운데 DC 비중은 63%까지 상승했으며, 미국은 72%, 호주는 90%에 달한다. 지난 10년간 DC 자산 증가율 역시 연평균 9.4%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연금시장의 중심축이 DB에서 DC로 이동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퇴직연금 제도유형별 적립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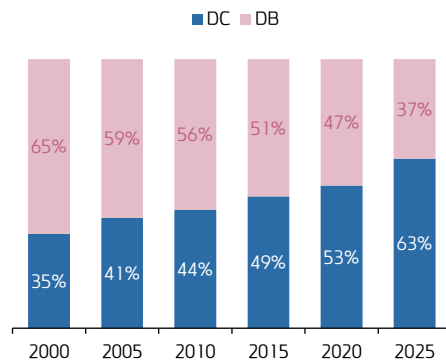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키움증권 리서치

국내 퇴직연금 제도유형별 적립금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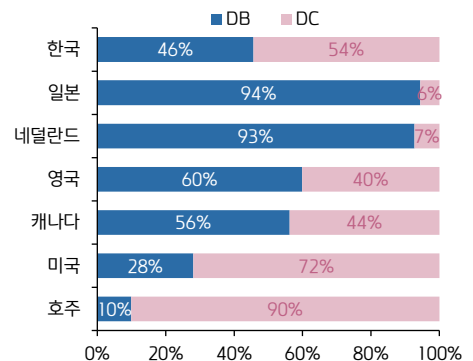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키움증권 리서치

연금 선진국(P7)의 DC형 퇴직연금 비중



자료: Thinking Ahead Institute(2026), 키움증권 리서치

주요국 퇴직연금의 DB형과 DC형 비중



주) 2020년 말까지 적립금 기준, 한국만 원화 적립금 기준이며 한국은 DC+IRP 합산

자료: Thinking Ahead Institute(2026),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2026), 키움증권 리서치

원리금보장형에서 실적배당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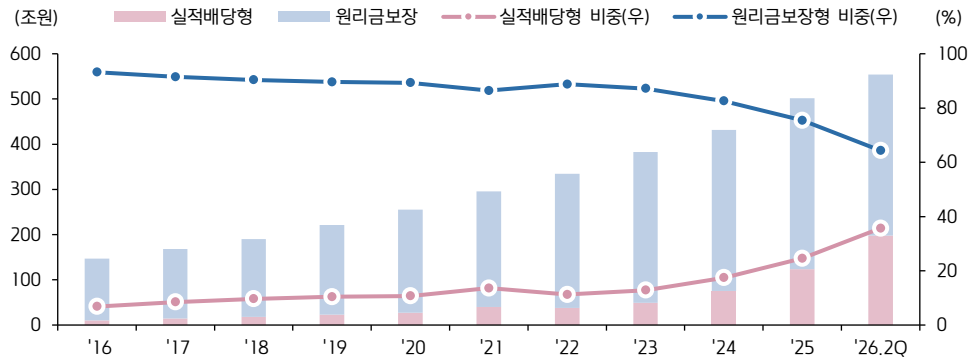
더 주목할 변화는 퇴직연금의 운용방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운용방법별 적립금을 보면, 2025년 말 **실적배당형 적립금이 123.3조원으로 전년대비 64% 증가**했으며, 전체 퇴직연금 내 **비중도 24.6%까지 상승**했다. 2023년까지만 해도 비중이 10%대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빠른 성장세다. 2026년 2분기 말 기준으로는 사상 최초로 30%선을 넘은 35.7%를 기록하기도 했다. 절대적인 수준은 원리금보장형 비중이 여전히 높지만, 해당 수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특히 실적배당형* 내 ETF 투자금액은 48.7조원으로 3년 연속 100%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전체 실적배당형 자산의 약 40%를 차지**하면서 핵심 투자수단으로 빠르게 자리잡았다. 이는 퇴직연금이 '저축계좌'에서 가입자가 직접 자산을 배분·운용하는 장기 '투자계좌'로 성격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적배당형은 집합투자증권이 대부분(115.7조원, 93.8%)으로 이 외 회사채 등(6.4조원, 5.2%), 실적배당형 보험(1.2조원, 1.0%)으로 구성. 집합투자증권은 주식형/채권형 펀드, TDF, ETF 포함

퇴직연금 운용방법별 적립금 비중 추이



자료: 고용노동부, 통계청, 키움증권 리서치

2025년 퇴직연금 적립금의 실적배당형 운용 현황

구분	전체		DC		개인형 IRP	
	금액(조원)	비중(%)	금액(조원)	비중(%)	금액(조원)	비중(%)
실적배당형 합계	123.3	24.6	46.5	33.2	57.9	44.3
실적배당형보험	1.2	1.0	0.9	1.9	0.3	0.5
회사채 등	6.4	5.2	1.5	3.3	2.8	4.8
집합투자증권	115.7	93.8	44.1	94.9	54.8	94.7
(주식형)	49.4	42.3	22.9	50.9	25.6	46.4
(주식혼합형)	16.1	13.8	5.5	12.3	9.4	17.1

자료: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키움증권 리서치

실적배당형 적립금 구성

구분	집합투자증권		실적배당형 보험		회사채 등		합계	
	금액(조원)	비중(%)	금액(조원)	비중(%)	금액(조원)	비중(%)	금액(조원)	비중(%)
'24 연말	64.4	85.5	0.9	1.2	10.0	13.3	75.2	100.0
'25 연말	115.7	93.8	1.2	1.0	6.4	5.2	123.3	100.0
증가율(%)	79.7		33.7		△36.0		64.0	
증감(조원, %p)	51.3	8.3	0.3	△0.2	△3.6	△8.1	48.1	

자료: 고용노동부, 통계청, 키움증권 리서치

연금 수익률 상위 10%는 대부분 '실적배당형' 투자

원리금보장형에서 실적배당형으로의 배분 변화는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으로도 연결된다.

2025년 퇴직연금의 연간 수익률은 **평균 6.47%로 2005년 제도 도입 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운용방법과 제도유형, 가입자의 자산배분 방식에 따라서는 상당한 성과 격차가 관찰되었다.

운용방법별로 보면 원리금보장형 수익률은 3.1%에 그친 반면 실적배당형은 16.8%를 기록하며 약 5배의 격차를 나타냈다. **제도유형별**로도 원리금보장형 비중이 높은 DB형은 3.5%에 그친 반면, 가입자 주도로 운용하고 실적배당형 비중이 높은 DC·IRP는 각각 8.5%, 9.4%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금융권역별**로도 ETF·펀드 등 투자상품 접근성이 높고 실적배당형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권사의 수익률이 9.8%로 가장 높았으며, 은행 5.7%, 생명보험 4.5%, 손해보험 3.8% 순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더 주목할 부분은 가입자 간 수익률 격차다. 수익률 상위 10% 가입자의 평균 수익률은 19.5%에 달한 반면, 하위 10%는 0.5%에 그치며 약 40배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DC·IRP 가입자의 절반 가량이 연 2%대 수준의 낮은 수익률 구간에 머물러, 전체 평균수익률 상승이 모든 가입자의 성과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상·하위 가입자 간 성과 격차는 **자산배분 방식의 차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수익률 상위 10% 가입자는 DC·IRP 적립금의 평균 84%를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했고, 이에 따라 적립금 증가분의 67%가 운용수익에서 발생했다.** 반면 **하위 10% 가입자는 적립금의 74%를 원리금보장형 중심으로 운용했으며, 적립금 증가는 대부분 운용수익이 아닌 추가 납입금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10% 가입자의 연간 수익률 0.5%는 같은 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2.1%에도 미치지 못한다. 명목상 적립금은 늘었더라도 실질 구매력 측면에서는 오히려 감소한 셈이다. **결국 장기간 방치된 연금자산은 원금손실 위험을 피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질가치 하락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2025년 퇴직연금 수익률 상위 10%의 자산구성

운용방법		전체		은행		증권		보험	
		DC	IRP	DC	IRP	DC	IRP	DC	IRP
원리금 보장형	예적금 등	7.1	5.1	10.4	6.4	3.0	3.3	0.9	1.9
	보험 등	4.1	2.0	1.1	1.3	0.9	0.7	21.6	19.4
	대기성자금	6.5	5.7	6.4	4.7	7.8	7.5	4.8	5.0
	정부보증채 등	0.3	0.5	0.2	0.3	0.8	0.8	0.1	0.7
	소계	18.1	13.3	18.2	12.8	12.5	12.3	27.5	27.0
실적배당형	집합투자증권	80.3	85.3	81.8	87.2	86.6	86.7	63.1	54.2
	회사채 등	1.7	1.3	0.0	0.0	0.9	1.0	9.4	18.8
	소계	81.9	86.7	81.8	87.2	87.5	87.7	72.5	73.0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좌 유지기간 1년 이상, 25년말 적립금이 900만원 이상 계좌 중 수익률 상위 1~10%의 평균치

자료: 고용노동부, 통계청, 키움증권 리서치

다만, 2025년의 높은 실적배당형 수익률을 그대로 장기 기대수익률로 해석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2025년은 코스피가 75.6% 상승하는 등 위험자산에 이례적으로 우호적인 시장환경이 조성됐던 해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6년에도 주식시장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6월에는 코스피가 하루 8% 이상 급락하며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높은 변동성도 동시에 나타났다.

연금투자의 핵심은 단기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위험자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 투자기간과 위험감내 수준에 맞춰 체계적으로 배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다. 특히 퇴직연금의 중심축이 DB에서 DC·IRP로 이동할수록 노후자산의 최종 성과를 결정하는 주체 역시 기업에서 개인으로 이동하게 된다. 결국 앞으로의 수익률 격차는 단순한 소득이나 납입액의 차이뿐 아니라, 연금자산을 어떻게 배분하고 어떤 상품으로 얼마나 장기간 운용했는가에 따라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자에게 체계적인 연금 투자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노후자산의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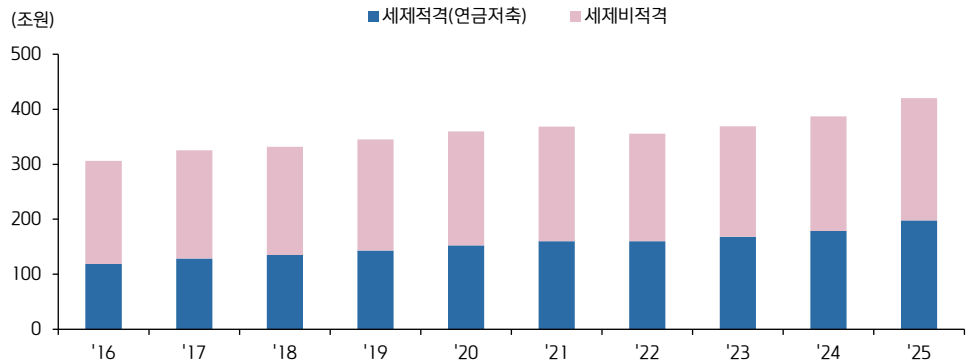
>>> 개인연금 시장 변화

‘연금저축펀드’의 부상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개인연금*’도 성장세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 참고로, 본 자료에서는 개인연금 안에서도 세제적격에 해당되는 ‘**연금저축**’ 상품, 그 중에서도 ‘**연금저축펀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연금계좌**’는 퇴직연금 IRP와 연금저축펀드를 통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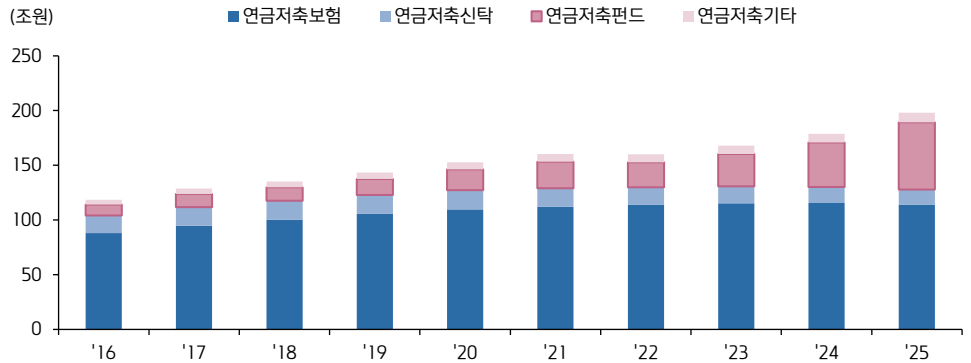
*개인연금에서 세제비적격 상품은 주로 ‘보험사’의 연금 상품에 해당하며, 세제적격 상품은 취급 기관별로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연금저축펀드(증권사)으로 나뉜다. 세제적격의 연금저축은 **연금저축펀드**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두드러짐

국내 개인연금 적립금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키움증권 리서치

연금저축(세제적격) 유형별 적립금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키움증권 리서치

연금저축보험 vs. 연금저축펀드

구분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주요 판매사	보험사	증권사, 은행
납입방식	정기납입	자유적립식
적용금리	공시이율	실적배당
원금보장	보장	비보장
예금자 보호	보호	비보호
연금수령방식	확정기간형, 종신형	확정기간형

주)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 신규 판매 중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키움증권 리서치

연금저축(Pension Savings Account)은 개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장기 저축·투자계좌다.

2025년 말 연금저축 전체 적립금은 198.2조원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하며 2023년 이후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입자 수도 총 840.3만명으로 전년대비 10% 증가했는데, 연령대 별로 40~50대 비중(50.5%)이 가장 높았고, 증가율은 20세 미만 가입자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적립금뿐 아니라 납입액, 계약건수, 가입자도 증가하는 등 노후준비에 연금저축을 적극 활용하려는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연금저축 총 적립액의 증가보다 **연금저축펀드로의 자금 이동**이다. 2025년 연금저축펀드 적립금은 61.3조원으로 전년대비 50.7% 증가한 반면,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신탁의 적립금은 감소했다. 연금저축펀드는 증시호황에 따라 신규계약 및 계좌이체(수관)가 증가하는 등 계약건수가 증가하면서 적립금이 크게 증가했다. 연금저축 내에서도 전통적인 저축·보험형 상품에서 **펀드·ETF를 활용한 투자형 상품으로 자금 이동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금저축펀드 비중(%): ('23년) 17.6 → ('24년) 22.7(+5.1%p) → ('25년) 30.9(+8.2%p)

상품별 수익률도 연금저축펀드가 가장 높다. 2025년 연금저축 상품의 연간수익률은 10.6%로 전년대비 크게 상승했는데, 그 중 연금저축펀드 수익률이 29.3%를 기록(펀드 31.3%, ETF 27.4%)했다. 이는 연금저축보험의 0.8%, 연금저축신탁의 4.0%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연금저축 상품별 수익률

구분	보험	펀드/ETF		신탁	전체	
		펀드	ETF			
연간수익률(%)	0.8	29.3	31.3	27.4	4.0	10.6
누적수익률(%)	0.8	14.3	8.1	19.9	3.3	5.5

주) 연금저축상품('01년 이후 판매) 수익률을 적립금 기준으로 가중평균
자료: 통합연금포털, 키움증권 리서치

연금저축펀드(이하 연금저축)도 IRP와 같이 투자하는 동안 '과세이연'되어 매매차익 및 분배금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이후 연금을 인출할 때에도 '저율과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연령·소득과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다. 그 중 세액공제 혜택(연말정산 시 환급)은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IRP와 합산 시 최대 900만원까지 적용되며 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3.2~16.5%가 차등 적용된다.

운용기간 중에는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며, 일반적으로 가입 후 5년이 경과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3.3~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 다만, 가입 후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및 운용수익을 중도인출할 경우(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 사유 제외)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되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는 등 패널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만큼 운용성과에 따른 수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손실(원금 비보장)이 발생할 수 있다.

IRP vs. 연금저축

	IRP (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저축펀드
구분	이직 또는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적립하거나, 본인 부담으로 추가 납입한 자금을 연금화 할 수 있는 상품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 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
가입 대상	소득이 있는 자 또는 퇴직(일시)금 수령자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가능)	국내 거주자 누구나 (단, 세액공제 혜택은 소득이 있는 거주자 한정)
납입한도	연간 총 1,800만원 - 모든 금융기관 합산 한도 기준 - IRP 가입자 추가 납입분 합산, ISA 만기자금 별도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최대 900만원	연간 최대 600만원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16.5%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3.2%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연금수령 조건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5년 이상	
연금수령	퇴직급여: 퇴직소득세율의 70% (11년차 이후 60%) 운용수익 및 세액공제 받고 저축한 부담금: 5.5~3.3%	
연금 외 수령	퇴직급여: 퇴직소득세 운용수익 및 세액공제 받고 저축한 부담금: 16.5%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부담금: 비과세	
중도인출	55세 이전까지 부분 인출 사실상 어려움 단, 법에서 정한 중대 사유에 한해서 가능	
	가입자 필요 시 가능 *단 중도해지 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음	
수수료	매매수수료 X	매매수수료 O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

>>> 제 3의 절세계좌, ISA

‘중개형 ISA’ 중심으로 성장 중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펀드 외 **ISA도** 국내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계좌**로 활용도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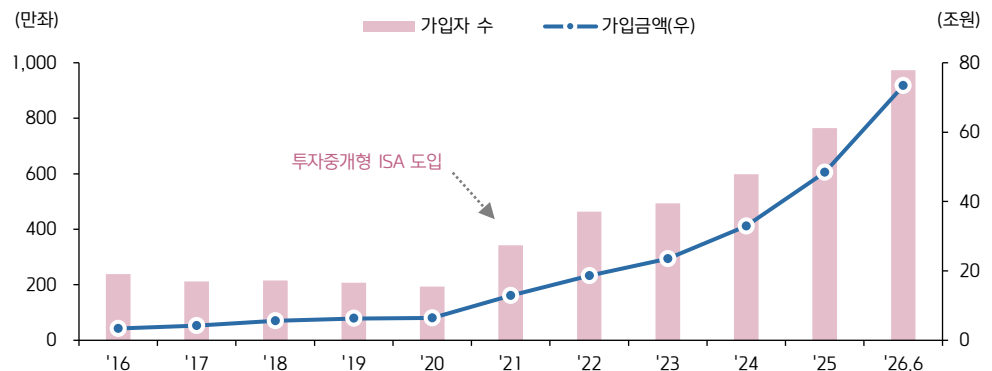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중산층·청년층의 자발적 투자 확대, 가계의 건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3월 도입되었다. 이후 2021년 2월 가입자가 직접 주식·ETF 등을 거래할 수 있는 ‘투자중개형’ ISA가 도입되면서 투자계좌로서 활용도가 크게 높아졌다.

IRP와 연금저축이 노후자금 형성을 목적으로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혜택에 초점을 둔다면, **ISA는 운용수익에 대한 절세(수익 일부에 비과세 및 저율 분리과세)와 유동성(납입 원금 인출 용이, 국내 개별주식 투자 가능)을 통해 중기 자산 형성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상품이다. 납입 단계에서는 연금계좌 같은 세액공제 혜택이 없지만, 계좌 내 여러 금융상품의 손익을 통산한 뒤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장점이 있다.

ISA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15~18세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가입 가능하다(단, 가입 또는 연장 시점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자였던 경우는 가입 제한).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이며 미사용 납입한도는 이월할 수 있다. 세제 혜택의 경우 ISA는 일반형의 경우 수익 중 200만원, 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도 9.9%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또한 의무가입 기간 3년이 지나면 해지 후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연금저축/IRP)에 이체할 수 있으며, 이때 이전금액의 10%(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ISA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 기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별도로 ISA 만기자금을 노후 자산으로 전환하도록 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다.

이 같은 장점을 바탕으로 ISA 적립금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26년 6월 말 기준 가입자 수는 970만명, 가입금액은 73조원까지 확대되었다. 불과 올해 1월 말 807만명, 54.7조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반년 만에 가입자와 자금이 모두 큰 폭 증가한 것이다.

ISA 가입자 수 및 가입금액 추이



자료: 금융투자협회, 키움증권 리서치

ISA 안에서도 성장의 중심은 투자중개형(이하 중개형)* ISA에 있다.

*가입자가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해 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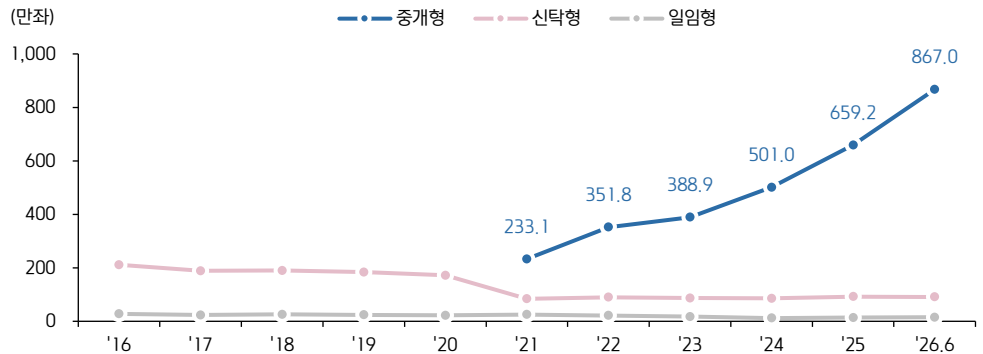
중개형 ISA에서는 국내 상장주식과 ETF 등을 직접 매매할 수 있어 개인투자자의 자산관리 계좌로 활용도가 높다. 중개형 ISA 가입자 수는 올해 6월 867만 명으로 전체 ISA 가입자의 89.1%를 차지하고 있다. 가입금액은 55.6조원으로 전체의 75.7%를 차지한다.

ISA 분류별 특징

분류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주요 특징	가입자가 직접 원하는 상품 선택하여 운용	금융사가 제시하는 상품 내에서 가입자가 구체적인 상품 운용지시	전문가에게 상품 선정, 편입/교체 등 운용 위임
취급 기관	증권사	은행, 증권사, 보험사	은행, 증권사
투자 대상	국내상장 주식, ETF/ETN, 펀드, ELS/DLS, 채권, 리츠, RP 등	ETF/ETN, 펀드, ELS/DLS, 리츠, RP, 예금 등	ETF, 펀드 등
도입 시점	2021년	2016년	2016년

자료: 금융투자협회, 키움증권 리서치

ISA 분류별 가입자 수 추이



자료: 금융투자협회, 키움증권 리서치

국내 세제혜택 계좌 비교

국내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세제혜택 계좌로는 IRP, 연금저축, ISA가 있으며, 각 계좌는 목적과 세제혜택, 자금의 유동성 측면에서 차이 지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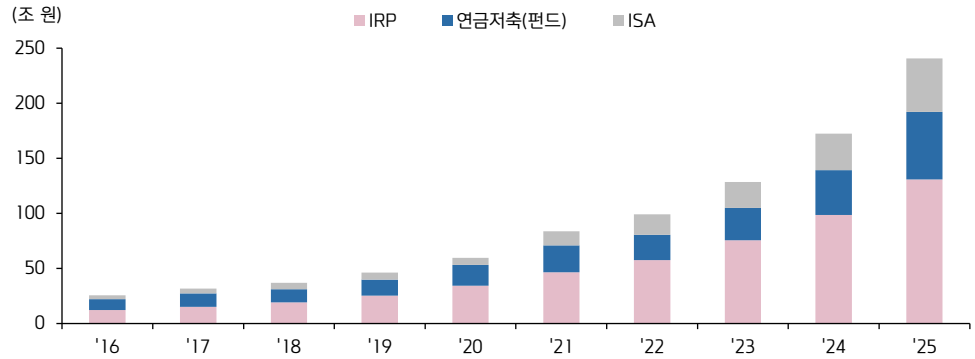
- **IRP**: 근로자의 퇴직 이후 노후소득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근로자,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자는 활용하며, 퇴직급여 수령뿐 아니라 개인의 추가 납입도 가능
- **연금저축**: 개인의 노후소득 마련을 위한 자발적 연금계좌로, 연령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가입 가능
- **ISA**: 개인의 종합적인 자산관리와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절세계좌로, 연금보다 자금 활용의 유연성이 높음

절세계좌 3종 비교

구 분	ISA	2026년 ISA 변경안 (생산적금융 ISA)	연금저축	IRP
목적	개인의 자산 증식 (중/단기 자산 형성)	국내 주식&펀드 투자 시 세제 혜택 강화	개인의 노후 보장	근로자의 노후 보장
가입 요건	만 19세 이상 (15~19세 미만 소득 있는 자)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불가	좌동 기존 ISA를 보유해도 증축(추가) 가입 가능	제한 없음	근로자,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등 소득이 있는 자
가입 기관	전 금융기관 합산 1 계좌 (은행, 증권사, 보험사) *ISA 유형별로 가입기관 다름	1인 1계좌	금융기관별 다수 개설 가능 (증권사, 보험사)	1 금융기관 1 계좌 (은행, 증권사, 보험사)
의무 가입기간	3년 이상 이후 무제한 연장 가능	3년 이상 이후 무제한 연장 가능	5년 이상	
납입 한도	연 2천만원, 총 1억원 (미사용 한도 이월 가능)	연 2천만원, 총 2억원 (미사용 한도 이월 가능)	연금저축 + IRP 합산 연 1,800만원	
중도 인출	가능 단,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워야 비과세 및 분리과세 가능 또한 연간 2천만원 납입 한도 복원 불가	가능 단,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워야 비과세 및 분리과세 가능 또한 연간 2천만원 납입 한도 복원 불가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원금)은 자유롭게 인출 가능	불가 *법적 예외조건 충족시에만 가능
투자가능 상품	국내주식, ETF/ETN, 펀드, ELS/DLS, 채권, 리츠, RP 등 *해외주식 투자 불가	국내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및 ETF, 국민성장펀드, BDC 등 국내 자산에 투자 *국내상장 해외자산 ETF 투자 불가	펀드, ETF, 리츠 *레버리지/인버스 ETF 투자 불가	1) 원리금 보장 : 예금, RP, ELB, 국고채 등 2) 실적배당 : 펀드, ETF, 리츠, ELS, 회사채 등 *레버리지/인버스, 선물 ETF(합성형 예외) 투자 불가
위험자산 투자 제한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없음 (위험자산 100% 투자 가능)	위험자산 비중 70%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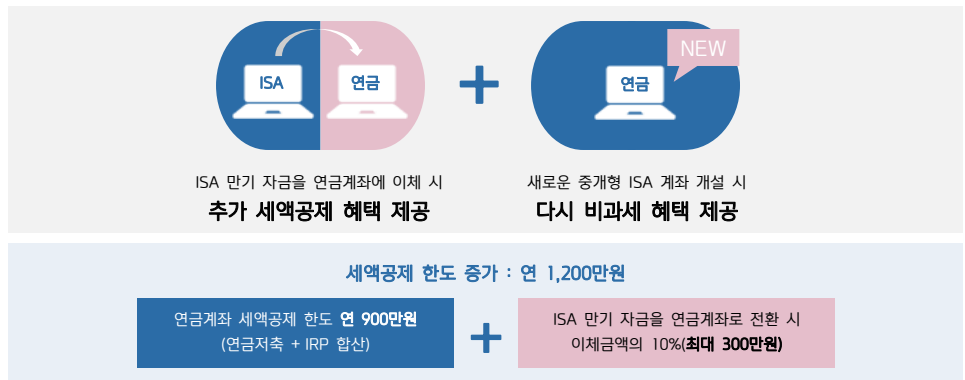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

대표 세제혜택계좌별 적립액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키움증권 리서치

중개형 ISA 만기 시 세금 혜택 극대화하는 법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

(참고) 2026년 ISA 세제개편안 팩트 체크

-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ISA 개편이 포함되었고, 입법예고(8/4~20)와 차관회의(8/27)를 거쳐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확정돼 국회에 제출됨
- 이는 국회 심의를 앞둔 정부 확정안으로 법률 최종 확정치는 아니며 통과 시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남은 절차는 정기국회 심의·의결(연말 통과 예상)
- 8월 3일 원안 대비 9월 1일 확정안에서 ISA 부분이 수정된 점에 유의. 특히 원안의 '기존 일반 ISA 5년 제한·한도이월 폐지'는 철회. **핵심 변화는 1) '생산적금융 ISA(청년형)' 신설이며, 2) 기존 일반 ISA는 규제안이 철회되어 현행 유지 방향으로 정리**

■ 어떻게 변경?

(기존 일반 ISA)

원안(8/3, 계약기간 최초 3년·총 5년으로 제한 및 연간 미사용 한도 이월 폐지)이 철회되고 **확정안(9/1)**에 따라 **계약기간·납입한도가 현행대로 유지**(연장 횟수 제한 없음 및 미사용 한도 이월 가능). 총 1억원 납입한도와 비과세 혜택도 유지

(생산적금융 ISA 신설)

성격: 국내자산 투자 전용 절세계좌.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ETF,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부(BDC) 등 국내자산에 투자 가능. 나스닥·S&P500 등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는 대상에서 제외

세제혜택: 계좌 내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농어촌특별세 포함). 기존 일반 ISA(비과세 한도 일반형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초과분 9.9% 분리과세)와 달리 한도가 없음

한도·기간: 연 2천만원, 총 2억원. 최초 의무가입 3년 이후 **계약기간 제한 없이 무제한 연장 가능**. 연간 미사용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 가능**

대상: 19세 이상 거주자 및 15세 이상 근로자, 1인 1계좌. 기존 ISA를 보유해도 중복(추가) 가입 가능.

단,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인출 제한: 가입 후 3년 내 원금을 초과해 인출하면 계좌 해지로 보아 그동안 비과세된 이자·배당에 세금이 추징됨(장기투자 유도 장치)

만기자금 연계: 일반 ISA·생산적금융 ISA·청년미래적금·청년도약계좌 만기자금을 2억원 한도 내에서 생산적금융 ISA로 일시납할 수 있고, 만기 전환금의 10%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추가한도(최대 300만원)에 합산

시행: 2027.1.1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 적용. 원안에 있던 2029년 말 가입 일몰 기한은 폐지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

대상: 만 15~34세(병역 이행 시 최대 6년까지 연령 가산), 총급여 7,500만원(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혜택: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에 더해 납입액의 10% 소득공제. 연 2천만원을 채우면 200만원 소득공제

확정안(9/1) 변경: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수정

ISA 세제개편안 정리

항목	일반 ISA (현행 유지)	생산적금융 ISA (신설)	청년형 ISA (신설)
가입대상	19 세 이상 거주자 + 15 세 이상 근로자	좌동 (1 인 1 계좌)	만 15~34 세 총 급여 7,500 만원(종합소득 6,300 만원) 이하
세제혜택	한도 내 이자·배당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농특세 포함)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납입액 10% 소득공제
비과세 한도	일반형 200 만원 서민·농어민형 400 만원	한도 없음	좌동
투자대상	예적금·국내주식·펀드 등	국내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ETF, 국민성장펀드, BDC 등 ³	좌동
납입한도	연 2,000 만원 총 1 억원	연 2,000 만원 총 2 억원	좌동
이월 여부	미사용 한도 이월 가능	좌동. 이월 가능	좌동
투자기간	의무 3 년 → 이후 무제한 연장 가능	좌동. 의무 3 년 → 이후 무제한 연장 가능	좌동

자료: 금융감독원, 키움증권 리서치

II. 왜 ETF인가?

>>> 연금과 ETF의 동반 성장

연금 시장의 성장과 궤를 함께하는 상품은 바로 ETF다. ETF는 모든 절세계좌 내 핵심 투자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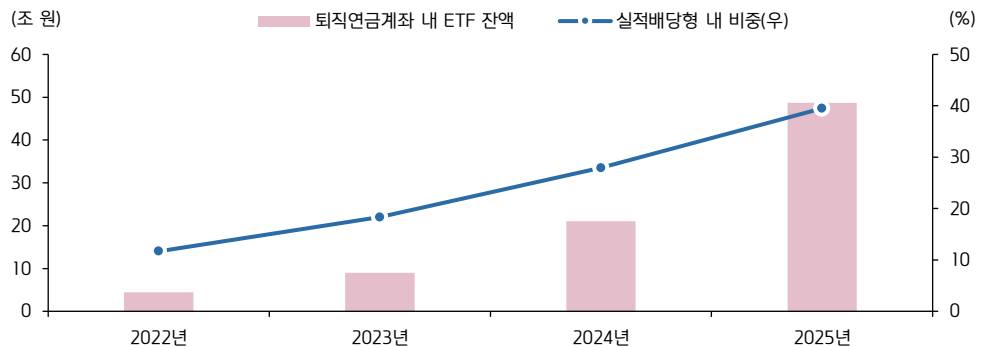
퇴직연금의 경우 운용 패러다임이 원리금보장형에서 실적배당형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ETF가 실적배당형 자산의 핵심 투자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2025년 말 퇴직연금 계좌 내 ETF 투자잔액은 48.7조원으로 전년대비 132% 증가했으며, 2023년 9.0조원 → 2024년 21.0조원 → 2025년 48.7조원으로 3년 연속 100%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실적배당형 내 상품별 투자비중으로 봐도 ETF가 일반 펀드, TDF 등을 제치고 40%를 차지해 가히 핵심 투자상품으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개인연금(연금저축)에서도 유사한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 2025년 연금저축 전체 적립금이 198.2조원까지 증가한 가운데, ETF·펀드 등을 직접 운용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의 적립금이 연간 50.7% 증가한 반면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신탁의 적립금은 지속 감소하는 추세다.

연금계좌뿐만 아니라 ISA 계좌 내에서도 ETF의 존재감이 여실히 드러난다. 2026년 6월 말 ISA 운용자산에서 ETF 투자 비중은 약 40% 수준까지 상승(1년 전 25.4% 대비 16%p 급증)한 반면, 예·적금 비중은 21.1%로 1년 전 41.1% 대비 크게 낮아졌다(올해 처음으로 ISA 내 예적금 비중이 ETF 투자 비중을 하회). 특히 중개형 ISA에서는 국내 개별주식 투자까지 허용되고 있음에도 ETF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개별 종목을 직접 선별하기보다 ETF를 통해 분산 투자하면서 동시에 ISA의 절세혜택을 활용하려는 투자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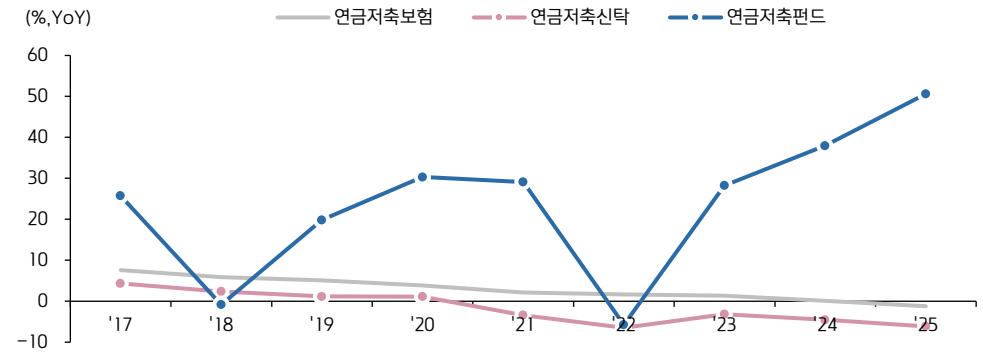
정리하자면, 퇴직연금에서는 DB → DC·IRP, 연금저축에서는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펀드, ISA에서는 신탁→중개형으로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 모두 'ETF'가 자리하고 있다.

퇴직연금계좌 ETF 잔액 및 실적배당형 내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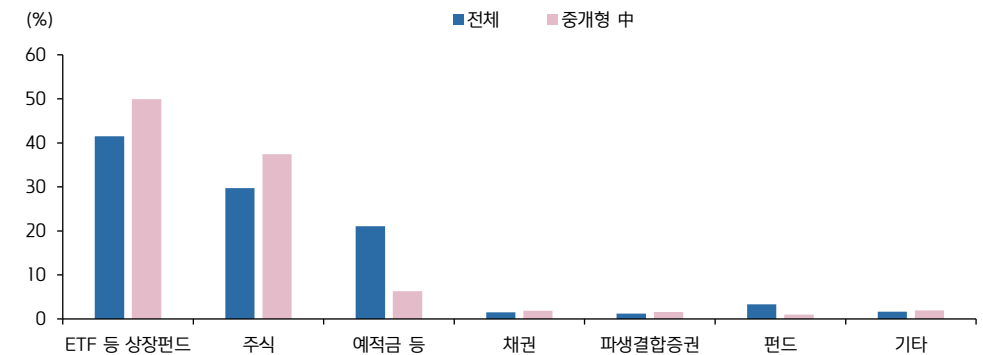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키움증권 리서치

연금저축, '연금저축펀드' 중심 적립금 성장세



자료: 금융감독원, 키움증권 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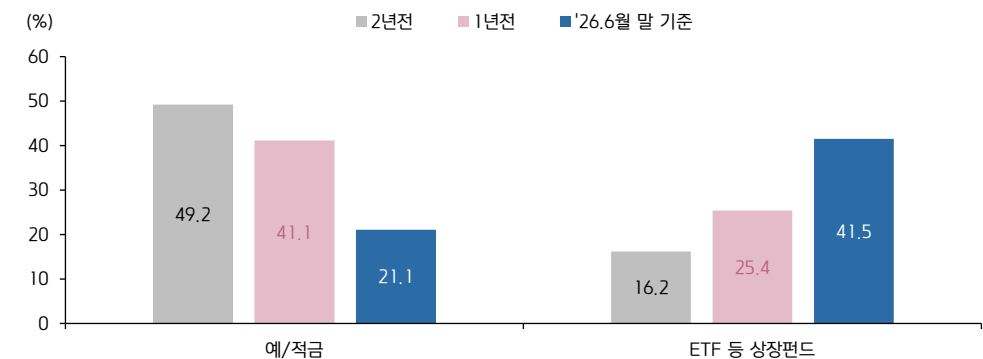
ISA 운용자산 내 금융상품별 비중 ('26.6월)



주) 운용액 기준, 기타는 기타펀드, RP, 파생형, MMF로 구성

자료: 금융투자협회, 키움증권 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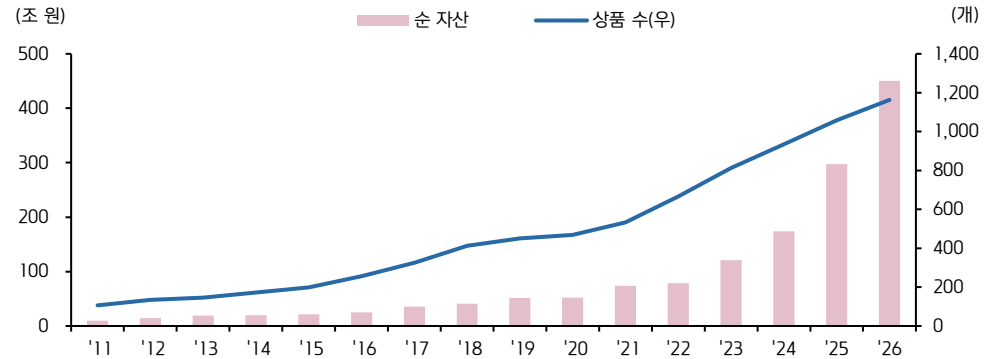
최근 3개년 간 ISA 내 예적금 vs. ETF 비중 변화



주) 운용액 기준

자료: 금융투자협회, 키움증권 리서치

국내 ETF 순자산 및 상품 수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키움증권 리서치

장기 자산관리에 ETF가 적합한 이유

연금계좌 및 ISA에서 ETF 활용이 확대되는 가장 큰 이유는 ETF가 장기 자산배분에 필요한 여러 특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낮은 비용**이다. ETF는 일반 액티브 공모펀드나 타 연금저축상품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운용보수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투자기간이 수십 년에 달하는 연금자산의 경우 작은 비용 차이도 장기간 누적되면 최종 자산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용 효율성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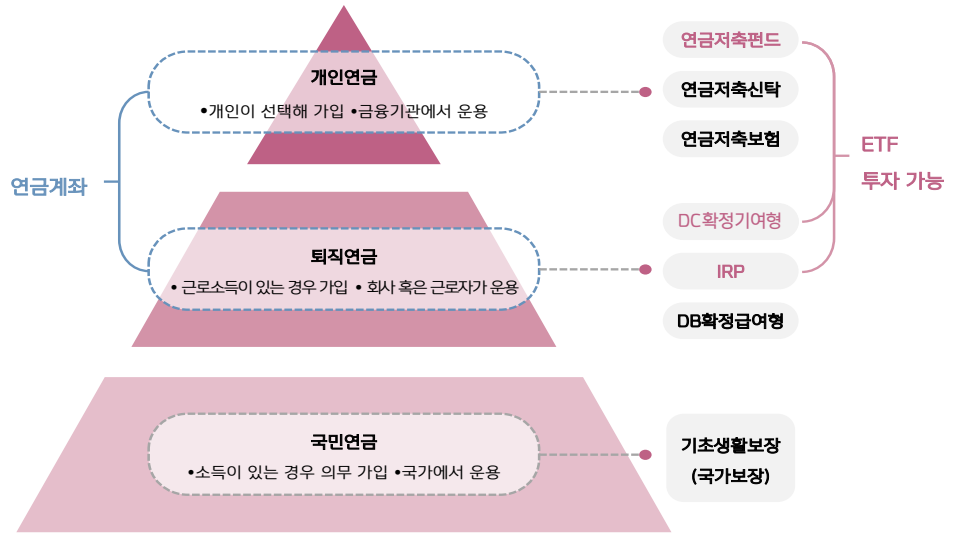
둘째로는 **분산투자의 용이성**이다. 하나의 ETF를 통해 국내외 주식뿐 아니라 채권, 원자재, 리츠 등 다양한 지역과 자산군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어 장기 연금 포트폴리오 구축에 적합하다.

셋째, **실시간 거래와 빠른 환금성**이다. ETF는 거래소에 상장돼 있어 장중 시장 가격으로 매매 가능하며 일반 주식과 동일하게 T+2 결제가 이루어진다. 다만 현재 퇴직연금의 경우 증권사에서는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지만 은행·보험에서는 실시간 매매가 제한돼 있어, 정부가 이를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은 **높은 투명성**이다. ETF 보유자산의 구성내역(PDF)을 매일 공시해 투자자가 자신의 자금이 어떤 국가·섹터·종목 등에 투자되고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일반 공모펀드에 비해 포트폴리오 확인이 용이하다는 점은 가입자가 직접 장기자산을 관리해야 하는 DC·IRP·연금저축에서 중요한 장점이다.

한편, ETF에 투자할 수 있는 범위는 계좌마다 차이가 있다. 퇴직연금 DC·IRP는 노후자산 보호를 위해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원칙적으로 70%로 제한되며 레버리지·인버스 및 일부 파생형 ETF에 투자할 수 없다. 반면 연금저축은 위험자산 비중 제한이 없어 ETF에 100% 투자할 수 있지만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편입할 수 없다. 중개형 ISA는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없고 레버리지·인버스 ETF도 투자 가능해 세 계좌 가운데 운용 자유도가 가장 높다. 다만 세 계좌 모두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ETF를 직접 매수할 수 없으며, 해외자산에 투자하려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투자 ETF를 활용해야 한다.

국내 연금 종류와 ETF 투자가능 여부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

계좌별 ETF 투자제한 사항

구 분	투자 제한
일반 종합계좌	없음 (국내외 상장된 모든 ETF 투자 가능)
ISA	해외 상장 ETF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국내 상장주식도 운용가능)
개인연금 (연금저축)	해외 상장 ETF 및 레버리지·인버스 ETF
퇴직연금 (DC/IRP)	1) 파생형(위험평가액 40% 초과) ETF (단, 합성 ETF는 투자 가능) - 레버리지/인버스 ETF, 선물형 ETF 2)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 50% 초과하여 투자하는 ETF는 적립금의 70% 까지만 투자 가능 - 국내/해외 주식형 ETF, 대체투자(리츠) ETF 3)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ETF는 적립금의 100% 투자 가능 - 채권형, 자산배분형(TDF/TRF/채권혼합형), 금리형 ETF 등 4) 최대 주식 비중이 80% 이내이며 목표 은퇴시점에는 주식비중이 40% 이내로 떨어지는 적격 TDF ETF는 적립금의 100% 투자 가능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

연금과 ETF가 만나면 달라지는 것

ETF 역시 연금·ISA 계좌에서 운용하면 계좌 유형에 따라 세액공제 및 과세이연, 손익통산, 저율과세 등의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두 계좌 모두 계좌 내 손익을 반영해 과세하는 구조이며, 연금계좌는 납입 단계의 세액공제와 연금수령 시 저율과세가, ISA는 순소득에 대한 비과세·저율 분리과세가 특징이다.

먼저 연금저축과 IRP에서는 본인 납입액에 대해 연금저축 단독 연 600만원, IRP 등을 합산해 최대 900만원까지 소득 수준에 따라 13.2~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계좌 내 매매차익(특히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및 채권형 ETF 혜택)과 분배금에 대한 과세는 인출 시점까지 이연되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수령 요건에 맞춰 인출하면 일반적으로 연령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 된다(해당 과세대상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선택).

계좌 내 손익통산도 주요 장점이다. 일반계좌에서는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채권형 ETF의 과세대상 이익과 다른 ETF에서 발생한 매매손실을 상계할 수 없다. 반면 연금계좌에서는 동일 계좌 내 여러 상품의 운용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운용수익이 인출 시 과세에 반영된다. 즉 여러 ETF에 분산투자하거나 리밸런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도 반영할 수 있어, 이익이 발생한 거래마다 과세되는 일반계좌와 차이가 있다.

다만 해외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의 외국납부세액은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 2025년부터 펀드 외국납부세액의 ‘선환급’ 제도가 폐지되면서 해외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ETF에 즉시 반영된다. 이후 제도 보완을 통해 2026년 7월부터는 연금계좌 내 해외투자 ETF에서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을 별도로 관리하고, 향후 연금 인출 시 부담해야 할 국내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해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했다. 따라서 연금계좌의 과세이연 효과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해외 배당에 대해서는 과거와 동일하게 외국세액까지 전액 재투자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연금계좌 ETF 투자 시 세액공제 혜택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최대 600만원 (IRP와 합산 시 최대 900만원)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를 포함)	16.5%	13.2%
세액공제 금액	최대 148.5만원	최대 118.8만원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

연금계좌 ETF 투자 시 과세이연 혜택

	구 분	일반계좌 인출	연금계좌 인출
해외주식형 및 기타 ETF	매매차익	과표기준가격 차이와 실제 매매차익 중 적은 값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	과세 이연
	분배금	배당소득세 15.4%	과세 이연
	인출 시		연금소득세 3.3~5.5%, 연금 외 수령 시 기타소득세 16.5%
국내 주식형 ETF	매매차익	비과세	과세 이연
	분배금	배당소득세 15.4%	과세 이연
	인출 시		연금소득세 3.3~5.5%, 연금 외 수령 시 기타소득세 16.5%

주) 연금소득세: 70세 미만 5.5%, 70~80세 4.4%, 80세 이상 3.3%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

ISA 투자에서 ETF 매매 시 혜택

국내 주식형 ETF 일반형 기준

일반 계좌에서 거래할 때	
매매차익	비과세
분배금	배당소득세 MIN(분배금, 과표증분) X 15.4%

VS

중개형 ISA 계좌에서 거래할 때	
매매차익	비과세
분배금	1) 200만원 비과세 적용 2) 손익통산 3) 분리과세 9.9% 적용 4) 과세이연

* 비과세 한도: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

그 외 ETF (해외주식, 파생, 채권, TR, 액티브 등) 일반형 기준

일반 계좌에서 거래할 때	
매매차익	보유기간 과세 MIN(매매차익, 과표증분) X 15.4%
분배금	배당소득세 MIN(분배금, 과표증분) X 15.4%

VS

중개형 ISA 계좌에서 거래할 때	
매매차익	1) 200만원 비과세 적용 2) 손익통산 3) 분리과세 9.9% 적용 4) 과세이연
분배금	

* 비과세 한도: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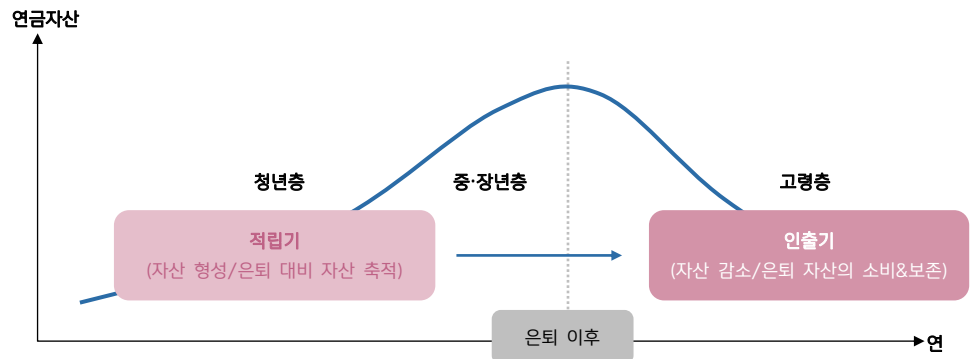
III. 생애주기 ETF 투자 전략

>>> 연금 ETF 투자 실전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내 연금 투자 패러다임은 최종 성과를 결정하는 주체가 기업에서 개인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연금 투자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노후자산의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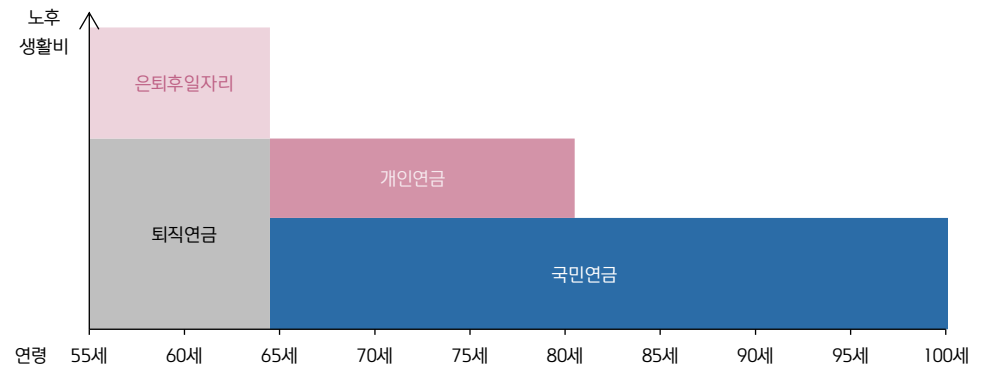
특히 연금투자는 일반투자과 달리 투자기간이 20~30년 이상에 이를 수 있고, 적립기뿐만 아니라 은퇴 이후 인출기까지 고려해야 한다. 단순히 어떤 상품을 선택할지 보다 장기간 축적되는 노후자산을 어떤 원칙에 따라 배분하고 관리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단기 시장 전망이나 특정 주도주의 성과를 따라가기 보다 장기적인 자산배분 체계 안에서 ETF를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적립기와 인출기의 연금자산 흐름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

은퇴 이후 연령대별 노후 생활비 구성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

1) 연금계좌, 따로 보지 말고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연금자산을 ETF로 운용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어떤 ETF를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계좌에서 어떤 자산을 운용할 것인가’다. 장기 자산관리에서는 연금저축·DC·IRP 각각을 별개의 포트폴리오로 관리하기보다, 여러 연금계좌에 흩어진 자산을 하나의 통합된 연금 포트폴리오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연금저축과 DC, IRP를 모두 가지고 있다면, 세 계좌 각각을 동일하게 ‘주식 60%·채권 40%’로 구성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개별 계좌의 자산배분 비중이 아니라 세 계좌를 모두 합산한 전체 연금자산이 목표로 하는 주식·채권 비중과 위험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전체 연금자산 차원에서 자산배분(Asset Allocation)을 결정하고, 이후 각 계좌의 제도적 특성에 따라 자산을 나눠 담는 자산배치(Asset Location)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연금저축에서는 성장자산 비중을 높이고 DC·IRP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자산을 더 많이 보유하더라도, 이를 합산한 전체 포트폴리오는 투자자의 목표인 ‘주식 70%·안정자산 30%’ 등의 자산배분을 구현할 수 있다.

특히 운용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고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없는 연금저축에서는 장기 성장성이 높은 주식형 ETF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배치할 수 있다. 반면 DC·IRP에서는 주식형 ETF 등 위험자산 편입이 적립금의 70%로 제한되므로, 나머지 자산은 채권형 ETF나 원리금 보장형 상품 또는 퇴직연금에서 100% 편입 가능한 채권혼합형 ETF와 적격 TDF ETF 등 자산배분형 상품을 활용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이처럼 계좌별 규제를 하나의 제약조건으로 받아들이되, 전체 연금자산 차원에서는 투자자가 원하는 위험자산 비중을 맞춰가는 것이 통합관리의 핵심이다. 연금저축·DC·IRP에 각각 S&P500 ETF와 채권 ETF를 동일 비중으로 담기보다는, 전체 연금자산을 기준으로 국가·자산군·스타일별 노출을 점검한 뒤 각 계좌의 투자한도와 상품 선택 범위에 맞춰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다.

계좌별 ETF 투자가능 상품과 제한 사항

구분	ISA (중개형)	연금저축펀드	IRP
투자가능 상품	ETF, 펀드, 국내주식 등	ETF, 펀드 등	ETF, 펀드, 예적금 등
위험자산 투자한도	없음	없음	위험자산 최대 70%
레버리지/인버스	가능	불가능	불가
선물투자 ETF	가능	가능	불가
합성형 ETF	가능	가능	가능(일부만)
상장 인프라 / 리츠	가능	가능	가능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

계좌별 ETF 투자제한 사항

구 분	투자 제한
일반 종합계좌	없음 (국내외 상장된 모든 ETF 투자 가능)
ISA	해외 상장 ETF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국내 상장주식도 운용가능)
개인연금 (연금저축)	해외 상장 ETF 및 레버리지·인버스 ETF
퇴직연금 (DC/IRP)	1) 파생형(위험평가액 40% 초과) ETF (단, 합성 ETF는 투자 가능) - 레버리지/인버스 ETF, 선물형 ETF 2)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 50% 초과하여 투자하는 ETF는 적립금의 70% 까지만 투자 가능 - 국내/해외 주식형 ETF, 대체투자(리츠) ETF 3)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ETF는 적립금의 100% 투자 가능 - 채권형, 자산배분형(TDF/TRF/채권혼합형), 금리형 ETF 등 4) 최대 주식 비중이 80% 이내이며 목표 은퇴시점에는 주식비중이 40% 이내로 떨어지는 적격 TDF ETF는 적립금의 100% 투자 가능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

(참고) 각 연금(절세)계좌별 특징

1) 연금저축: 장기 성장자산의 핵심 계좌

연금저축은 위험자산 투자한도에 제한이 없어 장기간 투자할 주식형 ETF의 활용도가 가장 높음. 은퇴까지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는 투자자라면 글로벌 대표지수 ETF 등을 Core로 활용해 장기 성장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필요에 따라 채권·배당·대체자산 ETF 등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운용 가능

2) DC·IRP: 성장과 안정성을 동시에 관리

퇴직연금 DC·IRP에서는 위험자산을 원칙적으로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 가능. 위험자산 70% + 안정자산 30% 구조를 기본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주식형 ETF로 성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나머지 자산은 채권형·원리금보장상품 등으로 구성해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방식. 다만, 여기서 30%를 반드시 예금이나 순수 채권형 상품으로만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며 퇴직연금에서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인정된 채권혼합형 ETF나 적격 TDF·TDF ETF 등 자산배분형 상품을 활용하면 보다 유연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음. 특히 적격 TDF는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70% 한도를 적용받지 않아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 가능. '26년 4월부터는 적격 TDF 인정요건도 개편돼 생애주기에 따른 위험조절뿐 아니라 글로벌 분산 등 요건이 강화됐으며, 이에 맞춰 기존 TDF ETF들도 '적격' 요건을 충족하도록 상품구조를 조정

3) ISA: 연금 이전의 중장기 자산관리 계좌

ISA는 연금계좌에 비해 자금 유동성이 높고 위험자산 투자한도도 없음. 따라서 은퇴 이전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중장기 자금이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투자자금을 운용하는 '연금 이전의 자산축적 계좌'로 활용 가능. 한편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할 경우 추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ISA에서 자산 증식 → 만기 후 연금계좌 이전 → 장기 연금화 라는 생애주기형 절세계좌 활용도 가능

2) 나이보다 중요한 것은 '은퇴까지 남은 시간'

연금 투자는 생애주기에 따라 적립부터 인출까지의 전 과정을 고려한 장기투자가 기본 전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20~30대에는 자산 축적과 장기 성장에 무게를 두고, 40~50대에는 자산 증식과 함께 위험관리를 병행하며,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변동성을 통제하면서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또한 동일한 50세라도 55세에 은퇴할 투자자와 65세 이후까지 근로할 투자자의 적정 위험자산 비중은 달라질 수 있다.

생애주기, 남은 은퇴기간을 고려한 분산 예시

구간	은퇴까지 기간	투자목표	성장자산	안정자산
적극적 축적기	20년 이상	장기 자산증식	70~90%	10~30%
균형 축적기	10~20년	성장+위험관리	60~70%	30~40%
은퇴 준비기	5~10년	변동성 축소	40~60%	40~60%
은퇴 전환기	0~5년	자산보전+현금흐름	30~50%	50~70%
연금 인출기	은퇴 이후	소득창출+자산수명 연장	20~40%	60~80%

주) 상기 비중은 투자자의 위험감내 수준과 소득·자산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며 획일적인 적정비중을 의미하지 않음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

핵심은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위험자산 비중을 점진적으로 낮추는 것이다. 연금 축적기인 2030 투자자들에게는 위험자산 비중을 너무 낮게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리스크다. 충분한 투자기간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단기 가격변동보다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감소와 장기 기대수익률 부족이 더 큰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은퇴에 가까워질수록 축적한 자산을 최대한 지키면서 노후에 사용할 자금을 확보해야 하므로, 위험자산 비중은 낮추고 대신 현금성 자산 또는 인컴 자산의 비중을 늘려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에 집중할 수 있다.

이때 목표로 하는 은퇴자산을 미리 구체화해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국가데이터처(전 통계청)가 2026년 8월 발표한 '2024년 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기초연금, 공적연금, 직역연금 등 연금을 1개라도 받고 있는 65세 이상 고령자는 912.2만명으로 약 91.2%에 달했으며, 월평균 수령액은 약 73만 7천원이었다. 5년 전 대비 약 11만원이나 증가했지만, 국민연금 연구원이 발표한 '개인 적정 노후생활비 197.6만원(부부 기준 298.1만원)'과는 아직 괴리가 크다.

부부 기준 적정생활비(월 298.1만원)로 은퇴 후 기간을 20년으로 가정하면 약 7억1,544만원, 보수적으로 30년을 가정하면 약 10억7,316만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이는 물가상승과 운용수익을 반영하지 않은 단순 합산이자 공적연금을 포함한 모든 소득원으로 충당할 총 생활비 개념이다. 따라서 실제로 사적연금·저축으로 준비해야 할 목표는 이 금액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예상 수령액을 차감한 나머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중고령자의 필요 노후생활비

		최소 노후생활비		적정 노후생활비	
구분		부부기준	개인기준	부부기준	개인기준
전체		216.6	139.2	298.1	197.6
연령대	50~54 세	234.4	147.9	321.1	209.7
	55~59 세	235.8	148.9	325.3	209.9
	60~64 세	224.7	146.2	309.9	207.9
	65~69 세	217.6	143.0	295.7	201.5
	70~74 세	195.9	129.4	270.7	182.3
	75~79 세	187.6	121.5	259.1	174.2
	80 세 이상	169.9	107.1	236.5	157.1
거주 지역	서울	242.8	161.5	329.6	222.9
	광역시	212.3	135.7	287.6	188.2
	도	210.2	133.7	292.9	193.9

자료: 제10차(2024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부가조사(2025), 키움증권 리서치

목표 은퇴자산 산출 예시

* 은퇴시점 희망생활비 부부기준 월 300만원
* 65세 은퇴, 90세 사망, 은퇴생활시간 25년 가정

노후소비 감소 미반영시	노후소비 감소 반영 시
65~90세: 100% 300만원 x 12개월 x 25년 = 9억원	65~70세: 100% 300만원 x 12개월 x 5년 = 1억 8,000만원
	70~80세: 80% 300만원 x 12개월 x 10년 x 80% = 2억 8,800만원
	80~90세: 65% 300만원 x 12개월 x 10년 x 65% = 2억 3,400만원
목표은퇴자산 총 9억원	목표은퇴자산 총 7억원(78%)

자료: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키움증권 리서치

3) 장기투자의 출발점은 ‘자산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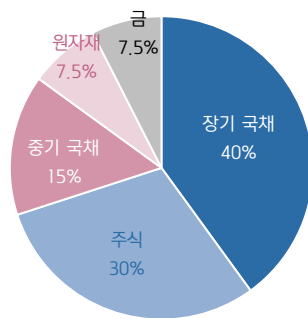
장기간에 걸친 연금투자를 꾸준히 이어가기 위해서는 변동성을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해야 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자산배분’이다. 어떤 ETF에 투자할지 고민하기에 앞서 주식·채권 등 서로 다른 자산군을 어떤 비중으로 배분할지,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어떻게 분산할지 결정해야 한다.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어 온 대표 자산배분은 주식 60%·채권 40%의 60:40 전략이다. 주식은 장기적인 자본 성장을 담당하고, 채권은 이자 수익을 제공하면서 주식시장 하락 시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60:40이라는 비율 자체가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정답은 아니며, 투자자의 연령과 은퇴까지 남은 기간, 소득 안정성, 보유자산 및 위험감내 수준 등에 따라 적정 자산배분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전통적인 60:40 포트폴리오의 분산효과에 대한 재검토도 이루어지고 있다. 2022년 인플레이션 급등과 급격한 통화긴축 과정에서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주식시장 조정기에 채권이 손실을 완충해주던 기존의 관계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과 실질금리가 높거나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면에서는 주식·채권 간 상관관계가 높아져 위험분산 효과가 감소하는 경향이 생긴다.

이에 따라 최근 자산배분에서는 채권의 듀레이션과 유형을 다양화하거나 금·원자재·인프라 등 서로 다른 위험요인을 가진 자산을 추가해 분산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Risk Parity나 All-Weather 전략이 대표적인 사례다.

올 웨더(All-Weather) 자산배분 전략 예시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

주요 연기금 자산배분 예시

국가/펀드	자산배분
한국 NPS	주식 65%, 채권 22%, 대체 14% (‘26.6 월 기준)
뉴질랜드 NZSF	주식 80%, 채권 20% (참조 포트폴리오 비중)
노르웨이 GPF	주식 72%, 채권 26%, 부동산 2% (‘26.6 월 기준)
일본 GPIF	주식 48.6%, 채권 51.4% (‘26.3 월 기준)
싱가포르 GIC	주식 56%, 채권 22%, 실물자산 22% (‘26.3 월 기준)

자료: 각사, 키움증권 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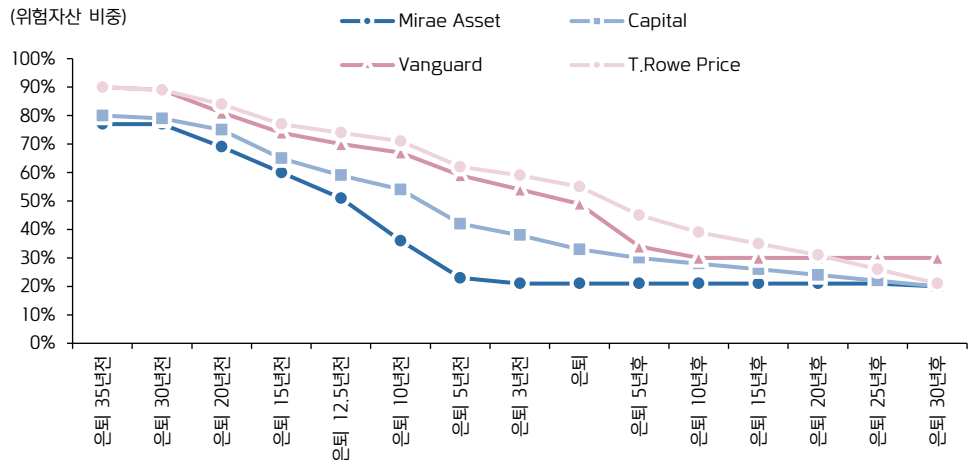
3-1) 생애주기에 따라 자산배분도 달라진다 — Glide Path

한편, 목표 자산배분을 정했다고 해서 그 비중을 지속 동일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 단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산배분을 어떻게 바꿀지 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 자산비중의 변화 경로를 글라이드패스(Glide Path)라고 한다.

예를 들어 은퇴까지 25년 이상 남아있을 때 주식 80%·채권 20%로 시작한 포트폴리오를, 은퇴 15년 전에는 70:30, 은퇴 5년 전에는 50:50, 은퇴 직전에는 30~40% 수준의 주식 비중으로 낮추는 식이다. 즉, 위험자산 비중을 특정 시점에 한꺼번에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시장의 단기 방향을 예측하는 전략이라기보다, 투자자가 감당해야 할 위험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조적으로 줄여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글라이드패스 원리를 실제 상품에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TDF(Target Date Fund)다. TDF는 예상 은퇴시점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주식·채권 등 자산배분 비중을 자동으로 조정하도록 설계된 생애주기형 상품이다. 즉, 글라이드패스가 ‘시간에 따른 자산배분의 변화 경로’라면, TDF는 이를 하나의 상품 안에 구현한 솔루션이라 할 수 있다.

주요 자산운용사 TDF 상품 글라이드패스 예시



자료: 각사, 키움증권 리서치

3-2) Core-Satellite 전략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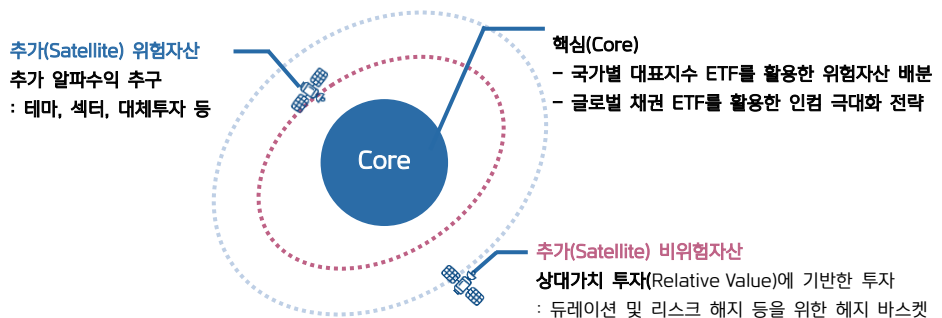
자산배분이 ‘서로 다른 자산군을 어떤 비중으로 배분할 지’,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어떻게 분산할 지’를 결정하는 과정이라면, 정해진 자산배분 틀 안에서 투자할 상품을 선택할 때는 핵심-위성(Core-Satellite) 전략을 참고해볼 수 있다. 핵심-위성(Core-Satellite) 전략은 장기간 유지할 핵심(Core) 자산을 포트폴리오의 중심에 두고, 제한된 범위에서 특정 산업·지역·스타일 등에 투자하는 위성(Satellite) 자산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연금 투자에서 Core-Satellite 전략이 유용한 이유는 장기 자산배분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추가 수익기회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자산은 광범위하게 분산된 Core에 장기 투자하고, 성장 산업·팩터·특정 국가·대체자산 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는 제한된 Satellite 영역에서 활용한다. 이를 통해 특정 테마나 시장 전망이 빛나더라도 연금자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할 수 있으며, Core는 유지한 채 Satellite만 조정할 수 있어 리밸런싱과 생애주기별 위험관리에도 유리하다.

즉, Core의 역할은 시장 전체의 장기 성장에 참여하면서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낮은 비용으로 광범위하게 분산하고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며, S&P500, MSCI World, KOSPI200 등 광범위한 주가지수 ETF와 국내외 채권 ETF, 단기채·현금성 ETF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장기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총보수, 추적오차, 유동성 등 ETF 고유의 운용 효율성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반면 Satellite는 Core가 충분히 담지 못하는 성장 기회나 시장 특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AI·반도체·바이오 등 성장산업, 배당·퀄리티·가치 등 팩터, 특정 국가·지역, 금·원자재 등 대체자산 ETF가 이에 해당한다. Satellite는 특정 시장 국면에서 Core 자산을 보완하거나, 장기적으로 유망하다고 판단하는 구조적 성장 테마에 제한적으로 노출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핵심-위성전략 예시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

핵심-위성 전략 구성 방향

전략 구분	구성 방향	ETF 예시
핵심	* 시장 대표 지수 추종 * 저비용/장기 안정성 중심 * 채권형: 단기채 중심 안정 자산	KOSPI200, S&P500, 단기채 등
위성	* 초과 수익 추구 * 테마형 주식 ETF * 특정 국가 집중 투자 * 장기채 중심 전략형	AI 반도체, 인도 Nifty50, 장기 국고채(10년, 30년), 금 등 대체자산 등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

가령 Core를 70~90%, Satellite를 10~30% 수준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기본 틀로 적용할 수 있다. 이는 위성자산의 적극적인 수익기회를 활용하면서도 특정 테마의 부진이 전체 노후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접근이다. 예를 들어 목표 자산배분이 주식 70%·채권 30%인 투자자라면,

- Core: 미국 대표지수 ETF 60% + 단기채 ETF 20%
- Satellite: AI·반도체·배당주 등 테마형 10% + 장기채 ETF 10%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즉 Core-Satellite는 자산배분을 대체하는 전략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자산배분을 ETF로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계좌에 따라 Core-Satellite의 강도를 달리하는 것도 방법이다. DC·IRP와 연금저축처럼 장기간 노후자금으로 운용할 계좌에서는 Core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이고, 중도 자금활용이 가능하고 투자범위가 넓은 ISA에서는 투자자의 위험성향에 따라 Satellite의 활용도를 높이는 식이다. 다만 ISA 역시 장기자산 형성에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계좌 특성 자체만을 이유로 과도하게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기적으로 Satellite가 Core를 압도하고 있지 않은 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정 테마나 산업은 장기간 높은 성장성을 보일 수 있지만, 동시에 높은 변동성과 밸류에이션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시장 상승기에 Satellite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면 정기 리밸런싱을 통해 당초 목표비중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

4) 자산배분이 어렵다면? TDF ETF 활용

자산배분을 직접 실행하는 것이 어렵다면 **TDF(Target Date Fund)**도 대안이 된다. TDF는 투자자의 예상 은퇴시점(Target Date)에 맞추어 안전자산의 투자비중을 자산배분곡선(Glide Path)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산배분 펀드다. 위에서 언급한 글라이드패스 원리를 실제 상품으로 구현해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초기에는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 비중을 높게 가져가다가 은퇴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채권·안전자산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투자자가 직접 여러 ETF를 선택하고 비중을 관리하기 어렵다면, TDF는 규칙에 기반한 장기 연금운용을 자동화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2025년 말 퇴직연금 내 TDF 적립금은 20.1조원까지 확대되었으며, 연간 수익률은 13.7%를 기록했다. 동 기간 디폴트옵션 전체 수익률은 3.7%였는데, 안정형 상품 비중이 85.4%에 달했던 점이 수익률 격차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TDF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다. 같은 목표연도를 가진 TDF라도 운용사별로 주식 비중, 위험감축 속도, 국내외 자산배분, 액티브·패시브 활용 정도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목표연도만 보고 선택하기보다 운용사마다의 글라이드패스 구조와 장기 자산배분 모델, 비용 등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권장된다.

한편, 몇 년 전부터는 전통적인 공모형 TDF뿐 아니라 TDF와 ETF를 결합한 **TDF ETF**도 출시되어 운용되고 있다. 올해 8월 말 총 13개가 상장되어 있으며 상품 빈티지는(TDF 이름 뒤에 붙은 숫자로 은퇴 예정연도를 의미) 2030년~ 2065까지 다양하다. 또한 현재 상장되어 있는 모든 TDF ETF들은 ‘적격 TDF’*로 인정받아 퇴직연금에서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 가능하다.

* 2026년 4월부터 개정된 퇴직연금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한도에서 예외를 적용받아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TDF에는 ‘적격 TDF’라는 명칭을 사용. 적격 TDF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목표 시점(은퇴 시점) 이전(적립기)에는 주식 등 위험자산 비중이 80% 이하로 제한. 안전자산은 적립기에 최소 20% 이상, 목표 시점 이후(인출기)에는 60% 이상 의무적으로 보유. 특정 국가나 자산으로의 쓸림을 막기 위해 단일국가 투자 비중은 80% 이내로 제한

정리하자면, 직접 투자에 익숙하지 않다면 은퇴 예상시점에 맞는 적격 TDF ETF로만 연금계좌를 구성해도 충분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또는 TDF ETF에 70%, Satellite ETF에 30%를 배분해 자산배분은 TDF에 맡기면서, 자신이 장기적으로 유망하다고 판단하는 국가 및 산업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다.

TDF 활용한 연금 자산배분 예시

투자방식	적합한 투자자
TDF 100%	투자관리에 시간을 쓰기 어려움
TDF + Satellite	기본 자산배분은 맡기되 일부 적극투자
ETF DIY	직접 자산배분·리밸런싱 가능
Core-Satellite DIY	적극적으로 관리 가능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

연령대별 추천 TDF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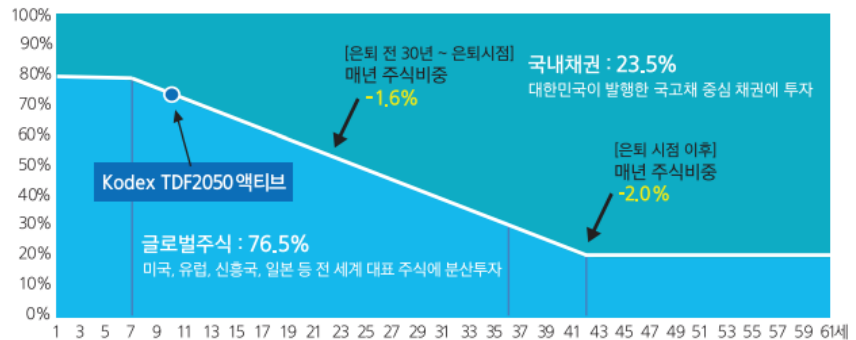
분류	추천 ETF
20~30 대 (은퇴까지 25~30 년)	Kodex TDF2065 액티브 적격, KODEX TDF2060 액티브 적격, PLUS TDF2060 액티브 적격 RISE TDF2050 액티브 적격, KODEX TDF2050 액티브 적격, KIWOOM TDF2050 액티브 적격
40 대 (은퇴까지 15~20 년)	TIGER TDF2045 적격
50 대 (은퇴까지 5~10 년)	RISE TDF2040 액티브 적격, KODEX TDF2040 액티브 적격 RISE TDF2030 액티브 적격, KODEX TDF2030 액티브 적격

주) TDF 상품명 뒤에 붙는 4자리 숫자(빈티지)는 투자자가 자금을 본격적으로 꺼내 쓰기 시작할 목표 은퇴 연도.

출생 연도 + 예상 은퇴 나이(ex. 55세, 60세, 65세)로 내게 맞는 빈티지를 선택 가능. 없다면 계산된 연도와 가장 가까운 5년 단위의 상품 선택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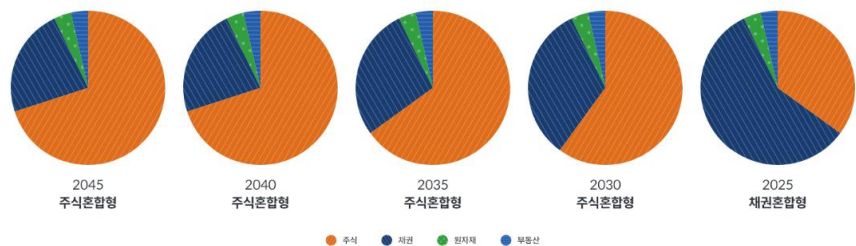
TDF 활용 예시

- ▶ 투자자의 은퇴시점을 Target Date로 하여 생애주기에 따라 자동으로 자산배분 리밸런싱 실시
: 2050년까지(은퇴시점) 매년 주식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함과 동시에 채권 비중을 확대



자료: 삼성자산운용

TDF 빈티지별 투자비중 예시



자료: 미래에셋자산운용

5) 장기투자를 완성하는 리밸런싱

연금 투자는 장기간에 걸쳐 운용되는 만큼 자산배분 못지않게 이를 꾸준히 유지하는 **리밸런싱(Rebalancing)이 중요하다**. 시장 등락이 반복되면 당초 설정한 주식·채권 비중이 달라지고, 특히 상승한 자산의 비중이 과도하게 커질 경우 포트폴리오의 위험 수준도 의도보다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리밸런싱은 시장 움직임에 따라 흐트러진 자산배분 비중을 당초 목표한 수준으로 되돌리는 과정이다. 목적은 단기 수익률을 높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위험수준을 투자자의 목표와 일치시키는 데 있다**.

다만, 시장 전망에 따라 수시로 비중을 바꾸기보다 연 1~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나 목표 비중에서 일정 수준 이상 이탈할 때 조정하는 사전 원칙을 정해두는 것이 좋다. 특히 국내 연금저축·IRP 계좌에서는 ETF 교체·매매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과세가 인출 시점까지 지연되므로, 세금 부담 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비중을 조정할 수 있다. Vanguard와 Fidelity 등 오랜 투자경험을 지닌 운용사들이 제안하는 대표적인 리밸런싱 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정기 리밸런싱(Calendar-based)

매년 또는 반기 등 미리 정한 시점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목표 비중으로 조정하는 방식. 실행이 간단하고 불필요한 시장 예측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Vanguard는 거래비용과 실행 편의성 등을 감안할 때 많은 개인투자자에게 연 1회 리밸런싱이 합리적인 기본안이 될 수 있다고 봄

② 밴드 리밸런싱(Threshold-based)

특정 자산의 실제 비중이 목표비중에서 일정 수준 이상 벗어났을 때만 조정하는 방식. 예를 들어 주식 목표비중이 60%라면 $\pm 5\%p$ 등의 허용범위를 두고, 주식 비중이 65%를 넘거나 55% 아래로 떨어졌을 때 리밸런싱을 실행. 적정 밴드는 투자자마다 다르며, $\pm 5\%p$ 는 하나의 예시일 뿐 절대적 기준은 아님. Fidelity도 목표에서 일정수준 이상 이탈할 때 조정하는 방식을 대표적인 리밸런싱 방법으로 제시

③ 혼합형(Calendar + Threshold)

연 1~2회 또는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되, 실제 매매는 목표비중에서 의미 있게 벗어난 경우에만 실행하는 방식. 시황을 매일 확인할 필요가 없고 불필요한 잦은 매매를 줄일 수 있어 활용하기에 보다 현실적인 방법

전문적으로 운용되는 TDF에서는 보다 정교한 방식이 활용되기도 한다. Vanguard는 'The Rebalancing Edge('24.12월)'에서 TDF의 자산배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다가 목표비중에서 일정 수준 이상 이탈했을 때만 거래하는 임계치 기반 리밸런싱을 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예: 목표비중에서 200bp 이탈하면, 이탈 폭을 175bp로 조정). 이는 포트폴리오를 목표 위험수준에 가깝게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거래와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식이다.

리밸런싱 방법 예시

분류	점검 주기	리밸런싱 기준	실행 원칙	유의사항
TDF 중심형	-	Glide Path 변화 확인	상품 자체 리밸런싱 활용	별도 매매 최소화
정기 리밸런싱형	연 1~2 회	목표 비중과 실제 비중 비교	정해진 날짜에 기계적으로 조정	단기 전망에 따른 변경 자체
허용범위형	분기 점검	목표 대비 $\pm 5\%p$ 이탈 시	기준 초과 자산 매도, 부족 자산 매수	과도한 매매 방지
현금흐름 활용형	추가 납입 시 또는 배당 재투자 시	목표 대비 비중이 낮은 자산 우선	신규 자금으로 우선 조정	매도 최소화 가능
생애주기형	연 1 회	은퇴까지 남은 기간	은퇴 접근 시 주식 비중 단계적 축소	목표 자산배분 자체를 조정
시장 급변 대응형	수시 점검	큰 폭의 비중 이탈 발생 시	일괄 조정보다 분할 리밸런싱	시장 방향 예측은 지양
인출기형	반가~연 1 회	향후 1~2 년 필요 현금흐름	현금-단기채 버퍼를 우선 확보	급락장에서 위험자산 매도 방지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

또한 연금계좌에서는 신규 납입금이나 생활비 인출을 활용해 자산배분을 조정할 수 있다. 별도의 교체매매를 줄이면서 목표비중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주식 60%·채권 40%를 목표로 했지만 주식 상승으로 비중이 65:35가 됐다면, 다음 연금 납입금을 채권 ETF에 우선 투자해 목표비중에 가까워지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매매를 줄이면서 자연스럽게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수 있다.

은퇴 이후에는 반대 방향의 접근도 가능하다. 생활비를 인출할 때 목표비중보다 많이 오른 자산을 우선적으로 매도하면 인출과 리밸런싱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즉 적립기에는 신규 납입금을, 인출기에는 인출 자금을 활용해 포트폴리오의 목표비중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한편, 앞서 살펴본 Glide Path와 리밸런싱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리밸런싱은 현재 설정된 목표 자산배분을 유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올해의 목표가 주식 60%·채권 40%라면 시장 변화로 65:35이 된 포트폴리오를 다시 60:40으로 되돌리는 과정이다. 반면 Glide Path는 은퇴가 가까워짐에 따라 목표 자산배분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예컨대 현재 60:40인 목표비중을 향후 50:50, 40:60으로 점진적으로 낮춰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장기 연금운용에서는 두 과정이 함께 작동한다.

- 시장 변화 → 리밸런싱으로 현재 목표비중 유지
- 시간 변화 → Glide Path에 따라 목표비중 자체를 조정하고, 이후에는 새롭게 설정된 더 보수적인 목표비중을 기준으로 리밸런싱

결국 장기 연금운용에서는 이처럼 목표비중의 변화와 시장에 따른 비중 이탈을 구분하고, 납입·인출을 활용해 사전에 정한 관리 규칙을 일관되게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6) DC·IRP의 70% 규제, ‘나머지 30%’ 활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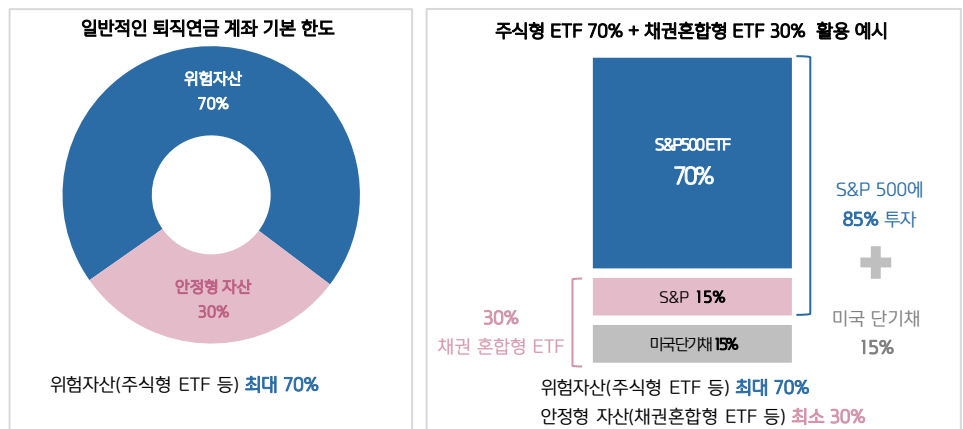
DC·IRP 계좌에서는 주식형 ETF 등 위험자산을 70%까지 편입했다면 나머지 30%는 비위험자산으로 운용해야 한다. 문제는 상당수 투자자들이 이 30%를 사실상 ‘투자하지 못하는 돈’으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퇴직연금에서 100%까지 편입 가능한 ETF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 **머니마켓·단기채·국고채 ETF**뿐만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주식·채권혼합형 ETF**와 **적격 TDF ETF**까지 활용할 수 있다.

은퇴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있고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라면 채권혼합형 ETF를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은퇴가 가까운 투자자는 단기채와 국고채 중심으로 변동성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즉, 안전자산 30%에 대한 운용전략 역시 하나의 정답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투자기간 및 위험감내 수준에 따라 위험 수준을 조절할 수 있다.

특히 2026년 국내 ETF 시장에는 주식 약 50%와 채권 약 50%를 결합한 채권혼합형 ETF가 퇴직연금 주요 투자 수단으로 부상했다. KOSPI200과 단기 국공채에 각각 50% 수준으로 투자하는 ETF,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 50%* 수준을 투자하고 나머지를 채권으로 운용하는 ETF 등이 다수 상장되어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해주고 있다. *주식 편입비중이 ‘50% 미만’인 채권혼합형까지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 편입이 가능하도록 확대, 2023.11월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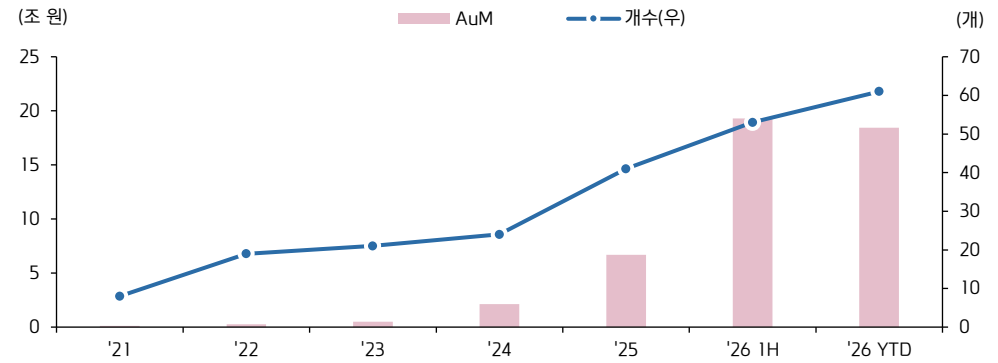
또한 이 같은 상품을 활용하면 단순한 ‘70% 주식 + 30% 예금’보다 적극적인 포트폴리오 구축도 가능하다. 가령 주식형 ETF 70% + 주식채권혼합형(주식 50%·채권 50%) ETF 30%로 구성할 경우 경제적인 주식 노출도는 85% 수준까지 높아진다. 물론, 이러한 방식은 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은퇴까지 시간이 충분한 경우에 활용하는 적극적인 자산배분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퇴직연금 30% 운용 예시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

채권혼합형 ETF 순자산 규모



자료: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

주) TDF ETF 제외, 2026년은 2026-09-06 기준

7) 은퇴 후에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젊은 투자자에게 주가 하락은 반드시 나쁜 일만은 아니다. 은퇴까지 20~30년이 남았다면 지속적인 적립을 통해 낮아진 가격에 자산을 추가 매수할 수 있고, 시장 회복을 기다릴 시간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퇴가 임박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은퇴 직후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 생활비 마련을 위해 손실이 난 자산을 매도해야 하고, 줄어든 투자원금은 이후 시장이 회복하더라도 복구하기 어렵다. 따라서,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연금 전략의 목표는 축적에서 보전·인출로 이동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연금을 '모으는 자산'으로는 적극 활용하면서도 '나눠 쓰는 자산'으로 쓰는 비중은 아직 낮다. 2025년 중 퇴직연금 수급을 시작한 60.1만계좌 가운데 83.5%(50.2만좌)가 일시금 수령을 선택했고, 연금 수령은 16.5%(9.9만좌)에 그친 것이 이를 반영한다. 그러나 연금의 목적이 평생의 노후소득 마련이라면 자산축적 못지않게 인출전략이 중요하다.

이때 흔히 '인출기에 접어들면 모든 자산을 예금·배당 등 안전한 인컴 상품으로 갈아타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은퇴 후에도 20~30년의 생활이 남아 있어, 물가상승과 장수 위험에 대응하려면 일정 수준의 성장자산을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Vanguard는 자산을 다 써버리는 '장수 위험'이 저조한 시장수익률보다 더 큰 위협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배당·이자 등 인컴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대신 자본이득까지 함께 활용하는 방법을 권하고 있다. 배당주·인컴 자산을 배제하라는 뜻이 아니라, 특정 시점의 분배금 수준에 얽매이지 말라는 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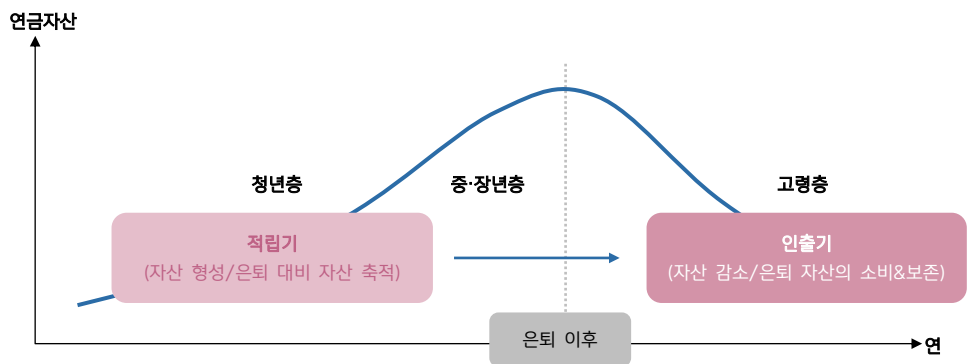
다만 인출기에는 '언제, 어떤 자산을 파느냐'가 관건이 된다. 은퇴 직후 급락장에서 성장자산을 헐값에 매도하면 수익률 순서 위험이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이를 관리하는 대표적 방법이 은퇴자산을 사용 시점에 따라 나누는 '버킷 전략(Bucket Strategy)'이다. 재무설계 전문가 Harold Evensky가 고안하고 Morningstar의 Christine Benz가 대중화한 방식으로, 당장 쓸 돈은 안전하게 확보해두고 장기자금은 성장자산에 남겨 급락기에도 강제 매도를 피하도록 설계한다.

- ① 단기자금 (0~2년): 생활비를 현금·초단기채·머니마켓 ETF 등 변동성 낮은 자산에 배분
- ② 중기자금 (약 3~7년): 채권·배당, 우량회사채 ETF 등 정기적 현금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으로 구성
- ③ 장기 (8년 이상): 향후 10년 이상 뒤 사용할 자금은 일정 비중의 글로벌 주식, 성장 자산에 지속 투자

이러한 방식은 시장 급락 시 손실이 난 성장자산을 강제로 매도해야 하는 위험을 낮춰준다. 사실 버킷 전략은 동일한 자산배분을 유지하는 리밸런싱과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으며, 그 본질적 효용은 급락기에 심리적으로 매도를 자제하게 하는 행동 장치에 가깝다. 은퇴 이후에도 일정 수준의 자산을 지속 운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운용사들도 은퇴 전 TDF뿐 아니라 은퇴 후 인컴형 자산을 활용한 TIF(Target Income Fund)*와 인출전략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타깃인컴펀드는 은퇴 후 인출기에 초점을 맞춘 솔루션으로, 노후 자산의 조기 소진을 방어하면서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현금흐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주식·채권 등 전통적인 외 부동산·인프라 같은 대체투자를 활용하기도 함

적립기와 인출기의 연금자산 흐름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

인출 단계에서의 세금 전략은?

연금자산은 어떻게, 얼마나 인출하느냐도 관건이다.

연금수령은 원칙적으로 만 55세 이상이면서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가능한데(이연된 퇴직금은 5년 요건 면제), 이때 ‘연금수령한도’ 및 ‘사적연금 1,500만원 기준’ 등을 고려해 인출 계획을 세워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는 연금 적립금이 여러 해 걸쳐 나누어 인출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연금계좌 자금 인출 순서와 과세 방식

구분	인출순서	연금 수령 시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	일시금 수령 또는 연금 외 수령 시 (연금수령한도 초과하여 인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인 납입금	①	과세 제외	
이연 퇴직소득	②	연금소득세 (전액 분리과세) 10년 차 이하: 퇴직소득세 x 70% 11년 차~20년 차: 퇴직소득세 x 60% 21년 차 이후: 퇴직소득세 x 50%*	퇴직소득세 (분류과세, 할인 없이 100%)
세액공제 받은 개인 납입금	③	연금 수령액**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소득세 5.5~3.3% (지방소득세 포함) 만 55~69세: 5.5% 만 70~79세: 4.4% 만 80세 이상: 3.3%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
운용수익		단, 연금 수령액 1,500만원 초과 시 인출액 전액에 대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16.5% 중 선택	

주) *20년 이후 구간 신설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 적용, **연금저축 및 IRP 계좌에서 받은 세전 연금액(전 금융기관 합산)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

① 연금인출 순서와 과세 규정

먼저, 연금계좌 안에는 서로 다른 세금이 적용되는 자금이 함께 존재한다. 소득 원천에 따라 크게 1)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 납입금, 2) 퇴직금에서 이전된 이연퇴직소득, 3)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금과 운용수익으로 나뉘며, 세법 상 원천별로 인출 순서가 정해져 있다.

세금 부담이 적은 순서로 인출된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1)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 납입금**이 가장 먼저, 비과세로 인출되며, 그 다음으로 2) **이연된 퇴직금 자원**, 마지막으로 3)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금과 운용수익**이다. 이 중 퇴직금 자원은 연금으로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가 감면되며, 일시에 수령하면 감면 없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받게 된다.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운용수익은 연금수령한도까지는 연금소득세(3.3~5.5%), 초과분은 기타소득세(16.5%)가 적용된다. 이 같은 순서를 정해둔 것은 원천별로 세율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가입자가 임의로 인출순서를 설계하는 것을 막고,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한 과세기준을 적용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은퇴 시점에는 계좌 안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 이연 퇴직금,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 및 운용수익이 각각 얼마씩 들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② 연금수령한도 기억하기

위에서 언급된 연금수령한도는 그 해에 세제혜택을 받으며 연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상한을 의미하며 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연금수령한도} = \text{연금계좌 평가액}^* \div (11 - \text{연금수령 연차}) \times 120\%$$

*연금 개시 해에는 연금개시 신청일 기준 연금 계좌 잔액, 개시 후에는 매년 1월 1일 기준 연금 계좌 잔액

연금수령한도가 적용되는 기간은 10년으로, 수령 연차가 11년차 이상이면 한도가 없어져 자유롭게 인출 가능하다. 또한, 연금수령한도는 연금 계좌별로 각각 계산되므로 연금저축, IRP 등 여러 계좌를 보유하면 각 계좌마다 별도의 한도가 존재하게 된다.

연금 적립금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하면 자금 성격에 따라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운용수익은 저율과세(3.3~5.5%)를, 이연퇴직소득(퇴직금)은 퇴직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는데(수령 연차별로 감면 비율 차등). 반대로 한도를 넘는 금액은 '연금 외 수령'으로 분류돼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된다. 연금을 최대한 장기간 나눠 받도록 유도하는 장치인 만큼, 수령 기간을 길게 할수록 절세 효과가 커진다.

퇴직금 재원을 예로 들면,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1~10년 차에는 일시금 수령 시 부담했을 퇴직소득세의 70%, 11~20년차는 60%, 21년차 이후는 50% 수준만 부담한다. 장기간 나눠 받을수록 퇴직소득세가 최대 50%까지 줄어드는 구조다(21년차 이후 50% 적용은 '26년 1월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 새로 적용). 반대로 한도를 초과해 인출하는 퇴직금 재원은 감면 없이 퇴직소득세를 100% 부과해야 한다.

연간 연금수령한도 산출 예시 (평가액 1억원 가정)

연간 연금수령한도	=	$\frac{\text{연금계좌 평가액(과세기간 개시일 현재)}}{(11 - \text{연금수령 연차})} \times 120\%$
연금수령연차(n)	분모(11-n)	평가액 대비 연금수령한도 비율
1년차(55세 개시)	10	12.0%
2	9	13.3%
5	6	20.0%
8	3	40.0%
10	1	120.0%
11년차 ~	-	한도 없음

주) 세법상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1년차로 보며, 실제 수령 여부와는 상관없이 매년 1년씩 증가
계좌별로 각각 산정되므로, 연금계좌를 2개 이상 보유한 경우 계좌마다 독립적인 연차가 적용됨
연금계좌(OC형 퇴직연금제도 포함) 가입시점이 2013년 3월 1일 이전인 경우 1년차 아닌 6년차부터 시작함
자료: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키움증권 리서치

③ '연 1,500만원' 기준은 연금수령한도와 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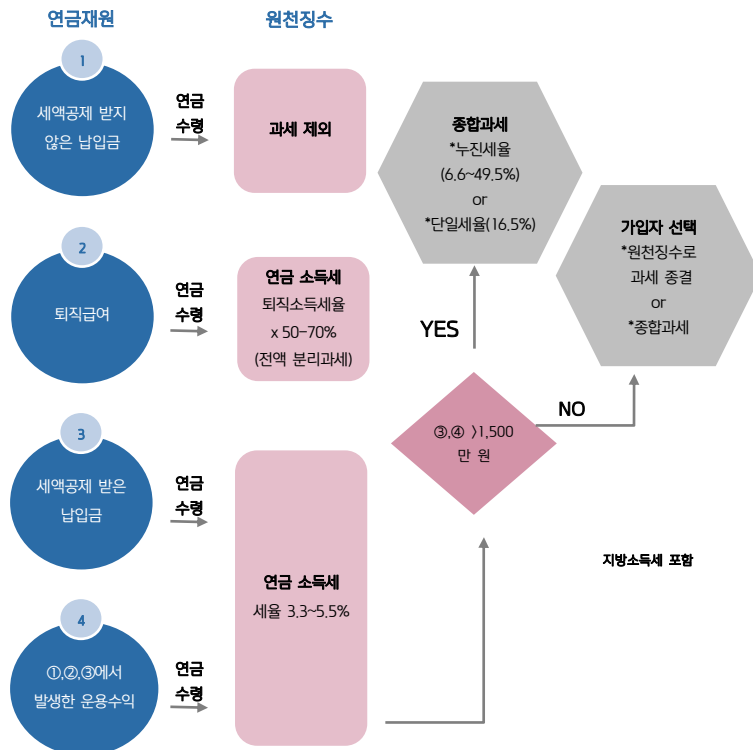
연금수령한도와 함께 확인해야 하는 것이 **사적연금소득 연 1,500만원 기준**이다.

연금수령한도가 각 계좌 인출액을 세법상 '연금수령'으로 인정할지 판단하는 기준이라면, 연간 1,500만원 기준은 사적연금소득 가운데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어떤 세율을 매길지 정하는 기준이다. 연금수령한도는 계좌별로 산정되는 반면, 1,500만원 기준은 해당 개인이 보유한 모든 연금계좌의 과세대상 사적연금소득을 합산해 판단한다.

과세대상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 이하이면 저율 분리과세가 가능해지는데 나이에 따라 5.5~3.3%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1,500만원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해당 연도 인출액 전체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16.5%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소득이 없거나 적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다.

또한 1,500만원 기준에는 IRP로 받은 퇴직금 재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연 퇴직금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퇴직소득 과세체계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즉, 연 1,500만원은 연금계좌 인출 한도가 아닌, 과세대상 사적연금소득의 세금 처리방식이 달라지는 기준선이라 할 수 있다.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과세 절차



연금수령한도 vs. 사적연금 1,500만원 기준

구분	연금수령한도	사적연금소득 연 1,500만원 기준
목적	연금수령으로 인정되는 인출액의 상한 설정	연금수령으로 인정되는 인출액의 일부에 대한 과세방식 결정
대상 금액	연금계좌 적립금 모두 대상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만 적용
적용 단위	각 계좌별 독립 계산	개인의 전 사적연금계좌 합산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	제외	제외
퇴직급여 재원	적용	제외
세액공제받은 납입금 + 운용수익	적용	적용
적용 기간	연금 개시 후 10년 차까지 적용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지속
기준 초과 시 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100%, 세액공제분·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16.5%) 부과	해당 인출액 전액에 대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 중 선택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

사적연금 1,500만원 이하 수령 시 저율과세 예시 (1,500만원 수령 가정)

수령 구분	적용세율	연간 세금
만 70세 미만	5.5%	$1,500 \times 5.5\% = 825,000$ 원
만 70세 이상~80세 미만	4.4%	660,000 원
만 80세 이상	3.3%	495,000 원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

사적연금 1,500만원 초과 수령 시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선택 예시 (종합소득금액 연 5,000만원 - 사적연금 1,600만원 포함 가정)

(단위: 만원)

총 연금액	종합과세						분리과세
	연금소득공제*	연금소득금액	6.6%	16.5%	26.4%	38.5%	16.5%
1,600	650	1,600-650 = 950	63	5,000	8,800	15,000	264

*연금소득공제 650만원 = 630만원 + (200 x 10%)

총 연금액	연금소득 공제* (900만원 한도)
350만원 이하	총 연금액 전액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 초과액의 40%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 초과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 초과액의 10%

과세표준별 종합소득세 산식	
1,400만원 이하	$(1,600 - 650) \times 6.6\% = 63$ 만원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600 - 650) \times 16.5\% = 157$ 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1,600 - 650) \times 26.4\% = 251$ 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1,600 - 650) \times 38.5\% = 366$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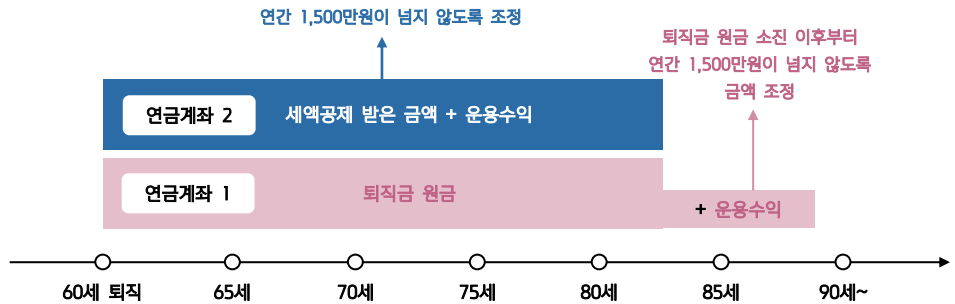
자료: 삼성자산운용, 키움증권 리서치

정리하면, 연금 인출전략의 기본은 '가능한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인출하면서, 과세대상 사적연금소득이 특정 연도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특히 여러 계좌를 보유했다면 모든 계좌에서 동시에 같은 비율로 인출할 필요가 없다. 예컨대 퇴직금+운용수익 계좌(1번)와 세액공제 받은 개인 납입금+운용수익 계좌(2번)를 분리하면 종합과세 대상 금액을 분산할 수 있다.

2번 계좌는 연간 인출액을 1,500만원에 맞추고 추가 필요분은 1번에서 인출하는 식이다. 퇴직금 원금 소진 후 남은 운용수익에도 저율과세가 적용되므로 1번 계좌도 연 1,500만원 이내 수령이 유리하다. 한편 인출을 시작한 계좌는 추가 납입이 불가하므로, 계속 투자하려면 계좌를 미리 여러 개로 나눠두는 것이 좋다.

종합과세를 고려한 연금 수령 전략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

2026년 퇴직소득세 (예상 세액 및 실효세율)

퇴직금 근속연수	1 억원	2 억원	3 억원	5 억원	10 억원
5 년	1,036 만원 (10.36%)	3,571 만원 (17.85%)	6,392 만원 (21.31%)	1 억 2,319 만원 (24.64%)	2 억 8,029 만원 (28.03%)
10 년	426 만원 (4.26%)	1,966 만원 (9.83%)	4,289 만원 (14.30%)	9,781 만원 (19.56%)	2 억 4,487 만원 (24.49%)
15 년	239 만원 (2.39%)	1,162 만원 (5.81%)	2,844 만원 (9.48%)	7,656 만원 (15.31%)	2 억 1,678 만원 (21.68%)
20 년	123 만원 (1.23%)	773 만원 (3.86%)	1,984 만원 (6.61%)	5,838 만원 (11.68%)	1 억 9,276 만원 (19.28%)
25 년	75 만원 (0.75%)	558 만원 (2.79%)	1,361 만원 (4.54%)	4,545 만원 (9.09%)	1 억 7,039 만원 (17.04%)
30 년	26 만원 (0.26%)	380 만원 (1.90%)	1,085 만원 (3.62%)	3,557 만원 (7.11%)	1 억 4,904 만원 (14.90%)

주1) 2026년 퇴직 가정(지방소득세 10% 반영), 연금수령에 따른 세액 경감은 미적용

주2) 본 일람표는 단순 실효세율을 비교하기 위해 만든 자료로 세법개정 등에 따라 세율은 변경될 수 있음

자료: 국세청, 키움증권 리서치

퇴직금 수령 예시 (퇴직금 3억원 / 퇴직소득세율 10% 가정)

구분	일시금 수령 시	10 년 동안 연금 수령 시	20 년 동안 연금 수령 시	30 년 동안 연금 수령 시
퇴직금 총액	3 억원	3 억원 (연간 3,000 만원)	3 억원 (연간 1,500 만원)	3 억원 (연간 1,000 만원)
세금 총액	퇴직소득세 3,000 만원 (즉시 납부)	연금소득세 총 2,100 만원 (10 년에 걸쳐 납부)	연금소득세 총 1,950 만원 (20 년에 걸쳐 납부)	연금소득세 총 1,800 만원 (30 년에 걸쳐 납부)
세금 산식	3 억원 x 10% = 3,000 만원	210 만원 x 10 년 = 2,100 만원 (3,000 만원 x 7% = 210 만원)	1,050 만원 + 900 만원 (~10 년차 105 만원 x 10 년 + 11~20 년차 90 만원 x 10 년)	700 만원 + 600 만원 + 500 만원 (1~10 년차 70 만원 x 10 년 + 11~20 년차 60 만원 x 10 년 + 21~30 년차 50 만원 x 10 년)
세후 수령액	2 억 7,000 만원	2 억 7,900 만원	2 억 8,050 만원	2 억 8,200 만원
절세 금액		900 만원 절세	1,050 만원 절세	1,200 만원 절세

자료: 삼성자산운용, 키움증권 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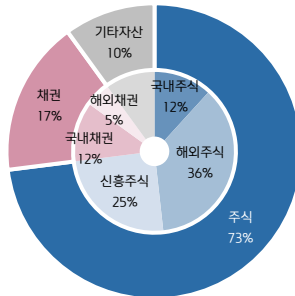
>>> 연금 ETF 포트폴리오 소개

[Case 1] 30세 / 사회 초년생 / 은퇴까지 25년+

- 목표: 장기 복리효과 극대화
- 포트폴리오: 국내·글로벌 주식 70%, 안전자산 10~30%, 금 등 기타자산 ~10%
- 운용 Rule: 월 적립식 + 연 1회 리밸런싱. 시장 급락 시에도 투자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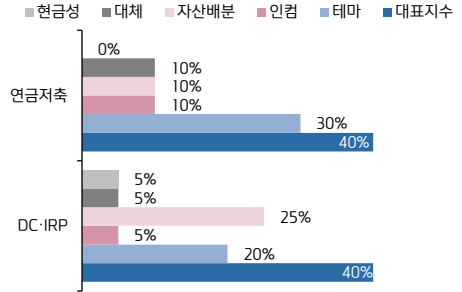
은퇴까지 25~30년 이상 남아있는 투자자는 단기 가격 변동보다 장기 성장률이 중요. 장기 핵심 포트폴리오는 시장 전체에 분산하고 테마 투자는 제한된 Satellite 비중에서 활용하는 것을 추천(성장자산 비중을 높인다고 해서 특정 국가나 AI·로봇·원전 등 일부 테마/산업에만 집중하는 것은 지양). 동시에 꾸준한 장기 적립식 투자가 필요하며, 직접적인 자산배분이 어려울 경우 TDF ETF가운데 2050~2065 등 빈티지가 높은 상품 활용

연금성장기 자산배분(Asset Allocation)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

연금계좌 별 자산배치(Asset Location)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

ETF 추천 리스트 (예시)

분류	연금저축	DC·IRP	ETF 리스트	운용규모 (억원)	총보수 (%)	DC·IRP 비중 한도	월배당 유무 / 지급기준일
대표지수	40%	40%	KODEX MSCI Korea TR	24,390.5	0.090	70%	X
			KIWOOM 미국 S&P500 모멘텀	1,000.0	0.120	70%	X
			TIME 미국나스닥 100 액티브	24,757.9	0.800	70%	X
테마	30%	20%	ACE K 수출핵심 TOP10 산업액티브	74.6	0.500	70%	X
			TIGER 글로벌 AI 액티브	5,524.7	0.790	70%	X
			PLUS 글로벌 HBM 반도체	17,485.5	0.500	70%	X
			RISE AI 전력인프라	6,560.9	0.200	70%	X
			KODEX 미국 AI 전력핵심인프라	14,985.9	0.450	70%	X
			RISE 미국AI밸류체인TOP3Plus	800.9	0.010	70%	X
인컴	10%	5%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42,062.2	0.010	70%	월말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 TOP10	8,420.2	0.300	70%	월말
자산배분	10%	25%	RISE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채권혼합 50	42,057.0	0.010	100%	X
			ACE 미국 S&P500 미국채혼합 50 액티브	12,051.0	0.150	100%	X
			TIGER 미국나스닥 100 채권혼합	4,968.6	0.250	100%	X
			KODEX TDF2060 액티브 적격	1,838.0	0.300	100%	X
대체	10%	5%	ACE KRX 금현물	39,766.1	0.190	70%	X
현금성	-	5%	SOL 초단기채권액티브	10,154.8	0.050	100%	X
			1Q 머니마켓액티브	9,649.6	0.050	100%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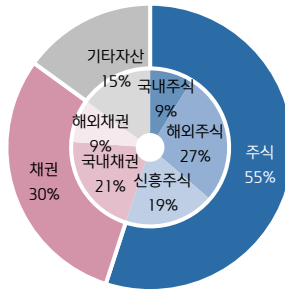
주) 2026-09-09 기준, 개인연금에서는 100% 가능. 현 시점에서의 참고 예시로 주요 테마/국면 전환시 추천 대상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KRX, 키움증권 리서치

[Case 2] 45세 / 자산 형성기 / 연금저축 + IRP 동시 보유

- 목표: 자금 성장과 위험 관리 병행
- 포트폴리오: 국내·글로벌 주식 50~60%, 안전자산 20~30%, 금 등 기타자산 10%, 현금성 5%
- 운용 Rule: 월 적립식 지속 + 연 1회 리밸런싱 + 글라이드패스에 따라 목표 주식비율을 단계적으로 하향. 추가 납입금은 비중 낮아진 자산에 우선 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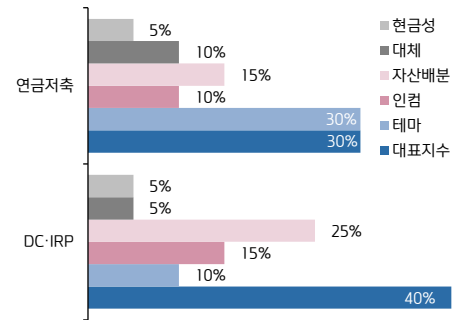
소득과 적립 여력이 정점에 다가가는 시기로, 성장 자산을 상당 부분 유지하되 은퇴가 다가올수록 목표비중 자체를 보수화하는 글라이드패스를 병행. 시장 하락 시 회복에 쓸 수 있는 시간이 2030세대보다 짧으므로 이 구간부터 변동성 관리를 시작해야 함. 테마·집중 투자는 여전히 제한된 Satellite 비중 내 활용하고, 리밸런싱은 오른 자산을 덜어 목표 위험수준을 유지하는 데 초점

연금성숙기 자산배분(Asset Allocation)



자료: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

연금액좌 별 자산배치(Asset Location)



자료: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

ETF 추천 리스트 (예시)

분류	연금저축	DC·IRP	ETF 리스트	운용규모 (억원)	총보수 (%)	DC·IRP 비중 한도	월배당 유무 / 지급기준일
대표지수	30%	40%	KODEX 200	259,990.5	0.150	70%	X
			TIGER 미국 S&P500	200,610.7	0.007	70%	X
			RISE 미국나스닥 100	15,375.5	0.006	70%	X
테마	30%	10%	HANARO Fn K-반도체	36,970.7	0.450	70%	X
			PLUS 글로벌 HBM 반도체	17,485.5	0.500	70%	X
			RISE 버크셔포트폴리오 TOP10	695.9	0.010	70%	X
			ACE 구글밸류체인액티브	2,432.9	0.450	70%	X
			RISE 미국휴머노이드로봇	1,047.3	0.400	70%	X
인컴	10%	15%	PLUS 자사주매입고배당주	791.3	0.300	70%	월중(15 일)
			TIME Korea 플러스배당액티브	8,053.8	0.800	70%	월말
			TIGER 미국캐시카우 100	217.3	0.250	70%	월말
			SOL 미국배당다우존스	10,112.7	0.010	70%	월말
자산배분	15%	25%	RISE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채권혼합 50	42,057.0	0.010	100%	X
			PLUS 고배당주채권혼합	5,985.8	0.200	100%	월말
			SOL 미국배당미국채권혼합 50	4,630.9	0.150	100%	월중(15 일)
			TIGER TDF2045 적격	7,667.6	0.190	100%	X
대체	10%	5%	ACE KRX 금현물	39,766.1	0.190	70%	X
현금성	5%	5%	KODEX 머니마켓액티브	80,112.4	0.050	100%	X
			TIGER 미국초단기(3개월이하)국채	3,581.1	0.090	100%	월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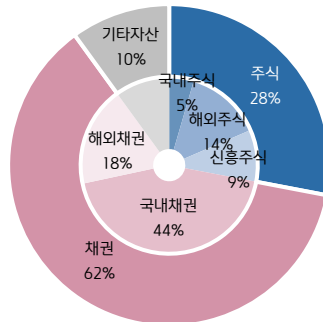
주) 2026-09-09 기준, 개인연금에서는 100% 가능. 현 시점에서의 참고 예시로 주도 테마/국면 전환시 추천 대상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KRX, 키움증권 리서치

[Case 3] 55세 / 은퇴 전후

- 목표: 안정적 현금흐름 확보 + 자산수명 연장
- 포트폴리오: 국내·글로벌 주식 30%, 인컴 40%, 자산배분 20%, 현금성 10%
- 운용 Rule: 신규 적립 축소·종료 후 인출 개시. 사용 시점별 자산을 분리하고, 인출 시 목표보다 많이 오른 자산을 우선 매도해 인출과 리밸런싱을 동시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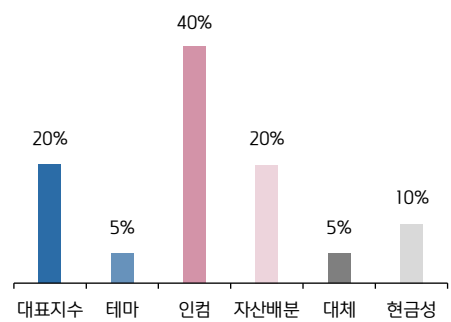
은퇴 직후의 큰 폭 하락은 자산수명에 치명적이므로(수익률 순서 위험), 1~2년치 생활비는 현금성 자산으로 미리 확보해 급락 시 성장자산을 강제 매도하는 상황에 대비. 다만 은퇴 후에도 20~30년의 간 물가 상승에 대응하려면 일정 비중의 성장자산은 계속 보유할 필요. 인출 계획은 연금수령한도와 사적연금 1,500만원 기준, 계좌 내 자금의 성격(세액공제 미수령 납입금·퇴직금·운용수익)을 함께 고려해 설계. 직접 운용이 부담될 경우 인출기에 초점을 둔 TIF(Target Income Fund)도 활용 가능

연금인출기 자산배분(Asset Allocation)



자료: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

연금계좌 자산배치(Asset Location)



자료: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

ETF 추천 리스트 (예시)

분류	연금계좌 비중	ETF 리스트	운용규모 (억원)	총보수 (%)	DC·IRP 비중 한도	월배당 유무 / 지급기준일
대표지수	20%	KODEX 200 ETF	259,990.5	0.150	70%	X
		TIGER 미국 S&P500 ETF	200,610.7	0.007	70%	X
테마	5%	RISE 버크셔포트폴리오 TOP10	695.9	0.010	70%	X
		ACE 미국빅테크TOP7Plus	10,305.9	0.300	70%	X
인컴	40%	PLUS 고배당주	24,235.6	0.230	70%	월말
		TIGER 미국캐시카우 100	217.3	0.250	70%	월말
		KODEX 200 타겟위클리커버드콜	61,176.0	0.390	70%	월중(15 일)
		RISE 코리아밸류업위클리고정커버드콜	2,791.2	0.300	70%	월중(15 일)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타겟데일리커버드콜	3,015.6	0.250	70%	월중(15 일)
		KODEX 미국배당커버드콜액티브	16,642.0	0.190	70%	월중(15 일)
자산배분	20%	PLUS 고배당주채권혼합	5,985.8	0.200	100%	월말
		KODEX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채권혼합 50	15,640.5	0.070	100%	월중(15 일)
		SOL 미국배당미국채권혼합 50	4,630.9	0.150	100%	월중(15 일)
대체	5%	ACE KRX 금현물	39,766.1	0.190	70%	X
현금성	10%	KODEX CD1 년금리플러스액티브(합성)	25,131.8	0.050	100%	월말
		SOL CD 금리&머니마켓액티브	2,859.2	0.050	100%	월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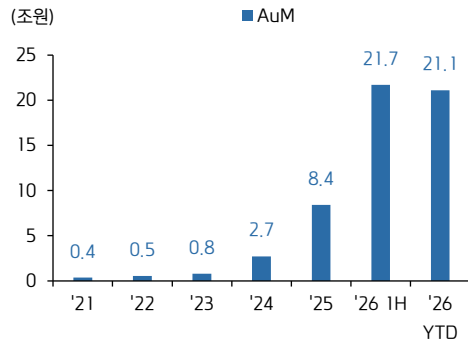
주) 2026-09-09 기준, 개인연금에서는 100% 가능. 현 시점에서의 참고 예시로 주도 테마/국면 전환시 추천 대상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KRX, 키움증권 리서치

(참고) 연금계좌에서 많이 활용되는 ETF 유형

최근 몇 년 사이 연금계좌 내 활용도가 높은 ETF 공급이 크게 늘어남

채권혼합형 ETF, TDF ETF, 월배당 ETF 등이 대표적으로 연금 시장 확장에 따라 운용사들도 경쟁력 높은 상품 다수 출시

채권혼합형 ETF 운용자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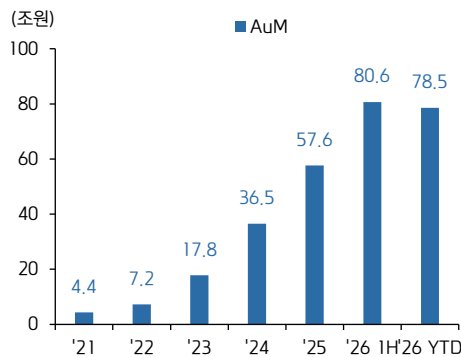
자료: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 '26 YTD는 9월 8일 기준

커버드콜 ETF 운용자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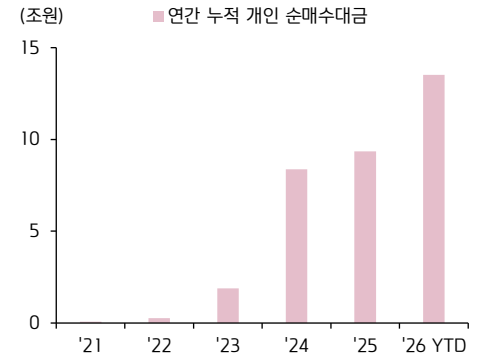
자료: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 '26 YTD는 9월 8일 기준

월배당 ETF 운용자산 추이



자료: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 '26 YTD는 9월 8일 기준

월배당 ETF 개인 순매수 추이



자료: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 '26 YTD는 9월 8일 기준

>>> 연금 계좌 ETF 라인업

국내 주식형

국내 주식형 - 시장 대표

분류	코드	ETF명	운용자산 (억원)	총보수 (%)	개인연금	퇴직연금
시장 대표	069500	KODEX 200	259,990.5	0.150	O	70%
	102110	TIGER 200	104,413.9	0.050	O	70%
	278530	KODEX 200TR	79,201.7	0.050	O	70%
	229200	KODEX 코스닥150	48,905.3	0.250	O	70%
	310970	TIGER MSCI Korea TR	46,457.7	0.120	O	70%
	148020	RISE 200	45,617.9	0.017	O	70%
	278540	KODEX MSCI Korea TR	24,390.5	0.090	O	70%
	294400	KIWOOM 200TR	18,834.9	0.012	O	70%
	105190	ACE 200	17,468.4	0.017	O	70%
	152100	PLUS 200	15,476.7	0.017	O	70%
	226490	KODEX 코스피	14,933.9	0.150	O	70%
	232080	TIGER 코스닥150	13,776.6	0.190	O	70%
	494890	KODEX 200액티브	11,120.2	0.150	O	70%
	295040	SOL 200TR	10,402.5	0.050	O	70%
	237350	KODEX 코스피100	9,943.8	0.150	O	70%
	495050	RISE 코리아밸류업	9,760.9	0.008	O	70%
	069660	KIWOOM 200	8,289.8	0.050	O	70%
	441800	TIME Korea플러스배당액티브	8,053.8	0.800	O	70%
	495850	KODEX 코리아밸류업	6,849.0	0.008	O	70%
	277630	TIGER 코스피	6,179.5	0.120	O	70%
	496080	TIGER 코리아밸류업	5,275.2	0.008	O	70%
	361580	RISE 200TR	5,130.9	0.012	O	70%
	0163Y0	KoAct 코스닥액티브	4,594.5	0.500	O	70%
	451060	IQ 200액티브	4,532.6	0.010	O	70%
	293180	HANARO 200	4,438.4	0.036	O	70%
	302450	RISE 코스피	4,129.8	0.020	O	70%
	385720	TIME 코스피액티브	4,018.2	0.800	O	70%
	310960	TIGER 200TR	3,732.5	0.090	O	70%
	270810	RISE 코스닥150	3,223.3	0.020	O	70%
	0162Y0	TIME 코스닥액티브	2,613.3	0.800	O	70%
	495230	KoAct 코리아밸류업액티브	2,519.6	0.500	O	70%
	332930	HANARO 200TR	2,133.1	0.030	O	70%
	495060	TIME 코리아밸류업액티브	2,022.3	0.800	O	70%
	495550	SOL 코리아밸류업TR	1,946.1	0.050	O	70%
	122090	PLUS 코스피50	1,903.3	0.330	O	70%
	332500	ACE 200TR	1,809.6	0.010	O	70%
	403790	MIDAS 코스피액티브	1,737.2	0.290	O	70%
	0193G0	KoAct 코스피액티브	1,617.2	0.500	O	70%
	152870	파워 200	1,583.3	0.145	O	70%
	354500	ACE 코스닥150	1,560.3	0.020	O	70%
	495330	IQ 코리아밸류업	1,403.6	0.020	O	70%
	448100	WON 200	1,325.4	0.050	O	70%
	328370	PLUS 코스피TR	1,229.1	0.150	O	70%
	332940	HANARO MSCI Korea TR	1,197.1	0.120	O	70%
	496090	KIWOOM 코리아밸류업	1,083.2	0.009	O	70%
	476850	KoAct 배당성장액티브	1,046.1	0.500	O	70%

자료: KRX,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26-09-09 기준 운용자산 1,000억원 이상

국내 주식형 - 업종 섹터 (1)

분류	코드	ETF명	운용자산 (억원)	총보수 (%)	개인연금	퇴직연금
업종 섹터	396500	TIGER 반도체TOP10	101,470.8	0.450	O	70%
	091160	KODEX 반도체	58,517.4	0.450	O	70%
	0167A0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57,306.7	0.450	O	70%
	395160	KODEX AI반도체TOP2플러스	41,612.9	0.450	O	70%
	395270	HANARO Fn K-반도체	36,970.7	0.450	O	70%
	487240	KODEX AI전력핵심설비	32,767.2	0.390	O	70%
	139260	TIGER 200 IT	27,918.1	0.400	O	70%
	305720	KODEX 2차전지산업	18,075.9	0.450	O	70%
	466920	SOL 조선TOP3플러스	15,031.6	0.450	O	70%
	091230	TIGER 반도체	14,240.1	0.460	O	70%
	469150	ACE AI반도체TOP3+	11,998.5	0.300	O	70%
	445290	KODEX 로봇액티브	10,843.5	0.500	O	70%
	455850	SOL AI반도체소부장	10,806.3	0.450	O	70%
	0117V0	TIGER 코리아AI전력기기TOP3플러스	10,443.6	0.400	O	70%
	449450	PLUS K방산	10,031.2	0.450	O	70%
	305540	TIGER 2차전지테마	9,860.6	0.440	O	70%
	364980	TIGER 2차전지TOP10	7,370.4	0.400	O	70%
	434730	HANARO 원자력iSelect	7,367.3	0.450	O	70%
	102970	KODEX 증권	6,908.1	0.450	O	70%
	367760	RISE 네트워크인프라	6,908.0	0.450	O	70%
	0091P0	TIGER 코리아원자력	6,644.2	0.500	O	70%
	0101N0	RISE AI전력인프라	6,560.9	0.200	O	70%
	0148J0	TIGER 코리아휴머노이드로봇산업	6,336.3	0.500	O	70%
	494670	TIGER 조선TOP10	5,730.6	0.350	O	70%
	462010	TIGER 2차전지소재Fn	5,520.2	0.390	O	70%
	444200	SOL 코리아메가테크액티브	5,136.8	0.550	O	70%
	463250	TIGER K방산&우주	4,969.3	0.450	O	70%
	0190C0	RISE 현대차고정피지컬AI	4,897.9	0.400	O	70%
	471990	KODEX AI반도체핵심장비	4,238.0	0.390	O	70%
	091180	KODEX 자동차	3,858.3	0.450	O	70%
	469070	RISE AI&로봇	3,724.4	0.400	O	70%
	474590	WON 반도체밸류체인액티브	3,585.3	0.310	O	70%
	462900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3,530.6	0.500	O	70%
	0210A0	ACE K반도체TOP2+	3,483.6	0.390	O	70%
	0182R0	1Q K반도체TOP2+	3,466.4	0.200	O	70%
	0080G0	KODEX 방산TOP10	3,465.2	0.450	O	70%
	0228G0	ACE 반도체Plus전략산업	3,309.5	0.400	O	70%
	0098F0	KODEX 원자력SMR	3,076.5	0.450	O	70%
	475300	SOL 반도체전공정	2,928.1	0.450	O	70%
	091170	KODEX 은행	2,917.3	0.300	O	70%
	307520	TIGER 지주회사	2,885.7	0.500	O	70%
	471780	TIGER 코리아테크액티브	2,832.1	0.770	O	70%
	228790	TIGER 화장품	2,674.0	0.500	O	70%
	139230	TIGER 200 중공업	2,656.1	0.340	O	70%
	364970	TIGER 바이오TOP10	2,587.4	0.400	O	70%

자료: KRX,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26-09-09 기준 / 운용자산 500억원 이상

국내 주식형 - 업종 섹터 (2)

분류	코드	ETF명	운용자산 (억원)	총보수 (%)	개인연금	퇴직연금
업종 섹터	421320	PLUS 우주항공	2,484.0	0.450	○	70%
	363580	KODEX 200IT TR	2,418.9	0.150	○	70%
	388420	RISE 비메모리반도체액티브	2,413.9	0.500	○	70%
	117700	KODEX 건설	2,326.7	0.450	○	70%
	433500	ACE 원자력TOP10	2,320.4	0.300	○	70%
	422420	RISE 2차전지액티브	2,305.2	0.350	○	70%
	0089D0	KODEX 금융고배당TOP10	2,263.6	0.300	○	70%
	157500	TIGER 증권	2,261.3	0.400	○	70%
	244580	KODEX 바이오	2,123.0	0.450	○	70%
	0115D0	KODEX 조선TOP10	2,025.9	0.450	○	70%
	466930	SOL 자동차TOP3플러스	2,014.3	0.450	○	70%
	463050	TIME K바이오액티브	1,999.9	0.800	○	70%
	0093A0	RISE AI반도체TOP10	1,867.9	0.200	○	70%
	461950	KODEX 2차전지핵심소재 10	1,865.8	0.390	○	70%
	0005G0	IBK K-AI반도체코어테크	1,834.8	0.280	○	70%
	494220	UNICORN SK하이닉스밸류체인액티브	1,740.4	0.500	○	70%
	0005D0	SOL 전고체배터리&실리콘음극재	1,625.3	0.450	○	70%
	491820	HANARO 전력설비투자	1,612.2	0.350	○	70%
	0151P0	RISE 코리아전력산업액티브	1,494.2	0.500	○	70%
	457990	PLUS 태양광&ESS	1,465.7	0.450	○	70%
	143860	TIGER 헬스케어	1,461.8	0.400	○	70%
	139220	TIGER 200 건설	1,430.8	0.400	○	70%
	0092B0	SOL 한국원자력SMR	1,417.1	0.450	○	70%
	471760	TIGER AI반도체핵심공정	1,332.3	0.450	○	70%
	0074K0	KoAct K수출핵심기업TOP30액티브	1,280.0	0.500	○	70%
	0168K0	TIGER 기술이전바이오액티브	1,257.0	0.500	○	70%
	377990	TIGER Fn신재생에너지	1,251.4	0.500	○	70%
	0209D0	KODEX 전고체배터리ESS TOP2플러스	1,240.3	0.500	○	70%
	367770	RISE 수소경제테마	1,200.4	0.450	○	70%
	455860	SOL 2차전지소부장Fn	1,138.4	0.450	○	70%
	266370	KODEX IT	1,130.6	0.450	○	70%
	0008T0	SOL 화장품TOP3플러스	1,070.2	0.450	○	70%
	475050	ACE KPOP포커스	1,037.5	0.300	○	70%
	0177X0	ACE K휴머노이드로봇산업TOP2+	989.4	0.450	○	70%
	454320	HANARO CAPEX설비투자iSelect	957.2	0.450	○	70%
	486240	DAISHIN AI반도체&인프라액티브	913.7	0.360	○	70%
	475310	SOL 반도체후공정	783.0	0.450	○	70%
	364960	TIGER BBIG	772.8	0.400	○	70%
	490480	SOL K방산	763.9	0.450	○	70%
	157490	TIGER 소프트웨어	761.1	0.400	○	70%
	228810	TIGER 미디어컨텐츠	743.8	0.440	○	70%
	441540	HANARO Fn조선해운	730.2	0.450	○	70%
	465330	RISE 2차전지TOP10	728.2	0.070	○	70%
	228800	TIGER 여행레저	694.6	0.500	○	70%
	266420	KODEX 헬스케어	664.0	0.090	○	70%
	140700	KODEX 보험	645.4	0.450	○	70%
	0115E0	KODEX 코리아소버린AI	630.3	0.450	○	70%
	016650	PLUS K제조업핵심기업액티브	601.0	0.630	○	70%
	0111J0	HANARO 증권고배당TOP3플러스	558.5	0.070	○	70%
	401470	KODEX 메타버스액티브	555.9	0.500	○	70%
	014150	SOL 조선기자재	551.8	0.450	○	70%
	261070	TIGER 코스닥 150바이오테크	540.7	0.400	○	70%
	445150	KODEX 친환경조선해운액티브	530.2	0.500	○	70%

자료: KRX,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26-09-09 기준 / 운용자산 500억원 이상

국내 주식형 - 기타 (커버드콜, 팩터/전략 등)

분류	코드	ETF명	운용자산 (억원)	총보수 (%)	개인연금	퇴직연금
기타	498400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61,176.0	0.390	○	70%
	102780	KODEX 삼성그룹	34,102.3	0.250	○	70%
	472150	TIGER 배당커버드콜액티브	25,761.0	0.500	○	70%
	161510	PLUS 고배당주	24,235.6	0.230	○	70%
	292150	TIGER 코리아TOP10	21,008.3	0.150	○	70%
	315930	KODEX Top5PlusTR	9,864.2	0.150	○	70%
	475720	RISE 200위클리커버드콜	8,540.8	0.300	○	70%
	0177R0	TIGER 반도체TOP10커버드콜액티브	8,442.6	0.450	○	70%
	466940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8,420.2	0.300	○	70%
	498410	KODEX 금융고배당TOP10타겟위클리커버드콜	8,196.2	0.390	○	70%
	0219E0	KODEX 200커버드콜액티브	7,891.6	0.500	○	70%
	290130	RISE ESG사회책임투자	6,962.8	0.300	○	70%
	0167B0	SOL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6,851.1	0.300	○	70%
	138540	TIGER 현대차그룹플러스	6,651.5	0.150	○	70%
	0105E0	SOL 코리아고배당	5,346.4	0.159	○	70%
	315960	RISE 대형고배당10TR	5,239.8	0.070	○	70%
	484880	SOL 금융지주플러스고배당	3,825.9	0.300	○	70%
	279530	KODEX 고배당주	3,516.7	0.300	○	70%
	385510	KODEX 신재생에너지액티브	3,472.6	0.500	○	70%
	0052D0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3,406.5	0.250	○	70%
	489030	PLUS 고배당주위클리커버드콜	2,960.7	0.300	○	불가
	0094M0	RISE 코리아밸류업위클리고정커버드콜	2,791.2	0.300	○	70%
	213610	KODEX 삼성그룹밸류	2,702.7	0.090	○	70%
	0104N0	TIGER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2,227.1	0.250	○	70%
	266160	RISE 고배당	2,147.6	0.200	○	70%
	494330	ACE 라이프자산주주가치액티브	1,833.9	0.500	○	70%
	0190G0	KODEX 반도체타겟위클리커버드콜	1,793.6	0.450	○	70%
	337160	KODEX 200ESG	1,673.2	0.090	○	70%
	138520	TIGER 삼성그룹	1,505.9	0.113	○	70%
	0153K0	KODEX 주주환원고배당주	1,470.3	0.330	○	70%
	0199C0	ACE 고배당주Plus커버드콜액티브	1,374.7	0.400	○	70%
	325010	KODEX 성장주	1,289.1	0.300	○	70%
	469170	ACE 포스코그룹포커스	1,258.9	0.300	○	70%
	0000J0	PLUS 한화그룹주	1,141.1	0.190	○	70%
	326240	RISE IT플러스	1,118.5	0.400	○	70%
	211900	KODEX 코리아배당성장	920.6	0.150	○	70%
	325020	KODEX 배당가치	918.6	0.300	○	70%
	108450	ACE 삼성그룹섹터가중	889.3	0.150	○	70%
	337140	KODEX 코스피대형주	822.9	0.150	○	70%
	138530	TIGER LG그룹플러스	822.8	0.150	○	70%
	0018C0	PLUS 고배당주위클리고정커버드콜	810.4	0.300	○	70%
	0098N0	PLUS 자사주매입고배당주	791.3	0.300	○	70%
	210780	TIGER 코스피고배당	778.6	0.240	○	70%
	0198A0	KIWOOM 코스닥150커버드콜액티브	752.1	0.630	○	70%
	0210E0	PLUS 200커버드콜액티브	716.6	0.491	○	70%
	211560	TIGER 배당성장	713.2	0.115	○	70%
	277640	TIGER 코스피대형주	657.4	0.240	○	70%
	385590	ACE ESG액티브	566.9	0.500	○	70%
	150460	TIGER 중국소비테마	560.9	0.500	○	70%
	275300	KODEX 우량주	524.2	0.300	○	70%
	360140	KODEX 200통코스닥150숏선물	507.9	0.640	○	불가
	0139P0	ACE 고배당주	502.0	0.150	○	70%

자료: KRX,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26-09-09 기준 / 운용자산 500억원 이상

해외 주식형

해외 주식형 - 시장 대표

분류	코드	ETF명	운용자산 (억원)	총보수 (%)	개인연금	퇴직연금
시장 대표	360750	TIGER 미국S&P500	200,610.7	0.007	○	70%
	133690	TIGER 미국나스닥100	114,179.8	0.007	○	70%
	379800	KODEX 미국S&P500	99,502.0	0.006	○	70%
	379810	KODEX 미국나스닥100	89,792.7	0.006	○	70%
	360200	ACE 미국S&P500	38,610.5	0.005	○	70%
	367380	ACE 미국나스닥100	33,817.7	0.006	○	70%
	426030	TIME 미국나스닥100액티브	24,757.9	0.800	○	70%
	441640	KODEX 미국배당커버드콜액티브	16,642.0	0.190	○	70%
	368590	RISE 미국나스닥100	15,375.5	0.006	○	70%
	379780	RISE 미국S&P500	14,517.1	0.005	○	70%
	449180	KODEX 미국S&P500(H)	10,320.7	0.010	○	70%
	0015B0	KoAct 미국나스닥성장기업액티브	5,843.8	0.500	○	70%
	449190	KODEX 미국나스닥100(H)	5,629.4	0.010	○	70%
	251350	KODEX MSCI선진국	4,855.9	0.300	○	70%
	448290	TIGER 미국S&P500(H)	4,613.0	0.070	○	70%
	241180	TIGER 일본니케이225	3,909.6	0.290	○	70%
	426020	TIME 미국S&P500액티브	3,892.5	0.800	○	70%
	0060H0	TIGER 토탈월드스탁액티브	3,870.8	0.250	○	70%
	448300	TIGER 미국나스닥100(H)	3,436.3	0.007	○	70%
	0144L0	KODEX 미국성장커버드콜액티브	3,357.4	0.490	○	70%
	0026S0	1Q 미국S&P500	3,309.4	0.006	○	70%
	453810	KODEX 인도Nifty50	3,259.3	0.190	○	70%
	433330	SOL 미국S&P500	2,908.8	0.050	○	70%
	453870	TIGER 인도니프티50	2,726.2	0.190	○	70%
	245710	ACE 베트남VN30(합성)	2,682.0	0.700	○	70%
	283580	KODEX 차이나CSI300	2,431.6	0.120	○	70%
	0069M0	1Q 미국나스닥100	1,841.6	0.006	○	70%
	414780	TIGER 차이나과장판STAR50(합성)	1,784.6	0.090	○	70%
	200250	KIWOOM 인도Nifty50(합성)	1,620.3	0.290	○	70%
	219480	KODEX 미국S&P500선물(H)	1,488.5	0.050	○	불가
	245340	TIGER 미국다우존스30	1,402.0	0.350	○	70%
	0041E0	KODEX 미국S&P500액티브	1,356.2	0.450	○	70%
	476030	SOL 미국나스닥100	1,298.6	0.050	○	70%
	192090	TIGER 차이나CSI300	1,236.3	0.630	○	70%
	399110	SOL 미국S&P500ESG	1,154.4	0.150	○	70%
	304940	KODEX 미국나스닥100선물(H)	1,119.3	0.050	○	불가
	488500	TIGER 미국S&P500동일가중	1,102.7	0.200	○	70%
	168580	ACE 중국본토CSI300	1,035.9	0.700	○	70%
	195980	PLUS 신흥국MSCI(합성 H)	958.2	0.500	○	70%
	269540	PLUS 미국S&P500(H)	897.4	0.006	○	70%
	449770	KIWOOM 미국S&P500	895.7	0.021	○	70%
	453080	KIWOOM 미국나스닥100(H)	891.8	0.040	○	70%
	143850	TIGER 미국S&P500선물(H)	888.2	0.230	○	불가
	444490	WON 미국S&P500	858.5	0.050	○	70%
	453330	RISE 미국S&P500(H)	834.8	0.005	○	70%
	0113D0	TIME 글로벌탐픽액티브	681.5	0.060	○	70%
	101280	KODEX 일본TOPIX100	517.4	0.190	○	70%

자료: KRX,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26-09-09 기준 / 운용자산 500억원 이상

해외 주식형 - 업종 섹터 (1)

분류	코드	ETF명	운용자산 (억원)	총보수 (%)	개인연금	퇴직연금
업종 섹터	381180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	55,856.9	0.490	O	70%
	381170	TIGER 미국테크TOP10 INDX	36,983.8	0.490	O	70%
	456600	TIME 글로벌AI인공지능액티브	20,737.2	0.800	O	70%
	442580	PLUS 글로벌HBM반도체	17,485.5	0.500	O	70%
	446770	ACE 글로벌반도체TOP4 Plus	15,788.6	0.450	O	70%
	487230	KODEX 미국AI전력핵심인프라	14,985.9	0.450	O	70%
	390390	KODEX 미국반도체	12,456.2	0.090	O	70%
	0183J0	TIGER 미국우주테크	11,258.5	0.490	O	70%
	497570	TIGER 미국필라델피아AI반도체나스닥	10,597.7	0.490	O	70%
	465580	ACE 미국빅테크TOP7 Plus	10,305.9	0.300	O	70%
	457480	ACE 테슬라밸류체인액티브	7,617.6	0.290	O	70%
	371460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	6,828.0	0.490	O	70%
	314250	KODEX 미국빅테크10(H)	6,561.4	0.450	O	70%
	491010	TIGER 글로벌AI전력인프라액티브	6,361.3	0.490	O	70%
	466950	TIGER 글로벌AI액티브	5,524.7	0.790	O	70%
	371160	TIGER 차이나항공섹터	5,301.8	0.090	O	70%
	396520	TIGER 차이나반도체FACTSET	5,209.6	0.490	O	70%
	0023A0	SOL 미국양자컴퓨팅TOP10	3,994.2	0.450	O	70%
	0173Y0	KODEX 미국AI광통신네트워크	3,882.0	0.550	O	70%
	0167Z0	KODEX 미국우주항공	3,551.8	0.550	O	70%
	0131V0	IQ 미국우주항공테크	3,529.3	0.490	O	70%
	0043Y0	TIME 차이나시테크액티브	3,372.9	0.800	O	70%
	485540	KODEX 미국시테크TOP10	3,004.4	0.300	O	70%
	483320	ACE 엔비디아밸류체인액티브	2,968.2	0.450	O	70%
	0038A0	KODEX 미국휴머노이드로봇	2,770.1	0.450	O	70%
	481190	SOL 미국테크TOP10	2,759.8	0.050	O	70%
	423170	SOL 글로벌AI반도체탑픽액티브	2,604.0	0.550	O	70%
	471040	KoAct 글로벌AI&로봇액티브	2,546.8	0.500	O	70%
	483340	ACE 구글밸류체인액티브	2,432.9	0.450	O	70%
	0053L0	TIGER 차이나휴머노이드로봇	2,426.8	0.490	O	70%
	442320	RISE 글로벌원자력	2,335.5	0.400	O	70%
	472160	TIGER 미국테크TOP10 INDX(H)	2,244.2	0.490	O	70%
	478150	TIME 글로벌우주테크&방산액티브	2,200.9	0.800	O	70%
	486450	SOL 미국AI전력인프라	2,179.1	0.450	O	70%
	498270	KIWOOM 미국양자컴퓨팅	2,082.4	0.490	O	70%
	490090	TIGER 미국시빅테크10	2,054.0	0.300	O	70%
	0204D0	KODEX 현대차로보틱스밸류체인TOP3플러스	2,048.2	0.500	O	70%
	0151S0	KODEX 미국AI반도체TOP3플러스	2,036.3	0.490	O	70%
	0047A0	TIGER 차이나테크TOP10	1,837.9	0.490	O	70%
	0051G0	SOL 미국원자력SMR	1,652.4	0.450	O	70%
	394670	TIGER 글로벌리튬&2차전지SOLACTIVE(합성)	1,590.6	0.490	O	70%
	0180V0	ACE 미국우주테크액티브	1,456.3	0.800	O	70%
	0048K0	KODEX 차이나휴머노이드로봇	1,430.7	0.450	O	70%
	481180	SOL 미국소프트웨어	1,382.7	0.450	O	70%
	0123G0	TIGER 미국AI전력SMR	1,367.2	0.490	O	70%
	463680	KODEX 미국S&P500테크놀로지	1,248.4	0.250	O	70%
	411420	KODEX 미국나스닥시테크액티브	1,226.9	0.500	O	70%
	0181B0	HANARO 미국시메모리반도체TOP4+	1,214.4	0.450	O	70%

자료: KRX,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26-09-09 기준 / 운용자산 500억원 이상

해외 주식형 - 업종 섹터 (2)

분류	코드	ETF명	운용자산 (억원)	총보수 (%)	개인연금	퇴직연금
업종 섹터	372330	KODEX 차이나항생테크	1,084.2	0.120	O	70%
	017480	KoAct 글로벌시메모리반도체액티브	1,083.7	0.500	O	70%
	0036R0	RISE 미국휴머노이드로봇	1,047.3	0.400	O	70%
	464930	TIGER 글로벌혁신블루칩TOP10	1,039.5	0.480	O	70%
	464310	TIGER 글로벌AI&로보틱스 INDXX	1,034.8	0.490	O	70%
	0142D0	TIGER 미국시데이터센터TOP4Plus	1,034.1	0.490	O	70%
	203780	TIGER 미국나스닥바이오	1,029.1	0.300	O	70%
	394660	TIGER 글로벌자율주행&전기차SOLACTIVE	1,015.9	0.490	O	70%
	0176E0	RISE 미국AI전력인프라액티브	1,007.8	0.450	O	70%
	0035T0	PLUS 글로벌휴머노이드로봇액티브	918.7	0.450	O	70%
	298770	KODEX 한국대만IT프리미어	907.3	0.550	O	70%
	479620	SOL 미국AI반도체칩메이커	845.0	0.450	O	70%
	485690	RISE 미국AI밸류체인TOP3Plus	800.9	0.010	O	70%
	0162L0	KODEX 차이나반도체TOP10	799.1	0.550	O	70%
	469060	RISE 미국반도체NYSE	762.0	0.010	O	70%
	473640	HANARO 글로벌금채굴기업	723.2	0.150	O	70%
	0225V0	KODEX 미국CPU반도체TOP10	700.2	0.550	O	70%
	412770	TIGER 글로벌AI플랫폼액티브	699.5	0.790	O	70%
	0102A0	TIGER 미국AI소프트웨어TOP4Plus	690.4	0.490	O	70%
	0190Y0	TIGER 구글밸류체인	674.6	0.450	O	70%
	275980	TIGER 글로벌4차산업혁신기술(합성 H)	599.1	0.400	O	70%
	495940	RISE 미국시테크액티브	591.0	0.500	O	70%
	0040S0	HANARO 글로벌피지컬AI액티브	581.0	0.600	O	70%
	0181L0	SOL 미국우주항공TOP10	581.0	0.450	O	70%
	453640	KODEX 미국S&P500헬스케어	579.7	0.250	O	70%
	479730	TIGER 인도발리언컨슈머	563.6	0.490	O	70%
	440910	WON 미국우주항공방산	519.5	0.350	O	70%
	480310	TIGER 글로벌온디바이스AI	511.9	0.490	O	70%
	0118Z0	ACE 미국시테크핵심산업액티브	509.5	0.450	O	70%

자료: KRX,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26-09-09 기준 / 운용자산 500억원 이상

해외 주식형 - 기타 (커버드콜, 팩터/전략 등)

분류	코드	ETF명	운용자산 (억원)	총보수 (%)	개인연금	퇴직연금
기타	458730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42,062.2	0.010	O	70%
	486290	TIGER 미국나스닥100타겟데일리커버드콜	24,024.4	0.250	O	70%
	446720	SOL 미국배당다우존스	10,112.7	0.010	O	70%
	494300	KODEX 미국나스닥100데일리커버드콜OTM	9,943.5	0.250	O	70%
	402970	ACE 미국배당다우존스	9,415.5	0.010	O	70%
	490590	RISE 미국S&P500데일리고정커버드콜	7,632.9	0.250	O	70%
	458760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타겟커버드콜2호	6,824.9	0.390	O	70%
	0127P0	ACE 미국대형성장주액티브	6,633.4	0.300	O	70%
	482730	TIGER 미국S&P500타겟데일리커버드콜	6,401.3	0.250	O	70%
	489250	KODEX 미국배당다우존스	5,879.2	0.010	O	70%
	491620	RISE 미국테크100데일리고정커버드콜	5,480.5	0.250	O	70%
	483280	KODEX 미국시테크TOP10타겟커버드콜	4,513.7	0.390	O	70%
	474220	TIGER 미국테크TOP10타겟커버드콜	4,076.1	0.500	O	70%
	0008S0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타겟데일리커버드콜	3,015.6	0.250	O	70%
	441680	TIGER 미국나스닥100커버드콜(합성)	2,751.2	0.370	O	70%
	493810	TIGER 미국시빅테크10타겟데일리커버드콜	2,343.4	0.250	O	70%
	452360	SOL 미국배당다우존스(H)	2,322.9	0.050	O	70%
	0005A0	KODEX 미국S&P500데일리커버드콜OTM	1,954.7	0.250	O	70%
	480040	ACE 미국반도체데일리타겟커버드콜(합성)	1,904.6	0.450	O	70%
	429000	TIGER 미국S&P500배당귀족	1,836.4	0.250	O	70%
	483290	KODEX 미국배당다우존스타겟커버드콜	1,769.3	0.390	O	70%
	473460	KODEX 미국서학개미	1,740.9	0.250	O	70%
	480020	ACE 미국빅테크7+데일리타겟커버드콜(합성)	1,735.5	0.450	O	70%
	490600	RISE 미국배당100데일리고정커버드콜	1,667.6	0.250	O	70%
	480030	ACE 미국500데일리타겟커버드콜(합성)	1,566.3	0.450	O	70%
	0127M0	ACE 미국대형가치주액티브	1,439.1	0.300	O	70%
	309230	ACE 미국WideMoat동일가중	1,087.9	0.400	O	70%
	0132K0	PLUS 테슬라위클리커버드콜채권혼합	1,062.5	0.390	O	100%
	0137V0	KIWOOM 미국S&P500모멘텀	1,000.0	0.120	O	70%
	0049M0	ACE 미국배당퀄리티+커버드콜액티브	772.7	0.150	O	70%
	475350	RISE 버크셔포트폴리오TOP10	695.9	0.010	O	70%
	458750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타겟커버드콜1호	655.0	0.390	O	70%
	453950	TIGER TSMC파운드리밸류체인	628.2	0.490	O	70%
	0046Y0	ACE 미국배당퀄리티	523.0	0.150	O	70%

자료: KRX,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26-09-09 기준 / 운용자산 500억원 이상

국내 채권형

국내 채권형 - 국공채

분류	코드	ETF명	운용자산 (억원)	총보수 (%)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공채	157450	TIGER 단기통안채	12,926.3	0.070	O	100%
	153130	KODEX 단기채권	8,066.8	0.150	O	100%
	006120	RISE 단기특수은행채액티브	7,208.8	0.010	O	100%
	365780	ACE 국고채 10년	5,168.9	0.020	O	100%
	385560	RISE KIS국고채30년Enhanced	5,106.6	0.050	O	100%
	114260	KODEX 국고채3년	4,922.8	0.150	O	100%
	471230	KODEX 국고채 10년액티브	4,588.8	0.015	O	100%
	148070	KIWOOM 국고채 10년	4,269.3	0.050	O	100%
	190620	ACE 단기통안채	3,242.3	0.070	O	100%
	439870	KODEX 국고채30년액티브	3,000.0	0.050	O	100%
	196230	RISE 단기통안채	2,645.2	0.130	O	100%
	302190	TIGER 중장기국채	1,930.3	0.130	O	100%
	272560	RISE 단기국공채액티브	1,574.2	0.070	O	100%
	451530	TIGER 국고채30년스트립액티브	1,417.4	0.150	O	100%
	0131W0	IQ 단기특수은행채액티브	1,378.2	0.010	O	100%
	114820	TIGER 국채3년	1,237.7	0.150	O	100%
	438560	SOL 국고채3년	1,213.8	0.050	O	100%
	438570	SOL 국고채 10년	1,191.1	0.050	O	100%
	0193M0	BNK 27-12 특수채(AAA이상)액티브	1,065.2	0.070	O	100%
	114100	RISE 국고채3년	996.4	0.115	O	100%
	461460	PLUS 국고채 10년액티브	830.6	0.045	O	100%
	481430	RISE 국고채 10년액티브	808.2	0.012	O	100%
	458030	WON 국공채머니마켓액티브	785.2	0.065	O	100%
	272910	ACE 중장기국공채액티브	739.9	0.080	O	100%
	298340	PLUS 국채선물3년	720.7	0.100	O	불가
	465780	마이티 26-09 특수채(AAA)액티브	716.4	0.060	O	100%
	114470	KIWOOM 국고채3년	515.6	0.050	O	100%

자료: KRX,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26-09-09 기준 / 운용자산 500억원 이상

국내 채권형 - 회사채

분류	코드	ETF명	운용자산 (억원)	총보수 (%)	개인연금	퇴직연금
회사채	0139F0	TIGER 12월자동연장금융채(AA-이상)액티브	10,805.8	0.100	O	100%
	0117L0	KODEX 26-12 금융채(AA-이상)액티브	9,208.8	0.090	O	100%
	487340	ACE 머니마켓액티브	7,725.3	0.050	O	100%
	0007F0	KODEX 27-12 회사채(AA-이상)액티브	5,574.6	0.090	O	100%
	438330	TIGER 우량회사채액티브	5,290.1	0.100	O	100%
	473290	KODEX 26-12 회사채(AA-이상)액티브	4,510.8	0.090	O	100%
	0016X0	SOL 중단기회사채(A-이상)액티브	4,324.7	0.050	O	100%
	0162M0	KODEX 금융채1~2년(AA-이상)PLUS액티브	4,250.0	0.090	O	100%
	480260	TIGER 27-04회사채(A+이상)액티브	3,978.7	0.100	O	100%
	0094K0	TIGER 28-04 회사채(A+이상)액티브	3,038.3	0.100	O	100%
	136340	RISE 중기우량회사채	2,926.1	0.070	O	100%
	0119H0	KODEX 28-12 회사채(AA-이상)액티브	2,701.9	0.090	O	100%
	0092C0	SOL 27-12 회사채(AA-이상)액티브	2,282.9	0.050	O	100%
	0099L0	ACE 우량회사채(AA-이상)액티브	1,749.5	0.095	O	100%
	464240	KIWOOM 26-09회사채(AA-이상)액티브	1,524.1	0.070	O	100%
	0122W0	RISE 26-11 회사채(AA-이상)액티브	1,139.7	0.050	O	100%
	0091M0	HANARO 27-06 회사채(AA-이상)액티브	1,101.0	0.020	O	100%
	475280	ACE 8월만기자동연장회사채AA-이상액티브	1,012.1	0.050	O	100%
	473440	ACE 11월만기자동연장회사채AA-이상액티브	944.5	0.050	O	100%
	0052T0	1Q 중단기회사채(A-이상)액티브	931.0	0.050	O	100%
	0123S0	HANARO 26-12 은행채(AA+이상)액티브	632.0	0.020	O	100%
	475260	ACE 2월만기자동연장회사채AA-이상액티브	506.6	0.050	O	100%

자료: KRX,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26-09-09 기준 / 운용자산 500억원 이상

국내 채권형 - 혼합형 (채권 종합, 단기자금)

분류	코드	ETF명	운용자산 (억원)	총보수 (%)	개인연금	퇴직연금
혼합/ 단기자금	488770	KODEX 머니마켓액티브	80,112.4	0.050	O	100%
	004380	TIGER 머니마켓액티브	38,378.3	0.040	O	100%
	273130	KODEX 종합채권(AA-이상)액티브	34,297.8	0.045	O	100%
	455890	RISE 머니마켓액티브	29,462.7	0.050	O	100%
	385540	RISE 종합채권(A-이상)액티브	21,042.1	0.012	O	100%
	214980	KODEX 단기채권PLUS	17,905.2	0.150	O	100%
	436140	SOL 종합채권(AA-이상)액티브	12,568.3	0.040	O	100%
	356540	ACE 종합채권(AA-이상)액티브	10,728.9	0.020	O	100%
	451540	TIGER 종합채권(AA-이상)액티브	10,320.7	0.030	O	100%
	469830	SOL 초단기채권액티브	10,154.8	0.050	O	100%
	479080	IQ 머니마켓액티브	9,649.6	0.050	O	100%
	272580	TIGER 단기채권액티브	7,602.6	0.060	O	100%
	451000	PLUS 종합채권(AA-이상)액티브	5,304.7	0.045	O	100%
	477050	PLUS 머니마켓액티브	5,244.0	0.050	O	100%
	496020	WON 전단채플러스액티브	4,858.0	0.050	O	100%
	385550	RISE 단기채권알파액티브	3,727.5	0.050	O	100%
	439860	KODEX ESG종합채권(A-이상)액티브	3,695.5	0.070	O	100%
	454780	KIWOOM 종합채권(AA-이상)액티브	2,900.8	0.025	O	100%
	497880	SOL CD금리&머니마켓액티브	2,859.2	0.050	O	100%
	273140	KODEX 단기변동금리부채권액티브	2,801.7	0.150	O	100%
	472920	HK 종합채권(AA-이상)액티브	2,542.7	0.036	O	100%
	363570	KODEX 장기종합채권(AA-이상)액티브	2,337.5	0.045	O	100%
	488980	SOL 26-12 회사채(AA-이상)액티브	2,118.4	0.050	O	100%
	486830	HANARO 머니마켓액티브	2,070.7	0.040	O	100%
	019220	TIGER 중기종합채권(A-이상)액티브	1,928.2	0.060	O	100%
	488720	WON 종합채권(AA-이상)액티브	1,465.9	0.045	O	100%
	498180	파워 종합채권(AA-이상)액티브	1,390.8	0.036	O	100%
	476450	KIWOOM 머니마켓액티브	1,339.0	0.050	O	100%
	0184L0	PLUS 중기종합채권(A-이상)액티브	1,313.4	0.060	O	100%
	463290	IQ 단기금융채액티브	1,295.5	0.080	O	100%
	461500	HANARO 종합채권(AA-이상)액티브	1,278.3	0.020	O	100%
	491230	PLUS 국공채머니마켓액티브	1,234.3	0.050	O	100%
	0000Y0	HK 26-12 회사채(AA-이상)액티브	1,233.1	0.065	O	100%
	0191W0	HANARO 중기종합채권(A-이상)액티브	1,211.3	0.050	O	100%
	0232A0	MIDAS 머니마켓액티브	1,141.6	0.060	O	100%
	0135Y0	IBK 중기종합채권(AA-이상)액티브	1,111.7	0.041	O	100%
	0221V0	IBK 초단기채권액티브	1,074.4	0.050	O	100%
	0017Y0	IQ 종합채권(AA-이상)액티브	834.4	0.025	O	100%
	440640	ACE 단기채권알파액티브	685.5	0.150	O	100%
	130730	KIWOOM 단기자금	680.2	0.050	O	100%
	492500	IQ 현대차그룹채권(A+이상)&국고통안	679.3	0.100	O	100%
	278620	PLUS 단기채권액티브	667.2	0.070	O	100%
	419890	KIWOOM 단기채권ESG액티브	624.0	0.150	O	100%
	0113P0	HK 머니마켓액티브	530.8	0.045	O	100%

자료: KRX,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26-09-09 기준 / 운용자산 500억원 이상

해외 채권형

해외 채권형

분류	코드	ETF명	운용자산 (억원)	총보수 (%)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공채	453850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H)	14,923.3	0.050	O	100%
	476550	TIGER 미국30년국채커버드콜액티브(H)	7,714.1	0.390	O	100%
	481060	KODEX 미국30년국채타켓커버드콜(합성 H)	7,659.9	0.250	O	100%
	329750	TIGER 미국달러단기채권액티브	6,625.3	0.300	O	100%
	484790	KODEX 미국30년국채액티브(H)	5,955.5	0.015	O	100%
	458250	TIGER 미국30년국채스트립액티브(합성 H)	3,830.6	0.150	O	100%
	476760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	3,652.8	0.050	O	100%
	0046A0	TIGER 미국초단기(3개월이하)국채	3,581.1	0.090	O	100%
	473330	SOL 미국30년국채커버드콜(합성)	2,711.8	0.250	O	100%
	305080	TIGER 미국채 10년선물	2,113.7	0.250	O	불가
	0091C0	KODEX 미국 10년국채액티브(H)	1,896.5	0.150	O	100%
	472870	RISE 미국30년국채엔화노출(합성 H)	1,676.4	0.150	O	100%
	304660	KODEX 미국30년국채울트라선물(H)	1,313.4	0.300	O	불가
	0085P0	ACE 미국 10년국채액티브	1,068.7	0.150	O	100%
	308620	KODEX 미국 10년국채선물	910.0	0.090	O	불가
	476750	ACE 미국30년국채엔화노출액티브(H)	602.6	0.150	O	100%
회사채	458260	TIGER 미국투자등급회사채액티브(H)	2,212.3	0.140	O	100%
	468380	KODEX iShares미국하이일드액티브	879.9	0.150	O	70%
	455660	ACE 미국하이일드액티브(H)	620.3	0.240	O	70%
혼합	0048J0	KODEX 미국머니마켓액티브	8,210.2	0.050	O	100%
	437080	KODEX 미국종합채권ESG액티브(H)	2,253.7	0.180	O	100%

자료: KRX,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26-09-09 기준 / 운용자산 500억원 이상

국내&해외 금리형 & 기타

분류	코드	ETF명	운용자산 (억원)	총보수 (%)	개인연금	퇴직연금
금리형	459580	KODEX CD금리액티브(합성)	65,454.1	0.020	O	100%
	423160	KODEX KOFR금리액티브(합성)	35,635.0	0.050	O	70%
	357870	TIGER CD금리투자KIS(합성)	35,529.6	0.030	O	70%
	481050	KODEX CD1년금리플러스액티브(합성)	25,131.8	0.050	O	100%
	449170	TIGER KOFR금리액티브(합성)	24,036.6	0.030	O	100%
	477080	RISE CD금리액티브(합성)	16,680.8	0.020	O	70%
	475630	TIGER CD1년금리액티브(합성)	12,991.7	0.010	O	100%
	479520	RISE KOFR금리액티브(합성)	10,330.7	0.020	O	100%
	456610	TIGER 미국달러SOFR금리액티브(합성)	6,884.7	0.050	O	70%
	455030	KODEX 미국달러SOFR금리액티브(합성)	5,204.3	0.150	O	70%
	499660	TIGER CD금리플러스액티브(합성)	4,827.0	0.010	O	100%
	456880	ACE 미국달러SOFR금리(합성)	3,241.8	0.050	O	70%
	458210	KIWOOM CD금리액티브(합성)	1,486.2	0.030	O	70%
	491610	1Q CD금리액티브(합성)	1,451.0	0.020	O	100%
	455960	RISE 미국달러SOFR금리액티브(합성)	537.3	0.050	O	70%
리츠	329200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15,385.9	0.080	O	70%
	476800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4,887.6	0.090	O	70%
	182480	TIGER 미국MSCI리츠(합성 H)	1,248.5	0.240	O	70%
기타	411060	ACE KRX금현물	39,766.1	0.190	O	70%
	0072R0	TIGER KRX금현물	11,826.7	0.150	O	70%
	144600	KODEX 은선물(H)	7,915.2	0.680	O	불가
	132030	KODEX 골드선물(H)	3,743.0	0.680	O	불가
	160580	TIGER 구리실물	1,651.2	0.830	O	70%
	0064K0	KODEX 금액티브	1,585.9	0.300	O	70%
	319640	TIGER 골드선물(H)	1,161.1	0.390	O	불가
	0066W0	SOL 국제금	882.1	0.050	O	70%
	0022T0	SOL 국제금커버드콜액티브	720.8	0.450	O	70%
	261240	KODEX 미국달러선물	602.6	0.250	O	불가
	0172V0	1Q 은액티브	585.6	0.300	O	70%
	261220	KODEX WTI원유선물(H)	569.3	0.350	O	불가

자료: KRX,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26-09-09 기준 / 운용자산 500억원 이상

자산배분/혼합형

분류	코드	ETF명	운용자산 (억원)	총보수 (%)	개인연금	퇴직연금
TDF	0025N0	TIGER TDF2045 적격	7,667.6	0.190	O	100%
	434060	KODEX TDF2050액티브 적격	6,227.6	0.300	O	100%
	442570	RISE TDF2050액티브 적격	3,378.5	0.010	O	100%
	433980	KODEX TDF2040액티브 적격	1,875.5	0.250	O	100%
	0082V0	KODEX TDF2060액티브 적격	1,838.0	0.300	O	100%
	433970	KODEX TDF2030액티브 적격	936.9	0.200	O	100%
	433880	PLUS TDF2060액티브 적격	653.3	0.200	O	100%
	442560	RISE TDF2040액티브 적격	531.1	0.010	O	100%
TRF	329650	KODEX TRF3070	2,307.6	0.240	O	100%
	329670	KODEX TRF7030	863.4	0.100	O	70%
	329660	KODEX TRF5050	828.6	0.170	O	100%
채권혼합형	0162Z0	RISE 삼성전자SK하이닉스채권혼합50	42,057.0	0.010	O	100%
	284430	KODEX 200미국채혼합50	20,238.9	0.350	O	100%
	0177N0	KODEX 삼성전자SK하이닉스채권혼합50	15,640.5	0.070	O	100%
	448330	KODEX 삼성전자채권혼합	12,969.2	0.070	O	100%
	438080	ACE 미국S&P500미국채혼합50액티브	12,051.0	0.150	O	100%
	438100	ACE 미국나스닥100미국채혼합50액티브	9,117.8	0.150	O	100%
	251600	PLUS 고배당주채권혼합	5,985.8	0.200	O	100%
	0019K0	TIME 미국나스닥100채권혼합50액티브	5,608.5	0.250	O	100%
	435420	TIGER 미국나스닥100채권혼합50	4,968.6	0.250	O	100%
	490490	SOL 미국배당미국채혼합50	4,630.9	0.150	O	100%
	447770	TIGER 테슬라채권혼합Fn	4,389.2	0.250	O	100%
	0040Y0	SOL 팔란티어커버드콜OTM채권혼합	3,537.7	0.350	O	100%
	472170	TIGER 미국테크TOP10채권혼합	3,316.0	0.250	O	100%
	448630	RISE 삼성그룹Top3채권혼합	3,291.8	0.200	O	100%
	0052S0	IQ 미국S&P500미국채혼합50액티브	3,133.5	0.150	O	100%
	0111P0	IQ 미국나스닥100미국채혼합50액티브	2,969.2	0.050	O	100%
	475080	KODEX 테슬라커버드콜채권혼합액티브	2,858.7	0.390	O	100%
	461490	RISE 글로벌자산배분액티브	2,795.5	0.010	O	100%
	0183V0	KIWOOM 삼성전자&SK하이닉스채권혼합50	2,619.8	0.070	O	100%
	448540	ACE 엔비디아채권혼합	2,430.3	0.070	O	100%
	0182S0	IQ K반도체TOP2채권혼합50	2,401.7	0.010	O	100%
	0233J0	TIGER 삼성전자SK하이닉스미국채혼합50	2,117.5	0.150	O	100%
	0040X0	SOL 팔란티어미국채커버드콜혼합	1,677.0	0.350	O	100%
	237370	KODEX 코리아배당성장채권혼합	1,636.7	0.190	O	100%
	0104H0	KoAct 미국나스닥채권혼합50액티브	1,416.3	0.250	O	100%
	447620	SOL 미국TOP5채권혼합50	1,214.2	0.250	O	100%
	0138Y0	PLUS 금채권혼합	1,079.2	0.150	O	100%
	460960	ACE 글로벌인컴TOP10	838.0	0.240	O	70%
	0057H0	PLUS 미국S&P500미국채혼합50액티브	766.5	0.150	O	100%
	0080X0	SOL 미국S&P500미국채혼합50	730.4	0.150	O	100%
	0233A0	ACE 삼성전자SK하이닉스플러스채권혼합50	692.5	0.070	O	100%
	0000D0	TIGER 엔비디아미국채커버드콜밸런스(합성)	607.6	0.390	O	100%
	0226A0	PLUS SK하이닉스샌디스크채권혼합50	564.6	0.250	O	100%

자료: KRX,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26-09-09 기준 / 운용자산 500억원 이상

월배당 ETF 활용하기

월배당 ETF는 매월 분배금을 나눠주는 ETF를 말한다. 분배금이란 ETF의 기초자산에 대해 발생하는 배당, 이자, 임대료, 프리미엄과 같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최근에는 다양한 유형의 월배당 ETF가 출시되고 있어 개개인의 투자 목적과 성향에 맞는 선택이 가능해졌다.

심지어, 최근에는 매월 중순 분배금을 지급하는 ETF도 다수 상장되고 있다. 월중배당 ETF의 지급 기준일은 매월 15일(15일이 영업일이 아니면 직전 영업일), 월말배당 ETF의 지급 기준일은 매월 마지막 영업일이다. 분배금은 통상 지급 기준일로부터 익영업일~7영업일 이내 지급되며, 분배금을 받으려면 분배금 기준일보다 2영업일 전일까지는(분배락일 하루 전) ETF를 매수해야 한다.

월중배당 및 월말배당 ETF를 함께 활용하면 월 2회 배당금 수령 효과를 누리는 전략을 세워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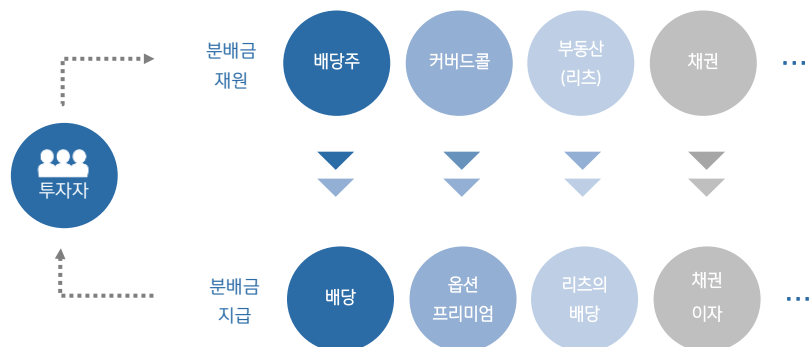
분배금 지급 일정 캘린더 예시

● (예시) '26년 5월 월배당 ETF 지급 일정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0	11	12	13	14	15	16
월중배당 : 이 날까지 매수/보유 필요!				분배락일	분배금 지급 기준일	
17	18	19	20	21	22	23
		분배금 지급일				
24	25	26	27	28	29	30
월말배당 : 이 날까지 매수/보유 필요!				분배락일	분배금 지급 기준일	
31	6/1	6/2				
		분배금 지급일				

주) 해당 월에 한정된 예시. 자료: 삼성자산운용

월배당 분배금 지급 구조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

월배당형 (1)

분류	코드	ETF명	운용자산 (억원)	총보수 (%)	개인연금	퇴직연금	분배금 지급기준일
국내주식	498400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61,176.0	0.390	O	70%	월중(15일)
	472150	TIGER 배당커버드콜액티브	25,761.0	0.500	O	70%	월말
	161510	PLUS 고배당주	24,235.6	0.230	O	70%	월말
	495050	RISE 코리아밸류업	9,760.9	0.008	O	70%	월중(15일)
	475720	RISE 200위클리커버드콜	8,540.8	0.300	O	70%	월말
	0177R0	TIGER 반도체TOP10커버드콜액티브	8,442.6	0.450	O	70%	월중(15일)
	466940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8,420.2	0.300	O	70%	월말
	498410	KODEX 금융고배당TOP10타겟위클리커버드콜	8,196.2	0.390	O	70%	월말
	441800	TIME Korea플러스배당액티브	8,053.8	0.800	O	70%	월말
	0219E0	KODEX 200커버드콜액티브	7,891.6	0.500	O	70%	월말
	0167B0	SOL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6,851.1	0.300	O	70%	월말
	495850	KODEX 코리아밸류업	6,849.0	0.008	O	70%	월말
	0105E0	SOL 코리아고배당	5,346.4	0.159	O	70%	월중(15일)
	496080	TIGER 코리아밸류업	5,275.2	0.008	O	70%	월말
	484880	SOL 금융지주플러스고배당	3,825.9	0.300	O	70%	월말
	279530	KODEX 고배당주	3,516.7	0.300	O	70%	월말
	0052D0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3,406.5	0.250	O	70%	월중(15일)
	489030	PLUS 고배당주위클리커버드콜	2,960.7	0.300	O	불가	월말
	091170	KODEX 은행	2,917.3	0.300	O	70%	월말
	0094M0	RISE 코리아밸류업위클리고정커버드콜	2,791.2	0.300	O	70%	월중(15일)
	495230	KoAct 코리아밸류업액티브	2,519.6	0.500	O	70%	월말
	0089D0	KODEX 금융고배당TOP10	2,263.6	0.300	O	70%	월중(15일)
	0104N0	TIGER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2,227.1	0.250	O	70%	월중(15일)
	0190G0	KODEX 반도체타겟위클리커버드콜	1,793.6	0.450	O	70%	월말
	0153K0	KODEX 주주환원고배당주	1,470.3	0.330	O	70%	월중(15일)
	495330	IQ 코리아밸류업	1,403.6	0.020	O	70%	월말
	0199C0	ACE 고배당주Plus커버드콜액티브	1,374.7	0.400	O	70%	월말
	448100	WON 200	1,325.4	0.050	O	70%	월말
	476850	KoAct 배당성장액티브	1,046.1	0.500	O	70%	월말
	211900	KODEX 코리아배당성장	920.6	0.150	O	70%	월말
	495040	PLUS 코리아밸류업	879.2	0.009	O	70%	월중(15일)
	0018C0	PLUS 고배당주위클리고정커버드콜	810.4	0.300	O	70%	월중(15일)
	0098N0	PLUS 자사주매입고배당주	791.3	0.300	O	70%	월중(15일)
	0198A0	KIWOOM 코스닥150커버드콜액티브	752.1	0.630	O	70%	월말
	0210E0	PLUS 200커버드콜액티브	716.6	0.491	O	70%	월말
	0111J0	HANARO 증권고배당TOP3플러스	558.5	0.070	O	70%	월말
	0139P0	ACE 고배당주	502.0	0.150	O	70%	월말

자료: KRX,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26-09-09 기준 / 운용자산 500억원 이상 /
분배금 지급 기준일: 기준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직전 영업일

월배당형 (2)

분류	코드	ETF명	운용자산 (억원)	총보수 (%)	개인연금	퇴직연금	분배금 지급기준일
해외주식	458730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42,062.2	0.010	O	70%	월말
	486290	TIGER 미국나스닥100타겟데일리커버드콜	24,024.4	0.250	O	70%	월말
	441640	KODEX 미국배당커버드콜액티브	16,642.0	0.190	O	70%	월중(15일)
	446720	SOL 미국배당다우존스	10,112.7	0.010	O	70%	월말
	494300	KODEX 미국나스닥100데일리커버드콜OTM	9,943.5	0.250	O	70%	월말
	402970	ACE 미국배당다우존스	9,415.5	0.010	O	70%	월중(15일)
	490590	RISE 미국AI밸류체인데일리고정커버드콜	7,632.9	0.250	O	70%	월말
	458760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타겟커버드콜2호	6,824.9	0.390	O	70%	월말
	482730	TIGER 미국S&P500타겟데일리커버드콜	6,401.3	0.250	O	70%	월중(15일)
	489250	KODEX 미국배당다우존스	5,879.2	0.010	O	70%	월중(15일)
	491620	RISE 미국테크100데일리고정커버드콜	5,480.5	0.250	O	70%	월말
	483280	KODEX 미국AI테크TOP10타겟커버드콜	4,513.7	0.390	O	70%	월말
	474220	TIGER 미국테크TOP10타겟커버드콜	4,076.1	0.500	O	70%	월중(15일)
	0144LO	KODEX 미국성장커버드콜액티브	3,357.4	0.490	O	70%	월말
	000850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타겟데일리커버드콜	3,015.6	0.250	O	70%	월중(15일)
	433330	SOL 미국S&P500	2,908.8	0.050	O	70%	월말
	441680	TIGER 미국나스닥100커버드콜(합성)	2,751.2	0.370	O	70%	월말
	493810	TIGER 미국AI빅테크10타겟데일리커버드콜	2,343.4	0.250	O	70%	월중(15일)
	452360	SOL 미국배당다우존스(H)	2,322.9	0.050	O	70%	월말
	0005AO	KODEX 미국S&P500데일리커버드콜OTM	1,954.7	0.250	O	70%	월말
	480040	ACE 미국반도체데일리타겟커버드콜(합성)	1,904.6	0.450	O	70%	월중(15일)
	429000	TIGER 미국S&P500배당귀족	1,836.4	0.250	O	70%	월말
	483290	KODEX 미국배당다우존스타겟커버드콜	1,769.3	0.390	O	70%	월말
	480020	ACE 미국빅테크7+데일리타겟커버드콜(합성)	1,735.5	0.450	O	70%	월중(15일)
	490600	RISE 미국배당100데일리고정커버드콜	1,667.6	0.250	O	70%	월중(15일)
	480030	ACE 미국500데일리타겟커버드콜(합성)	1,566.3	0.450	O	70%	월중(15일)
	245340	TIGER 미국다우존스30	1,402.0	0.350	O	70%	월말
	0132KO	PLUS 테슬라위클리커버드콜채권혼합	1,062.5	0.390	O	100%	월중(15일)
	453330	RISE 미국S&P500(H)	834.8	0.005	O	70%	월말
	0049MO	ACE 미국배당퀄리티+커버드콜액티브	772.7	0.150	O	70%	월말
	458750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타겟커버드콜1호	655.0	0.390	O	70%	월중(15일)
	0046YO	ACE 미국배당퀄리티	523.0	0.150	O	70%	월말

자료: KRX,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26-09-09 기준 / 운용자산 500억원 이상 /
분배금 지급 기준일: 기준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직전 영업일

월배당형 (3)

분류	코드	ETF명	운용자산 (억원)	총보수 (%)	개인연금	퇴직연금	분배금 지급기준일
국내채권	214980	KODEX 단기채권PLUS	17,905.2	0.150	O	100%	월중(15일)
	153130	KODEX 단기채권	8,066.8	0.150	O	100%	월중(15일)
	136340	RISE 중기우량회사채	2,926.1	0.070	O	100%	월말
	497880	SOL CD금리&머니마켓액티브	2,859.2	0.050	O	100%	월말
	273140	KODEX 단기변동금리부채권액티브	2,801.7	0.150	O	100%	월중(15일)
해외채권	453850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H)	14,923.3	0.050	O	100%	월말
	0048J0	KODEX 미국머니마켓액티브	8,210.2	0.050	O	100%	월말
	476550	TIGER 미국30년국채커버드콜액티브(H)	7,714.1	0.390	O	100%	월말
	481060	KODEX 미국30년국채타겟커버드콜(합성 H)	7,659.9	0.250	O	100%	월중(15일)
	484790	KODEX 미국30년국채액티브(H)	5,955.5	0.015	O	100%	월말
	476760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	3,652.8	0.050	O	100%	월말
	0046A0	TIGER 미국초단기(3개월이하)국채	3,581.1	0.090	O	100%	월말
	473330	SOL 미국30년국채커버드콜(합성)	2,711.8	0.250	O	100%	월말
	437080	KODEX 미국종합채권ESG액티브(H)	2,253.7	0.180	O	100%	월말
	458260	TIGER 미국투자등급회사채액티브(H)	2,212.3	0.140	O	100%	월말
	0091C0	KODEX 미국10년국채액티브(H)	1,896.5	0.150	O	100%	월중(15일)
	472870	RISE 미국30년국채엔하노출(합성 H)	1,676.4	0.150	O	100%	월말
	0085P0	ACE 미국10년국채액티브	1,068.7	0.150	O	100%	월말
	468380	KODEX iShares미국하이일드액티브	879.9	0.150	O	70%	월말
	455660	ACE 미국하이일드액티브(H)	620.3	0.240	O	70%	월말
	476750	ACE 미국30년국채엔하노출액티브(H)	602.6	0.150	O	100%	월말
자산배분형/ 혼합	284430	KODEX 200미국채혼합50	20,238.9	0.350	O	100%	월중(15일)
	0177N0	KODEX 삼성전자SK하이닉스채권혼합50	15,640.5	0.070	O	100%	월중(15일)
	448330	KODEX 삼성전자채권혼합	12,969.2	0.070	O	100%	월중(15일)
	251600	PLUS 고배당주채권혼합	5,985.8	0.200	O	100%	월말
	490490	SOL 미국배당미국채혼합50	4,630.9	0.150	O	100%	월중(15일)
	0040Y0	SOL 팔란티어커버드콜OTM채권혼합	3,537.7	0.350	O	100%	월말
	475080	KODEX 테슬라커버드콜채권혼합액티브	2,858.7	0.390	O	100%	월말
	0183V0	KIWOOM 삼성전자&SK하이닉스채권혼합50	2,619.8	0.070	O	100%	월중(15일)
	329650	KODEX TRF3070	2,307.6	0.240	O	100%	월중(15일)
	0233J0	TIGER 삼성전자SK하이닉스미국채혼합50	2,117.5	0.150	O	100%	월말
	0040X0	SOL 팔란티어미국채커버드콜혼합	1,677.0	0.350	O	100%	월말
	237370	KODEX 코리아배당성장채권혼합	1,636.7	0.190	O	100%	월중(15일)
	329670	KODEX TRF7030	863.4	0.100	O	70%	월중(15일)
	460960	ACE 글로벌인컴TOP10	838.0	0.240	O	70%	월말
	329660	KODEX TRF5050	828.6	0.170	O	100%	월중(15일)
	0057H0	PLUS 미국S&P500미국채혼합50액티브	766.5	0.150	O	100%	월말
	0080X0	SOL 미국S&P500미국채혼합50	730.4	0.150	O	100%	월중(15일)
	0233A0	ACE 삼성전자SK하이닉스플러스채권혼합50	692.5	0.070	O	100%	월말
	0000D0	TIGER 엔비디아미국채커버드콜밸런스(합성)	607.6	0.390	O	100%	월말
	459580	KODEX CD금리액티브(합성)	65,454.1	0.020	O	100%	월말
기타	423160	KODEX KOFR금리액티브(합성)	35,635.0	0.050	O	70%	월말
	481050	KODEX CD1년금리플러스액티브(합성)	25,131.8	0.050	O	100%	월말
	329200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15,385.9	0.080	O	70%	월말
	455030	KODEX 미국달러SOFR금리액티브(합성)	5,204.3	0.150	O	70%	월말
	476800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4,887.6	0.090	O	70%	월중(15일)
	499660	TIGER CD금리플러스액티브(합성)	4,827.0	0.010	O	100%	월말
	182480	TIGER 미국MSC리츠(합성 H)	1,248.5	0.240	O	70%	월말
	0022T0	SOL 국제금커버드콜액티브	720.8	0.450	O	70%	월말

자료: KRX,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26-09-09 기준 / 운용자산 500억원 이상 /
분배금 지급 기준일: 기준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직전 영업일